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2012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클래식 음악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 문제 연구

음 악 예 술 경 영 전 공
오 경 지

2013

클래식 음악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 문제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12 월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음 악 예 술 경 영 전 공 오 경 지

오 경 지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정 소 회 _____

심사위원 정 윤 보 _____

 박 은 혜 _____

 정 소 회 _____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A.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특성	4
1.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성격	5
2. 가치재적 상품으로서의 성격	6
3. 경험적 상품으로서의 성격	7
B.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결정 과정	8
1. 음악공연예술상품 티켓 가격의 특성	9
2. 티켓 가격결정의 원리	10
가. 비용중심 가격결정	11
나. 수요대응 가격결정	12
다. 시장대응 가격결정	15
3. 좌석등급 구분과 가격 차별화 전략	16
C. 음악공연예술시장의 변화와 티켓 매니지먼트	19
III. 클래식음악공연상품의 티켓 인플레이 현황	24
A.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현황	24
1. 오페라·발레 공연	25
2. 해외 아티스트 공연	28
3. 국내 아티스트 공연	30

B.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 원인	32
1. 기업후원과 초대권 관행	33
2. 베블런 효과의 영향	35
3. 앵커링 효과와 조정	36
C.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 문제점	38
1. 옥상옥 등급의 등장	39
2.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향유 문제	41
3. 장기적 관점의 잠재관객개발 문제	43
 IV. 개선방안	46
A. 좌석등급 표준제	46
B. 기업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 정착	47
C. 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티켓 판매 확대	49
1. 문화바우처사업 및 나눔티켓 확대	50
2. 러시티켓	52
가. 러시티켓 정의	52
나. 해외 러시티켓 활용 사례	53
다. 국내 러시티켓 활용 사례	55
 V. 결론	58
 참고문헌	61
부록 1	65
부록 2	68
부록 3	76
ABSTRACT	95

표 목 차

1. 가격별 티켓 수요와 예상 수입	13
2. 연도별 티켓 예매 시장 변화	20
3. 공연시장과 공연티켓 예매시장 규모비교	21
4. 주요 공연장 티켓 예매시스템 사용 현황	22
5. 오페라 「나비부인」 등급별 티켓 가격과 좌석 수	24
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의 연도별 좌석등급 변화	26
7. 2011-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27
8. 이 무지치 실내악단 내한 공연 연도별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변화	29
9.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 중 최고가 공연	30
10. 2007 빈 슈타츠 오페라 내한공연 공연 제작비 내역	32
11.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클래식 음악공연 연간 관람률	42
1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표준 좌석등급 및 좌석별 배정 가능 좌석 수	46
13. 예술의전당 당일할인티켓 오픈 시간	56

그 림 목 차

1. 음악공연예술상품 수요의 가격탄력도 비교	14
2. 좌석등급 표준제에 따른 좌석배치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7
3. 클래식 음악공연 관객 취향 형성시기	43
4. 연령별 클래식 음악회 선택기준	44

논 문 개 요

오늘날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계에 새롭게 대두된 좌석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은 기존까지 공연장 내 최고 좌석이었던 R(Royal)석을 밀어내고 그 상위에 VIP(Very Important People)석, 또 그 상위에 VVIP(Very Very Important People)석, 마지막으로 최고 상위에 P(President)석을 만들어내며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장 내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좌석등급의 변동과 함께 티켓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이에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은 유명 아티스트의 클래식 음악 공연 감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최고 등급위에 새로운 최고 등급이 오르는 ‘옥상옥(屋上屋) 등급’의 문제와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클래식 음악 공연이 하나의 음악공연예술상품으로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공연장 내 좌석등급 분류방법 및 티켓 가격 결정원리를 조사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음악공연예술상품들의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의 추이를 조사하여 그 간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2012년 7월부터 예술의전당이 시행하고 있는 ‘좌석등급 표준제’를 알아보았으며 기업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 정착과 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티켓 판매 확대를 제안하였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사회적으로 소비를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재(價値財)적인 상품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때 그 가치가 상승하는 공공재(公共財)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합리적인 좌석등급 분류와 티켓 가격 산정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I. 서론

A. 연구 목적

어느 훌륭한 음악가의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공연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클래식 음악공연 기획자들은 좋은 공연의 가치를 두고 큰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무형성(intangibility), 비분리성(inseparability), 가변성(viability) 그리고 소멸성(perishability)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좋은 좌석을 더 좋게 포장하기 위해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에 인플레이(inflation) 현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베르디의 오페라 「리콜레토」는 공연계에서 기형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 좌석등급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전까지 최고 좌석등급이었던 R(Royal)석 위에 VIP(Very Important People)석을 만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P(President)석을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원래 로열석(Royal)이었던 R석은 공연장 구석으로 밀려나 어느새 레귤러(Regular)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최고 좌석 위에 최고 좌석이 또 오르는 클래식 음악공연계 ‘옥상옥(屋上屋)등급’ 현상은 티켓 가격 인플레이 문제까지 야기하였다. 티켓 가격도 좌석등급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올랐고, 하루 저녁 공연의 티켓 가격이 일반 평균 근로자 월급의 1/3까지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 것이다.

클래식 음악공연은 개인의 소유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일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기관인 예술의전당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나섰다. 2012년 7월부터 예술의전당 전 공연에 ‘좌석등급 표준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러시티켓’으로 불리는 티켓 할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시켜 ‘당일할인티켓’이란 이름으로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음악공연예술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클래식 음악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 현상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이번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클래식 음악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책정원리를 정리하고, 10년간의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을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원인과 문제점을 경영학, 경제학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B.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기준 안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예술경영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접근, 둘째,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황과악, 원인 및 문제점 분석, 셋째, 개선방안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공연이 음악공연예술상품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클래식 음악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결정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티켓 가격 결정과정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에 따른 좌석등급 구분, 가격 차별화 전략이 갖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음악공연예술시장의 변화와 티켓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짚어 보았다.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상품의 티켓 인플레이션 현황 조사는 2012년 현재, 전국 794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 중에서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 내 클래식 음악공연만을 위주로 하는 대표 공연장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¹⁾

서울은 공연문화의 중심지로 전국 공연장 중 37.5%이상이 넘는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의 35.8%가 넘는 공연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예회관 가동률 또한 63%이상으로 전국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²⁾

서울 내 클래식 음악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에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과 서울시 내 지역구가 운영하고 있는 강동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노원문화예술회관, 마포아트센터 등이 있고 그 외에 기업의 문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 LG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호암아트홀 등이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서강대학교 메리홀

1) 전체현황 및 통합검색, 2012년 12월 1일 검색, http://www.gokams.or.kr/05_know/internaldb_total_list.aspx.

2) 예술경영지원센터 편,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서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p. 30.

등과 상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포니정홀, LIG아트홀, 모차르트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예술의전당은 오페라, 발레 공연과 해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공연, 국내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클래식 음악공연이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 리사이틀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립 후 지금까지 공연장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특수법인 공연장이다.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은 클래식 음악공연의 분포가 연간 공연 중 50% 이상을 넘지 못했으며, LG아트센터를 비롯한 충무아트홀, 마포아트센터 등은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클래식 음악공연 외에도 뮤지컬 공연 및 연극, 대중 음악공연 등이 이루어지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금호아트홀과 모차르트홀, 영산아트홀 등은 비교대상으로 선택하기에는 공연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오케스트라 공연 및 오페라·발레 공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 연구 대상으로 예술의전당을 선정하였다. 예술의전당의 클래식 음악공연을 첫째, 오페라·발레공연, 둘째, 해외 아티스트 초청공연, 셋째, 국내 아티스트 공연으로 구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유사 장르 공연의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정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하여 오늘날 티켓 인플레이션 현황이 시사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기사를 참조하고 담당자 인터뷰, 문헌 조사를 함께 시행하였다.

2012년 7월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실시된 ‘좌석등급 표준제’와 ‘당일할인티켓’은 담당자 인터뷰와 언론 보도,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시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문화상품에 대한 기업의 후원 문화는 한국메세나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러시티켓은 현재 러시티켓을 시행하고 있는 국외 유명 공연장의 홈페이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이란 국내 순수 클래식 음악공연에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10년간의 기간적 범위를 두고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문화공간과 대중적 음악공연예술상품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A.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특성

음악공연예술(music performing art)이란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관객을 위해 직접 연주를 행하며 작품을 만드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연주자와 관객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직접 실연(實演)을 체험하게 되는 음악공연예술은 무대의 특성에 따라 조명, 무대장치, 음향 등에 정교하고 세밀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음악공연예술은 오늘날 문화콘텐츠³⁾의 일부가 되었고 시장경제에서 저만의 독특한 가치를 발하며 타인과의 물질적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유용한 “상품(商品)”⁴⁾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의 음악공연예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획자는 상당한 비용과 인력, 노력 등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음악공연예술상품으로 판매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연예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1960년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 같은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제학적 접근은 먼저 음악공연예술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재화(財貨) 인지에서부터 시작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보몰(W. Baumol)과 보웬(W. Bowen)은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Performing Arts : The Economic Dilemma)』 (1966)에서 “문화예술상품은 본래부터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지적했다.⁵⁾ 이 지적에서처럼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일반적인 상품들과 구별되는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이재희(2009)는 공연예술상품의 특성을 서비스 제품, 경험재, 차별적 제품, 노동집약적 제품,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라 설명했다.⁶⁾ 또한 김주호(2010)는 클래식 음악공연의 특성을 서비스 상품의 4가지 특성으로 보고 무형성,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으로 설

3) “문화콘텐츠란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다.” (출처: 김평수, 윤홍근, 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 5.)

4) Karl Marx, *Das Kapital : Kritik d. polit. Ökonomie*, (Berlin: Dietz Verlag, 1988) p. 100.

5) W. Baumol, W. Bowen, *Performing Arts : The Economic Dilemma*, 1966, 임상오 역,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11), p. 193.

6)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서울: 삼영사, 2009), pp. 25-29.

명하고 있다.⁷⁾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주요한 특성을 일별(一瞥)하여 고찰하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시장 실패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선행(先行)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특성을 크게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성격, 가치재적 상품으로서의 성격, 경험적 상품으로서의 성격인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성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는 유형의 상품인 재화와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가 있다. 그 중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인간행위에서 비롯되는 서비스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인 서비스 상품은 크게 4가지의 성격을 내포하는데 무형성(intangibility), 비분리성(inseparability), 가변성(variability) 그리고 소멸성(perishability)이 그것이다.⁸⁾

첫째로,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구매하기 전에 만져서 느껴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무형성을 갖고 있다. 관객들은 공연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공연에 대해 경험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즉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개인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무형성의 특징은 관객들이 구매 결정 시, 유명한 연주자, 호의적인 평판, 훌륭한 극장 같은 것들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하고자 하고 그것들 사이에서 공연의 증거를 찾게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음악공연예술상품은 무대 위에서의 직접적인 연주 자체보다도 연주자의 프로필, 공연이 행해지는 공연장의 유명도나 접근성, 시선을 끄는 마케팅이나 효과적인 홍보 등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공연기획자가 양질의 공연을 기획하여도 성공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관객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기획자는 관객의 니즈와 음악공연예술상품만의 특징적인 면모를 파악하여 무형적인 것을 유형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⁹⁾ 여기

7) 김주호, 이은정. “클래식 음악공연의 소비자 선택요인과 의사결정의 탐색적 연구,” 『Journal of commodity science』 제28권, 제6호 (2010)

8)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p. 25.

9) Philip Kotler, Joanne Scheff, *Standing Room Only : Strategies for marketing the performing arts*, 1997, 용호성 역, 『전석매진』 (경기: 김영사, 2010), p. 319.

엔 공연의 성격이나 특징을 이미지화시키거나 훌륭한 연주자로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홍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로 서비스가 그것을 제공하는 생산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의 비분리성이 있다. 비분리성은 현장성과 시기성, 1회성 소비와 연관된다. 공연관람은 정해진 시간에 예술가가 제공하는 실연을 보는 것으로 소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관객은 공연의 구성요소로서 박수, 환호 등을 통해 공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이 생산되는 장소에서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공연관람을 위해서 소비자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와야만 한다. 소비를 위하여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시간 집약적(time-intensive)성¹⁰⁾을 가진 음악공연예술은 이런 특성 때문에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분할 소비를 할 수 없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비할 수도 없다.

셋째로 가변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서비스 제공의 장소, 시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변성의 성질 때문에 음악공연예술상품은 동일한 공연이 있을 수 없다. 연주자의 당일 컨디션이나 공연장의 음향상태,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도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공연의 질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서비스 상품으로서 소멸성을 가진다. 소멸성은 그것이 제공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과는 달리 그 수명이 한정적이다. 특정 일시의 공연티켓이 다 팔리지 않았다면 팔지 못한 티켓은 재고(在庫)로 남겨둘 수가 없으므로 제품가치를 영원히 상실해 버린다. 따라서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빈 좌석은 판매할 수 없고 공연시간을 놓친 관객은 그 공연에 대해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가치제적 상품으로서의 성격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일반적 상품과는 다른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징을 가진다. 일반 사유재(private goods)는 그 재화를 구매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비할 수 있지만,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일단 공급되면 그

10)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p. 26.

혜택이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동시에 집단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가치재(merit goods)적이고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가치재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소비결정을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적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비가 결정되므로 사회적으로 소비를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¹¹⁾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가치재적인 상품으로 음악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과 창조적 에너지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게 도와준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공공재적인 성격과 연관되게 한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공급되면 자동적·필연적으로 커뮤니티 전체에게 공급되는 특성을 가진 재화이다.¹²⁾ 음악공연예술상품은 한명의 관중보다도 많은 관중들이 함께 즐길 때 그 가치가 더 상승한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공공재적 성격은 미국의 경제학자 보몰과 보웬이 앞서 지적했듯이 상품 수요측면의 시장 실패적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공연예술상품이 예술적 공공재로서 사회 전체에 일반적,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인 편익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정부나 기업 등의 공적(公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¹³⁾

3. 경험적 상품으로서의 성격

문화상품은 소비로부터 기대되는 주요 편익이 감정적 반향이기 때문에 감각재에 속하고 한 번의 소비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경험재의 성격을 가진다. 경험재란 탐색에 의해 쉽게 평가가 불가능하여 소비자가 직접 소비해 보기 전에는 품질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한 두 번의 경험을 통해 기호가 형성되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복적인 소비 경험을 통해 가치를 터득해가는 소비자 능력이 요구되므로 더 나은 공연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조기교육이나 조기경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런 공연경험이 부족한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하기 전이나 관람한 후에도 정확한 품질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흔히 소비자들은 신문

11) 강은경, 『공연계약의 이해』 (서울: 오래, 2012), p. 147.

12) W. Boumol, W. Bowen, 임상오 역,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p. 483.

13) Ibid. p. 488.

과 방송에 많이 보도되는 유명 연주자가 출연하는 공연이나 명성이 높은 공연을 선택한다.¹⁴⁾ 경제학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한 제품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제품을 신용재(credence goods)라고 부른다. 신용재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판단할 정확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해당 제품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제품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공연기획자들은 소비자가 자신들의 상품의 질을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설치해 놓는다. 예를 들면 저명한 공연장, 전문가의 좋은 평론과 연주자들의 수상경력 등이 기재되어있는 카탈로그, 공연에 관한 기념품 판매, 공연장 직원들의 태도와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¹⁵⁾

경험적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의 영역에서는 공연과 함께 선행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음악공연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성립하게 되고 연주자와 기획자는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게 되어 음악공연예술상품이 진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B.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결정과정

공연기획자가 한 공연의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는 달리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구성된다. 일반적인 상품은 대부분 그 제작비용에 따라 원가와 정가가 결정되지만,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제작비용을 상품판매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과정이 일반 상품보다 민감해지는 것이다.¹⁶⁾ 또한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을 결정할 때 기획자는 공연의 취지 달성과 공연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티켓 구매는 단순히 작품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공연의 특징, 연주자의 명성, 공연장 접근도 및 분위기, 편의성 등 복합적인 공연의 여러 요소를 함께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14)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p. 27.

15) 박정호,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 고급 공연예술이 상연되는 공간이 우아한 이유는?,” (한국경제, 2012. 8. 24).

16) 송희영, 『공연예술경영, 무엇을 어떻게 할까?』 (서울: 민속원, 2006), p. 203.

따라서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몇 가지의 기본 가격설정원리와 방법 등을 따르되, 정치적·사회적인 상황과 공연계의 주요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적합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음악공연예술상품 티켓 가격의 특성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설정 목표는 생산비용을 초과한 매출 수입을 극대화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시장 점유율, 매출, 기술, 새로운 품질 등 여러 기업의 장단기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¹⁸⁾

그러나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가격은 그 공연의 질과 가치를 상징하는 외적인 지표이며 고객은 공연예술상품 소비 결정에 여러 가지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분야의 가격 결정에는 공연감상을 위한 지불요소 뿐만 아니라 관객이 기울이는 물리적, 심리적인 노력도 포함된다.¹⁹⁾ 따라서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티켓 가격에는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과는 달리 생산과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심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연기획자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티켓 가격결정을 통해 ‘수입 극대화’와 ‘관객 규모 최대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시켜야 한다.²⁰⁾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성공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단순한 총 수익뿐만 아니라 관객의 규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연수익의 3요소인 공연 횟수, 좌석 수, 티켓 가격의 적절한 조절을 통하여 공연기획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²¹⁾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그 기획의도에 따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티켓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익성을 띤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기획자는 자신의 공연상품이 사회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신뢰하고 가능하

17) 김운전, “클래식 음악공연 티켓가격의 적정성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9.

18) 강일중, “공연예술단체의 가격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 영국 ·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2.

19) 박선기, “클래식 공연상품 제작에 관한 연구: 음악전공자와 음악대학원의 방향성 모색,”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23.

20) Philip Kotler, Joanne Scheff, 옹호성 역, 『전석매진』, p. 381.

21) 황재연, 『뮤직 비즈니스』 (서울: 시유시, 2004), p. 185.

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소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공연좌석과 공연 횟수 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상 관객을 정립하고 적합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일부만을 보전하는 가격을 결정하거나 예상 관객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가격(social price)²²⁾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가격결정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가격이 예술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²³⁾ 양질의 음악공연예술상품에는 저명한 연주자와 음향이 좋은 공연장, 예술성 있는 공연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렴한 티켓 가격만을 고려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양질의 음악공연예술상품을 포기하게 된다면 예술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술적 결손(artistic deficit)이라고 한다. 일반상품의 경우 재고품의 할인이나 유통과정의 축소 등을 통하여 동일한 상품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음악공연예술상품은 무재고성, 비분리성의 특성 때문에 같은 공연의 공급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도 공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면 공연자를 저명한 연주자에서 신인 연주자로 변경하거나 대관료가 비싼 유명 공연장에서 비교적 대관료가 저렴한 공연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공연 자체의 고유성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공연기획자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2. 티켓 가격결정의 원리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가격결정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고려하여 제작비용중심의 가격결정방법, 제작비와 시장 내의 관객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획한 공연과 비슷한 경쟁 공연의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시장대응 가격결정 방법이 있다.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 티켓 가격의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므로 공연기획자는 각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 세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22) “공공가격(social price)” (출처: 안광호, 하영원, 박홍수, 『마케팅원론 3판』 (서울: 학현사, 2004), p. 515.)

23) 강일중, “공연예술단체의 가격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 영국 ·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3.

가. 비용중심 가격결정

비용중심 가격결정(cost based pricing)이란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가격을 바탕으로 목표로 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경우에는 공연 제작비용과 공연 횟수, 좌석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비에 따른 평균티켓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이러한 가격책정원리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활용하지만,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경우 이처럼 단순히 제작비용만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는 드물다.²⁵⁾ 이는 티켓 가격에 따른 관객의 구매의향이나 경쟁상품의 변동비용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 유명한 연주자가 주역으로 출연하는 오페라 공연이나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등의 스타 마케팅을 활용한 공연을 기획할 경우는 비용중심으로 가격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 이미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된 세계적인 연주자를 섭외하려면 높은 개런티와 체류비 등으로 인해 제작비가 비싸지고 결과적으로 티켓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1년 11월에 있었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의 경우, VIP석 티켓 가격이 450,000원으로 오케스트라 단독공연 중 국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개런티와 항공료, 호텔료 등의 체재비 등을 비롯한 공연 총 제작비가 약 22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VIP석 티켓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이처럼 스타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공연일 경우, 비용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공연보다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국내 오케스트라 단독공연 유료관객 점유율이 평균 60%였다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유료관객 점유율은 90% 이상이었고 이것은 이러한 유명 연주자의 공연일 경우 티켓 가격에 대해 관객들이 비탄력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

24) Ibid. p. 14.

25) 용호성, 『예술경영』, p. 504.

26)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3석) 2회 공연 기준으로 수지(제작비 22억원)를 맞추려면 VIP석을 90만원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비난 여론 때문에 실제 VIP석 티켓가는 45만원으로 책정됐다. 2회 공연이 매진돼도 티켓 판매액은 12억원에 불과하다.” (출처: 전지현 기자, “‘지젤 공연’ 뉴욕 16만원 vs 서울 40만원 왜?,” (매일경제, 2012. 6. 1).)

반면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은 비용을 내세워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면 공연제작의 목적이 이윤성 추구가 아닌 보다 많은 관객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엔 공연비용이 가격책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연기획자는 국가나 기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일 경우 각 공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파악하여 방향성 있게 티켓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나. 수요대응 가격결정

수요대응 가격결정이란 소비자에 기반을 둔 가격 책정 방법(consumer based pricing)이다. 이것은 상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생산비용보다는 표적시장에서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만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²⁷⁾ 따라서 공연기획자는 소비자가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해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각가치(perceived valu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케팅적인 가격책정에 관한 핵심개념을 서술한 아오키 준(青木 淳)의 『프라이싱 (プライシング : 消費者を魅了する「値ごろ感」の演出)』(2003)에서는 “프라이싱(Pricing)이란 고객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금전이라는 공통지표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⁸⁾ 즉 음악공연예술 시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격결정요인은 공연상품에 대해 관객이 평가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관객은 자신의 기대와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해 가격과 비용이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²⁹⁾

공연기획자가 고객의 지불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공연의 작품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직접 소비자를 조사하는 방법, 제3자인 전문가의 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등이 있다.³⁰⁾ 또한 관객의 특성 파악도 중요하다. 음

27) 박선기, “클래식 공연상품 제작에 관한 연구: 음악전공자와 음악대학원의 방향성 모색,”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23.

28) 青木 淳, 『プライシング : 消費者を魅了する「値ごろ感」の演出, ダイアモンド社,』 2003. 한양심 역. 『프라이싱 : 소비자를 사로잡는 가격 책정 기술』 (서울: 한스미디어, 2004), pp. 18-19.

29) 이승엽, 『극장경영과 공연제작』 (서울: 역사넷, 2001), p. 343.

30)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p. 144.

악공연예술상품을 구매하는 관객 중에서는 과시용 소비 수요자도 존재한다. 이는 베블런이 말하는 ‘사치재의 소비현상’으로 해외 유명 연주자의 내한공연이나 VIP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에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객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좌석의 티켓 가격을 낮추어 책정하면, 관객들은 작품의 질을 의심하거나 과시용 소비 수요자들의 지불 용의를 저해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티켓 가격결정을 통해 수입 극대화와 관객 최대화를 만족시켜야 하는 공연기획자는 가격별로 예상할 수 있는 수요를 잡고 잠정적인 수입을 계획하여야 한다.

<표 1> 가격별 티켓 수요와 예상 수입

티켓가격(원)	수요티켓(석)	잠정적 수입(원)	1,500석 극장 예상수입(원)
100,000	300	30,000,000	30,000,000
75,000	400	30,000,000	30,000,000
60,000	500	30,000,000	30,000,000
50,000	650	32,500,000	32,500,000
37,500	950	35,625,000	35,625,000
25,000	1,350	33,750,000	33,750,000
22,500	1,500	33,750,000	33,750,000
15,000	2,000	30,000,000	22,500,000
5,000	3,000	15,000,000	7,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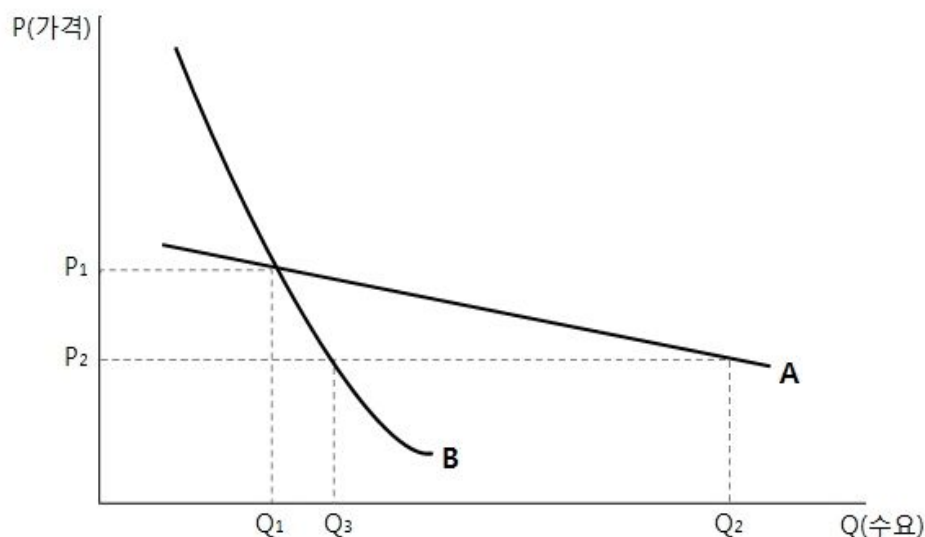
출처: Michael P. Mokwa, William M. Dawson, E. Arthur Prieve, *Marketing the Arts*,
(New York : Praeger Publisher, 1980), 연구자 재편집.

<표 1>은 각각의 가격별로 티켓 수에 따른 잠정적 수입을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수입 극대화를 위한 티켓 가격은 37,500원이어야 하며 그 결과 35,625,000원의 총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가격 수준에서는 950석만이 채워지므로 공연장의 63%만이 채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티켓 가격이 15,000원이라면 모든 티켓은 매진될 수 있겠지만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500명은 그냥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매진되더라도 이 경우 수입은 22,500,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티켓 가격이 22,500원일 경우와 25,000원일 경우 그리고 티켓 가격이

60,000원, 75,000원, 100,000원일 경우에 관객의 수는 늘거나 줄어들어든 가격증가로 보충되어 수입은 똑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연기획자는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공연의 목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음악공연예술상품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각 공연의 성격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가격 변화의 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이고 가격 변화의 폭이 클 때 수요가 둔감하게 반응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을 뜻한다.³¹⁾

<그림 1> 음악공연예술상품 수요의 가격탄력도 비교



위에 제시된 그래프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음악공연예술상품 A와 가격탄력성이 낮은 음악공연예술상품 B를 비교한 것이다. 티켓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낮아지면 A 공연 관객의 수요는 Q_1 에서 Q_2 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의

31) 용호성, 『예술경영』, p. 514.

공연은 티켓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연으로 주로 방학과제를 위해 클래식 음악공연에 참석하는 중고생이 대상인 청소년 음악회나 지역주민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음악공연예술상품 B의 경우는 티켓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낮아져도 관객의 수요가 Q_1 에서 Q_3 로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연은 클래식 공연 애호가들을 위해 기획된 유명아티스트 초청공연이나 세계적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등이 될 것이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음악공연에 대한 관객의 선호가 강하게 형성될수록 티켓 가격에 있어 관객의 변화율이 낮으므로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아진다. 티켓 가격이 낮다고 하여 관객이 늘어나거나 티켓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관객이 급격히 줄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기획자는 각 공연의 목적에 따라 예상 수요자의 타겟(target)을 정하고 예상 수요자에게 맞게 티켓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 시장대응 가격결정

시장에서 유사한 경쟁 공연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티켓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대응 가격결정 방법은 오늘날 공연기획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시장대응 가격이 적절한 수준의 수입을 확보해 주며 합리적 규모의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표가격이라고 여기고, 관객이나 경쟁 단체가 가격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공연기획자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³²⁾

일종의 경쟁 중심 가격결정방법(competition based pricing)인 이 방법은 관객들이 유사한 공연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특정 공연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유사한 작품에 대해 시장대응 가격보다 티켓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다면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된다면 작품의 질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때 비교되는 공연상품은 지금 현재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공연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에 보았던 공연상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꼭 공연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토

32) Philip Kotler, Joanne Scheff, 옹호성 역, 『전석매진』, p. 388.

요일 저녁 연인과 함께 저녁 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인 20대 중반의 연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인은 같은 시간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영화관이나 레스토랑은 공연상품 그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인과 함께 주말 저녁 한정된 시간과 돈을 소비하려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공연 역시 이러한 활동들처럼 선택 가능한 대안 들 중 하나가 될 뿐이다.³³⁾

시장대응 가격결정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본 공연상품이 시장의 다른 유사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얼마나 충성도 높은 관객층을 형성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한다면 주변 유사상품들이 책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경쟁상품의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지, 반드시 경쟁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책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공연의 성격과 예상 관객의 특성에 따라 공연시장 내의 유사 공연상품보다 고가나 저가 가격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독자적인 방법으로 책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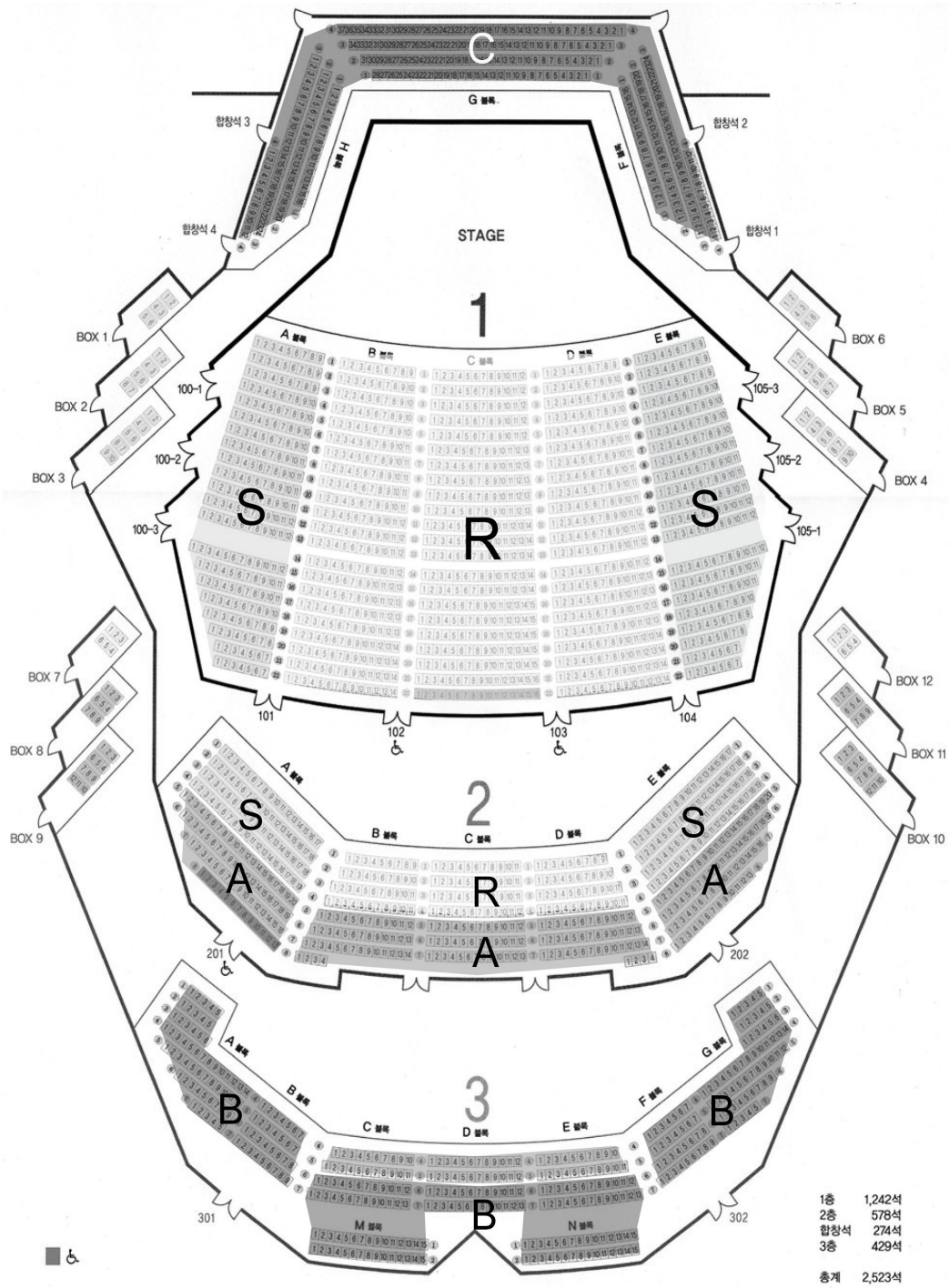
3. 좌석등급 구분과 가격 차별화 전략

공연예술상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unit pricing)과 함께 단계별 가격(multiple pricing)으로 이루어진다. 단일 가격은 제한된 가격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좌석이나 공연 시간과는 무관한 가격책정방법이며 단계별 가격은 좌석의 위치, 공연시간, 관람객의 연령 등에 따라서 티켓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가격책정이다.³⁴⁾ 여기에는 좌석등급 결정도 포함된다. 좌석등급은 좌석이 가지는 공연관람의 유리함이나 음향의 유리함으로 구분된다. 좌석의 위치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이유는 관객의 성향에 따라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가격탄력성이 낮은 클래식 음악공연 애호가나 매니아 관객들은 티켓 가격에 상관없이 좋은 좌석에서 음악공연을 감상하기를 원하지만 티켓 가격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는 관객들은 열악한 조건의 좌석이라도 저렴한 티켓 가격을 선호하기도 한다.³⁵⁾

33) 용호성, 『예술경영』, p. 510.

34) 김윤전, “클래식 음악공연 티켓가격의 적정성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11.

35) 용호성, 『예술경영』, p. 518.



<그림 2> 좌석등급 표준제에 따른 좌석배치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출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연구자 재구성.

이처럼 공연기획자는 동일한 음악공연예술상품이라 하더라도 좌석의 위치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 동일한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격 차별화(price discrimination)라고 한다.³⁶⁾ 좌석위치에 따라 가격차별 전략을 도입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관객에게는 비싼 티켓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관객에게는 싼 티켓을 제공하는 것은 공연기획자에게 수입과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통은 공연을 감상하기에 좋은 좌석위치에 따라 R(Royal)석, S(Special)석, A석, B석, C석 등으로 나누어 가격차별을 주는데 비싼 좌석을 구매하는 사람은 비교적 티켓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싼 좌석에 비해 비싼 좌석의 가격을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좌석등급 가격차별을 활용하여 공연예술상품 기획자는 기업의 협찬을 받아 협찬의 대가로 일정금액의 티켓을 비싼 등급의 좌석 수를 늘려 그 총액을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초대가 많은 공연일 경우 초대관객으로 하여금 좋은 좌석을 제공받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티켓의 가격을 높이기도 한다.³⁷⁾ 비슷한 관객 층이나 공연의 목적이 공익적일 경우에는 좌석등급을 적게 나누고 등급 간의 가격차별을 적게 둘 수도 있다. 가격차별이 있는 티켓의 경우 반드시 저렴한 티켓부터 팔리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싼 좌석부터 팔리기도 하고 좌석위치나 공연의 성격에 따라 등급별 판매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가격차별화 전략은 좌석등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관객의 연령층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여 어린이와 학생, 노인들을 위한 할인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시간에 따라 평일 공연을 주말 공연보다 할인하기도 한다. 또한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는 연주자에 따른 가격차별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같은 오케스트라 공연일지라도 유명 아티스트와 협연하는 공연의 티켓 값이 신인 아티스트와 협연할 때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

효과적인 가격차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격차별화 전략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세분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물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가격차별화 전략으로 구입한 할인 티켓을 되팔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객의 분노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혜택을 받지 못한 관객들이 부당한 차별

36)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p. 146.

37) 이의신, 『공연기획,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울: 예술, 2003), p. 132.

이라 느끼지 않는 선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³⁸⁾

C. 음악공연예술시장 변화와 티켓 매니지먼트

음악작품의 경향, 음악회 유형, 공연 프로그램 구성 등 음악공연의 구조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³⁹⁾ 그 중 음악공연예술시장의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음악가나 음악 작품 등의 내적 조건이 아닌 청중의 유형과 취향, 매니지먼트, 후원체계, 티켓 예매 시스템 등과 같은 외적조건, 즉 공연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이었다.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 이라고 자네트 윌프(Janet Wolff)⁴⁰⁾가 말했듯이 음악공연예술시장의 변화 역시 사회적 변화의 생산물인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컴퓨터 문화 등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악공연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선 티켓링크, 인터파크, 옥션티켓 등과 같은 인터넷 예매 사이트나 공연장 사이트 등을 활용하게 되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는 다양한 공연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시 원하는 좌석, 결제방법, 수령방법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망 구축이 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는 오프라인 지정 예매처에서 직접 방문 티켓 판매가 이루어졌고 혹은 전화예약 이후 송금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내에 온라인 티켓 예매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인터넷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던 1997년, 티켓링크가 캐나다의 한 티켓 전산망 업체의 티켓 예매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티켓 예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부터이다. 1998년에는 인터파크(구 티켓파크)가 공연 티켓 예매사업에 진출하였고 뒤이어 인터넷 영화티켓 예매사업을 주로 하던 맥스무비가 맥스티켓이라는 브랜드로 공연티켓 예매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까지 티켓링크, 인터파크, 맥스티켓 순으로 공연 티켓 매출시장을 점유하다가 2007년부터는 인터파크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때 부터 대기업 계열의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신규 매출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공연 티켓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2006년에는 경매 사이트에서 오픈마켓 사업으로 확장한 옥션이 티켓 시

38) Philip Kotler, Joanne Scheff, 용호성 역, 『전석매진』, p. 394.

39) 이규식, 이선형, 『공연예술』 (대전: 학예사, 2007), p. 308.

40) 자네트 윌프(Janet Wolff) - 1972년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런던헌대무용학교를 거쳐 리즈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로 예술사회학 이론을 발표하고 있다.

장에 진출하였고, 2007년에는 온라인 도서 판매 사업자 YES24, 2008년에는 롯데닷컴이 티켓사업에 진출한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연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데에 반해, 현재에는 다양한 공연들이 인터넷 사이트 내 한자리에 모이게 됨에 따라 티켓 예매의 편의성이 증대 되어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고 불특정 다수 관객에게 쉽게 공연을 노출하고 그들의 구매 선택권 안에 쉽게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표 2> 연도별 티켓 예매 시장 변화

연도	티켓 예매 시장 변화
1996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지정 예매처 직접 방문 티켓 판매 • 전화예약 이후 송금확인 등의 절차
2000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켓링크: 인터넷-현장 실시간판매 티켓예매 웹사이트 제작(1997) • 인터파크(구 티켓파크): 공연 티켓 예매사업 진출(1998) • 맥스무비 → 맥스티켓 브랜드로 전환. 공연 티켓 사업 진출
2000년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켓링크 > 인터파크 > 맥스티켓 순으로 티켓 매출시장 점유
2007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파크, 시장점유율 1위 차지 • 대기업 계열 쇼핑몰, 오픈마켓 업체들 공연 티켓 사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션 : 경매사이트 → 오픈마켓 사업 → 티켓 시장 진출(2006) - YES24 : 온라인 도서 판매 사업자 → 티켓 시장 진출(2007) - 롯데닷컴 : 백화점 쇼핑몰 → 티켓 시장 진출(2008)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자체 티켓판매시스템 구축 : 예술의전당 SAC(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예매, 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 고객관리 시스템 활용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예매시스템 도입

또한 공연기획자는 티켓 예매 과정에서의 인력 및 재원의 지출 감소 효과와 티켓 예매 과정에 제한요소가 존재했던 관객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공연 홍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연정보가 한 데 집약됨에 따라 공연작품은 불가피하게 다

른 수많은 공연작품과 티켓 판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예매 사이트 구축으로 공연상품의 판매와 구매, 수요와 공급이 가시화되는 일종의 공연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인 공연예술 시장형성으로 인해 공연기획자는 티켓 등급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홍보 활동, 할인 정책 등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공연정보와 할인 정책들 속에서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하나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 관객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감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말미암아 티켓매니지먼트의 영역 역시 과거의 안정적인 객석 운영을 넘어 마케팅 영역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공연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공연 제작 및 극장 경영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공연시장의 성장에 따라 공연티켓예매 시장의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게 되었다.

<표 3> 공연시장과 공연티켓 예매시장 규모비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연시장	1,720억	2,100억	2,750억	2,950억	3,100억	3,250억
공연티켓예매시장	929억	1,200억	1,700억	1,900억	2,100억	2,300억

(단위 : 원)

현재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의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 외에도 LG아트센터의 공연장 자체 예매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각 공연장에서 자체 티켓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좌석 예매뿐 아니라 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등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이란 관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객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맞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표적으로 예술의전당의 SAC티켓과 LG아트센터의 예매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표 4> 주요 공연장 티켓예매시스템 사용 현황

구분	국·공립 공연장	민간 공연장
자체시스템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고양문화재단, 정동극장, 충무아트홀, 국립국악원, 명동예술극장, 극장 용,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아르코예술극장, 오정아트홀, 포천반월아트홀	LG아트센터, KT&G 상상아트홀, CTS아트홀, 호암아트홀, 학전, 펍키하우스, 두산아트센터, 브로드홀, 건국대 새천년관, 게릴라극장, 금호아트홀, 난타전용극장, 선프라자 아트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질러홀, 이원문화센터
티켓판매대행사 시스템 (티켓예매처)	성남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서울열린극장 창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링크 (시스템 미보유)	오산문화예술회관, 의정부예술의전당	갈갈이홀, 돔아트홀, 동승아트센터, 동양아트홀, 문화일보홀, 백암아트홀, 샤롯데씨어터, 신연아트홀, 신타아컴퍼니, 아롱구지극장, 웅진씽크빅, 유니버설아트센터, 유림아트홀, 창조콘서트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코엑스 아트홀, DS아트홀, KT아트홀, SJ비보이즈

출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연구자 재편집.

이러한 공연장 자체 티켓판매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연장은 관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관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치며, 외부업체를 통한 티켓 예매 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 주로 무료 공연이나 대관 공연을 위주로 하는 공연장은 티켓 판매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대학로 소극장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티켓 예매처를 명시하여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모가 큰 대부분의 민간 공연장은 자체 티켓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공립 공연장에서도 점점 자체 티켓예매시스템을 도입

하여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늘날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등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연예매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다.

오늘날 티켓 매니지먼트는 단순히 관객이 구매한 티켓을 발권하여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티켓 판매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매표소 운영까지 티켓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일을 뜻하게 되었다. 즉 관객에게 티켓을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관객의 티켓 예매상황을 관리하고 티켓을 발권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도 티켓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창조적 관리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티켓 매니지먼트의 세부 업무에는 공연 제작비와 공연장 위치, 타 공연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티켓 가격을 책정하고 티켓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정책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개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연 매출 추이를 분석해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있다. 또한 객석 판매를 조율하고 공연 전체 기간 동안 좌석 판매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후,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매처를 선정하고 공연을 등록하여 일일 판매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티켓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판매 좌석을 홀딩(holding)하거나 오픈(open)하는 시기를 적절히 결정하여 좌석을 운영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권·교부·교환하는 공연 현장 업무를 진행하고 매표소에서 티켓 관련 관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한다. 공연이 모두 끝나면 관련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연을 마무리한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공연 시장의 흐름과 추이(推移)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공연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티켓 관리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에 효과적인 티켓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티켓 매니지먼트는 음악공연예술상품 제작 및 공연 운영 전반에서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중요한 업무이다. 총체적인 심미안을 갖고 공연시장을 꿰뚫어 보며 티켓 전략을 짜는 것이야 말로 티켓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것이다.

Ⅲ. 클래식 음악공연상품의 티켓 인플레이션 현황

A.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현황

지난 2011년 11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있었던 오페라 「나비부인」은 좌석등급이 무려 7등급이나 되었다. “President”의 약자인 P석 340,000원, “Very Very Important People”을 뜻하는 VVIP석 240,000원, “Very Important People”이라는 VIP석 240,000원, 그리고 “Royal”석인 R석은 150,000원, “Special”석인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50,000원으로 등급별로 가격 차이도 심하게 나타났다. P석은 극장 1층 중앙의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양 옆의 153석은 VVIP석, 1층 뒷좌석은 VIP석으로 269석을, 과거 가장 비싼 좌석을 뜻했던 R석은 2층 가장자리와 맨 뒷자리로 아예 밀려나 있었다.⁴¹⁾

<표 5> 오페라 「나비부인」 등급별 티켓 가격과 좌석 수

좌석등급	티켓 가격	좌석 수
P석	340,000원	168석
VVIP석	280,000원	153석
VIP석	240,000원	269석
R석	150,000원	353석
S석	100,000원	376석
A석	80,000원	348석
B석	50,000원	242석
시야장애석, 휠체어석 등		374석

41) 조선닷컴 토론마당, “P석 VVIP석 폐지한다는 예술의전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닷컴, 2012. 5. 16.)

이러한 현상은 이 공연 외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리콜레토」 또한 P석을 포함하여 7개의 좌석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2012년 7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내한 공연을 앞두고 공연 주최측은 P석(400,000원)과 VIP석(330,000원)을 책정했다가, 예술의전당의 요청으로 좌석 등급의 명칭을 각각 VIP석과 R석으로 바꾸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공연계에서 이른바 '옥상옥(屋上屋)'으로 생겨나고 있는 좌석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은 관객들 사이에 문화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옥상옥 등급 문제 외에도 보통 근로자 월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공연 티켓 가격도 큰 이목을 끌었다. 2012년 8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있었던 오페라 「라보엠」은 처음 4회 공연을 기준으로 티켓 가격이 VIP석 570,000원, R석 450,000원, S석 250,000원, A석 150,000원, 블루석 80,000원, 그린석 3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공연일이 가까워지자 티켓 판매부진으로 4차례 공연을 2차례 공연으로 축소 시켰고, 후에는 티켓 가격을 최대 87%까지 낮추어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⁴²⁾ 업체를 통해 판매하게 되었다.

이처럼 티켓 가격과 좌석등급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제작비 상승과 협찬유치 과다경쟁 등의 원인을 내포한다. 그러나 일반 관객의 상식을 벗어나는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책정은 관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연장 질서를 혼란케 하며 음악공연예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오페라 · 발레 공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과 발레 공연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4개의 공연을 제외하고 좌석등급이 R석에서 시작하여 적게는 4등급에서 많게는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최고 좌석등급인 VIP석이 포함된 공연이 11개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좌석등급은 점점 더 세분화 되어 2009년에는 총 8개로 나누어졌다.

42)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업체로는 그루폰, 티켓 몬스터, 쿠팡, 위폰 등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표 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의 연도별 좌석등급 변화

연도	좌석등급								
	P	VVIP	VIP	R	S	A	B	C	D
2002			○	○	○	○	○	○	○
2003			○	○	○	○	○	○	
2004		○	○	○	○	○	○	○	○
2005			○	○	○	○	○	○	
2006			○	○	○	○	○	○	
2007		○	○	○	○	○	○	○	○
2008			○	○	○	○	○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	○	○	○	○
2012	○	○	○	○	○	○	○	○	○

2004년 5월, 한국오페라단이 주최한 오페라 「루치아」에서 처음 최고 좌석등급으로 VIP석 상위에 RV(royal very important people)석이 등장하였고 이 공연은 좌석등급이 총 8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 오페라·발레 공연에서의 VIP석은 R석보다 좋은 상위의 최고 좌석등급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의 모든 공연은 VIP석을 포함하여 5-6등급으로 좌석이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5월에는 한국오페라단이 주최한 오페라 「리날도」의 VIP석 티켓 가격이 330,000원으로 책정되며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오페라 「리날도」는 이탈리아 오페라 연출계의 거장인 피에르 루이지 피치(Pier Luigi Pizzi)와 라 스칼라(La Scala)극장이 내한하여 만들어진 공연으로 제작비용이 다른 공연보다 컸기 때문에 티켓 가격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 한국오페라단은 이탈리아 로마극장을 초청하여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였는데 이 공연에서 처음으로 VIP석 상위에 최고 좌석등급으로 VVIP석이 등장하였고 티켓 가격이 32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VVIP석을 일반 관객에게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초대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구매가 가능한 좌석은 VIP석으로 250,000원이었다.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은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무대 위에 화재가 발생하며 이후의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고, 오페라극장은 그 후 약 1년간 공연장 수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2008년은 12월에 발레 「호두까기 인형」만이 공연되었다.

2009년에는 VVIP석을 포함하고 있는 공연이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를 포함하여 총 5공연이었으며 솔오페라단이 주최한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VVIP석 상위에 최고 좌석등급으로 P석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2009년 10월에 공연된 오페라 「투란도트」는 나폴리 산 카를로(San Carlo) 국립극장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공연으로 P석의 티켓 가격은 34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공연의 좌석등급은 P석을 포함하여 C석까지 총 8등급으로 나누어졌다. 2010년에는 총 10공연에서 VVIP석을 찾아볼 수 있었고 2010년 VVIP석의 평균 티켓 가격은 175,000원이었다.

2011년에는 VVIP석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오페라 페스티벌은 국내 민간오페라단이 참여했던 페스티벌로 250,000원에 상당하는 VVIP석을 비롯하여 총 6개의 등급으로 좌석등급이 나누어졌다. 2011년 하반기에는 민간 오페라단인 솔오페라단과 수지오페라단이 VVIP석 상위 등급인 최고등급 P석을 각 340,000원과 350,000원으로 책정하며 국내 오페라 공연산업계에 P석 등장의 문제점을 가시화(可視化)시켰다.

<표 7> 2011-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연도	오페라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P	VVIP	VIP	R	S	A	B	C
2011	「청교도」		25	15	10	7	5	2	
	「토스카」		25	15	10	7	5	2	
	「논개」		20	15	10	7	5	2	
	「메밀꽃 필 무렵」		25	15	10	7	5	2	
2012	「피가로의 결혼」		25	15	12	8	5	3	1
	「호프만의 이야기」		20	15	12	8	5	3	1
	「토스카」	25	20	15	12	8	5	3	1
	「라 트라비아타」		20	15	12	8	5	3	1

(단위: 10,000원)

2012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2011년에 이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렸고 민간 오페라단이 대거 참여한 이 페스티벌에서 다시 한 번 250,000원 상당의 P석이 등장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선 총 4개의 오페라가 공연 되었는데 최고가는 200,000~250,000원을 기록했고 좌석등급은 총 7-8등급으로 분류되었다.

2012년 8월 이후 예술의전당의 좌석등급 표준제가 시행됨에 따라 VVIP석과 P석을 넘나들던 좌석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지만 민간오페라단이 주최하는 오페라의 R석 티켓 가격은 2011년 VVIP석의 티켓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250,000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위의 좌석 등급이 R석으로 제한됨에 따라 C석 아래의 하위 D석이 생겨난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국립발레단은 2011년 10월에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좌석등급을 VIP석을 포함하여 C석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누었었는데 2012년 12월에 예정된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는 VIP석을 제외하고 R석에서 시작하여 D석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다.

2002년과 2012년의 최고 등급 좌석의 평균가격을 비교해 보면 2002년의 최고 등급 좌석은 VIP석으로 평균가격이 113,000원이었고 2012년의 최고 등급 좌석은 P석으로 평균가격이 250,000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티켓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해외 아티스트 공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의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오페라·발레 공연보다 좌석등급 세분화 현상이 적은 편이고 아티스트 지명도에 따라 티켓 가격책정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처음으로 국내에 내한하여 공연했던 이 무지치(I Musici) 실내악단은 1999년부터 1~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내한하여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무지치 실내악단의 1999년 첫 내한공연 티켓 가격은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B석 30,000원, C석 20,000원이었는데 반해 이번 2012년에 6월에 있었던 이 무지치 공연의 티켓 가격은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으로 10여년 사이 C석은 3배로 VIP석은 2배가 넘게 상승하였다.

<표 8> 이 무지치 실내악단 내한 공연의 연도별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변화

연도	VIP	R	S	A	B	C
1999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2002		80,000	60,000	50,000	30,000	20,000
2004	100,000	90,000	70,000	60,000	40,000	20,000
2006	110,000	90,000	70,000			
2008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1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11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12	140,000	120,000	10,000	80,000	60,000	

(단위: 원)

그러나 이 무지치 실내악단처럼 자주 국내에 내한하는 해외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의 티켓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물가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어떤 지명도 높은 연주자가 내한하여 공연하는지에 따라 티켓 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먼저 2002년의 해외 아티스트 공연 중 최고가를 기록한 공연은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Roberto Alagna)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Angela Gheorghiu)의 공연이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당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부부성악가로서 2002년 6월, 처음으로 함께 내한 공연을 하게 되어 국내 언론에 많은 이슈를 몰고 왔었다. 이 공연의 최고 좌석등급은 R석 이었고 티켓 가격은 300,000원이었다.

또한 2006년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콜로라투라 메조 소프라노인 체칠리아 바르톨리(Cecilia Bartoli)의 내한 공연의 티켓이 330,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는데 이 공연은 한국 출신의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유명 성악가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함께 공연하는 것으로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지명도 높은 유명 음악가의 내한 공연 외에 해마다 최고가를 기록했던 공연을 살펴보면 유명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해외 아티스트 내한공연 중 가장 고가의 티켓 가격을 기록했던 공연은 2007년 9월에 있었던 빈 슈타츠오페(Wien Staatsoper)의 첫 내한공연과 2005년, 2008년, 2011년에 공연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 Philharmonic Orchestra)의 내한공연이었다. 두 공연의 최고가는 모두 450,000원을 기록하였다.

<표 9>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 중 최고가 공연

연도	공연명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VVIP	VIP	R	S	A	B	C
2005	베를린 필하모닉 초청 공연			45	35	25	15	9
2007	빈 슈타츠 오페 첫 내한공연	45	35	25	15	8		
2008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		45	37	26	16	7	
2011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	45	40	32	21	11	5	

(단위: 10,000원)

기본적으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의 티켓 가격은 일반 유명음악가의 내한공연보다 고가로 책정된다. 기본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유럽의 오케스트라가 내한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항공료와 체재비, 악기 관리비, 로열티 등이 기본 제작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3. 국내 아티스트 공연

국내 아티스트 음악공연상품에는 첫째로 아티스트 개인이 연주하는 독주회, 독창회, 둘째로 아티스트들이 단체로 모여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실내악 공연, 셋째로 신년음악회, 청소년 음악회 등의 국내 기획사나 기업에서 기획하여 만드는 공연이 있다.

먼저 아티스트 개인이 공연하는 음악회 티켓 가격을 살펴보면 주로 리사이틀 홀이나 소공연장 규모의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만큼 좌석 등급이 없고 전석이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균일하다. 이 가격은 10년 전의 가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격으로 2002년에도 아티스트 개인 공연은 전석 10,000원 정도로 균일했다.

그러나 같은 국내 아티스트라도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국내에서 지명도가 높은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은 티켓 가격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소프라노 조수미, 소프라노 신영옥의 공연을 비롯하여 첼리스트 장한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공연은 최고 좌석등급 평균 티켓 가격이 150,000원으로 일반 국내 아티스트의 공연보다 약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티스트들이 단체로 모여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실내악 공연의 티켓 가격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02년 정기연주회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은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학생석 5,000원이었고 2012년 정기연주회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은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C석 10,000원이다. 10년 전과 지금의 물가상승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KBS 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과 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연단체의 티켓 가격과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같은 민간 공연단체의 티켓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2년 1월의 공연된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의 티켓 가격은 VIP석 150,000원, R석 120,000원, S석 8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이었고 같은 해 2월에 공연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는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B석 10,000원으로 티켓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공연기획사가 기획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신년음악회, 혹은 기업 후원자와 함께 기획한 가을밤 콘서트 등의 공연 등은 아티스트와 공연 특색에 따라 티켓 가격이 일반 다른 공연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연은 티켓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기업 후원자에게 초대권으로 배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연으로 티켓 가격이 공연의 질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공연보다 높은 티켓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B.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원인

앞서 언급한 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 중 국내 아티스트 공연보다 오페라, 발레 공연이나 국외 아티스트 초청공연에서 좌석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공연의 제작비에 있다. 오페라나 발레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자, 연출자를 비롯한 공연 실연자와 스태프 100여 명 등의 인건비가 들어가며, 국외 아티스트 초청 공연 경우에는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이동 경비 등 국내 체재비가 공연제작비에 포함된다.

아래에 제시된 <표 10>은 2007년 9월 19일, 20일에 있었던 빈 슈타츠 오페라 내한공연의 공연 제작비 내역이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에 따르면 빈 슈타츠 오페라 내한공연 2회 제작비는 총 11억 원이었다. 항공료가 포함된 출연료 540,000유로(한화 약 683,000,000원)에 외국 공연단체에 부과되는 22%의 원천소득세, 10%의 부가세를 공연기획사가 대리 납부하게 되면 출연료만 총 9억 원이 된다. 여기에 11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4일간 호텔 숙박비와 이동경비는 약 80,000,000원이 소요되고 공연장 대관료 및 홍보비와 진행비를 합하면 총 11억 원이 되는 것이다.⁴³⁾

<표 10> 2007 빈 슈타츠 오페라 내한공연 공연 제작비 내역

공연료 내역	제작 비용
2회 공연 출연료	683,000,000원
원천소득세 · 부가세	217,000,000원
호텔 숙박비 · 이동 경비	80,000,000원
공연장 대관료	30,000,000원
홍보비 · 진행비	80,000,000원
계	1,090,000,000원

출처: 전지현(2007), 연구자 재편집.

43) 전지현 기자, 노현기자 “공연티켓, 과시용 수요로 비싼 표가 먼저 동나,” (매일경제, 2007. 7. 20.)

그러나 공연기획사는 공연의 제작비를 티켓 값으로 모두 충당하지는 않는다. 기획사가 제작비를 공연수익으로만 충당하려면 티켓 값이 매우 비싸지는데, 비싼 티켓 값을 내고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국내 클래식 음악 애호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 공연을 유치한 공연 기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The H Entertainment)사는 최고 400,000원으로 책정한 고액의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에 대해 "전체 티켓 70% 이상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⁴⁴⁾

이처럼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공연기획사는 적정의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는 음악공연예술계의 현실에도 비슷한 음악공연예술상품이 계속 기획되고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협찬 및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유명 공연단체에 타이틀 스폰서를 하면서 홍보 효과를 얻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비용을 지불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명품 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세금을 집행한다. 그래서 티켓 가격은 기업·정부 지원금과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다.⁴⁵⁾ 2008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주최한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 초청공연 최고가는 200,000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이었다. 당시는 공연장이 주최한 행사이기에 일주일 기간의 대관료(50,000,000원)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수익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공연일지라도 2012년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공연은 민간 기획사의 주최로 적합한 기업 협찬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그 여파가 400,000원짜리 티켓으로 이어진 것이다.

1. 기업후원과 초대권 관행

기업의 협찬이나 후원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공연기획자가 국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공연이나 오페라 공연 좌석등급이나 티켓 가격 결정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공연계의 실정이다.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나 재단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과는 그 기본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⁴⁶⁾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므로 공연 협찬이나 후원을 할 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거래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기업은 좋은

44) 전지현 기자, "'지젤 공연' 뉴욕 16만원 vs 서울 40만원 왜?," (매일경제, 2012. 6. 1.)

45) Ibid.

46) 용호성, 『예술경영』 (경기: 김영사, 2011), p. 289.

공연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공연의 성과로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기업 지원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이다. 기업은 공연을 통해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기업제품 구매 기대 고객과 공연관객이 일치하는 경우 기업은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공연에 지원하게 되는데 공연 홍보물이나 공연장 입구에 기업 상표 노출을 통하여 해당 기업과 제품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기대한다.

둘째는, 고객이나 직원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이다. 기업은 공연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공연기획자로부터 지원금의 50% 정도를 티켓으로 받아가 자사 고객이나 직원 혹은 지역주민에게 선물한다. 즉 음악공연예술상품을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고객에게 공연 티켓을 제공하기도 하며, 혹은 자사 직원의 복지 증진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기획사들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협찬금을 받아 내고자 일부러 티켓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격 거품을 만들어 내었다. 공연기획자들은 기업 고객에게 VIP석보다 더 특별한 자리에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상류층의 욕구를 반영시켜 좌석등급에 인플레이를 가하여 옥상옥 등급으로 올리게 되었고, ‘비싸야 명품’이라는 인식을 공연계에도 퍼뜨리게 되었다. 최근 들어 VIP석보다 더 비싼 VVIP석과 P석이 등장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기업 고객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 후원과는 다른 기업의 단체구매도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비싼 티켓을 단체 구매하면서 높은 할인율을 요구해 티켓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다. 기업이 음악공연예술상품을 대량 구매 할 때에 보통 티켓 가격의 20 ~ 30% 할인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 기획사는 처음부터 티켓 가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늘리려 하게 된다. 협찬금과 티켓을 등가(等價)의 교환물로 주고받는 기업 지원의 관행은 결국 장기적인 관객개발을 저해하며 법인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 음악공연상품의 재정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단체 구매한 티켓이 초대권으로 기업 VIP고객이나 거대처 사람들에게 전달될 경우, 초대권을 받고도 오지 않는 관객들이 생길 수 있어 공연 당일 좋은 좌석에 공석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공연을 하는 연주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공연 자체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2. 베블런 효과의 영향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란 사회학자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이 자신의 저서 『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에서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는 상류층의 두드러진 과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행해진다."는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지적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⁴⁷⁾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행태를 말한다. 소비는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소비자는 상품 그 자체만을 소비하지는 않으며 물리적인 상품 그 이상의 심리적 의미를 내포한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 속엔 계급과 취향의 위계가 있으며 소비한다는 것은 그것들 모두를 하나의 '기호'로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블런은 이런 소비행태에 대해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소비를 일삼는다" 라고 꼬집었다. 입장료가 비싼 공연이 상류층 문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그러한 공연을 관람하는 행위가 일종의 명품 소비로 인정되는 바람에 '티켓은 비싸야 더 잘 팔린다.' 라는 기현상이 생긴 것이다.⁴⁸⁾ 이러한 소비의 효용은 단순히 음악공연예술상품 관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음악공연예술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신의 부(富)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소비는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하위 소비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위 소비개념이다. 이것은 개인적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소비문화이자 가치 중심적인 개별적 소비 취향으로 체험 그 자체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음악공연예술계에서 특히 해외 유명아티스트 초청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곧 최고의 예술적 명품 브랜드가 되고 관객들은 고가의 입장료를 기꺼이 지불하여 좌석 등급제에 의한 적극적인 자발적 가격차별 정책에 기여한다.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의 적극적인 가격차별정책에 의한 고액의 입장료는 그 공연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베블런 효과의 영향으로 관객들은 훌륭한 음악공연예술상품 중 최상의 좌석을

47) 박정미, "클래식음악공연의 브랜드가치에 따른 베블런효과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p. 13.

48) 김승미, 『만원사레 예술경영학』 (서울: 늘봄, 2008), p. 170.

구매하고 싶어하고 사회 정체성적 예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게 되었다. 일종의 ‘구별짓기(distinction)’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현상은 관객의 예술적 소비가 지속적인 학습과 습관에 의한 것으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사회 관습체계, 이성으로 환원 불가능한 감정 같은 요인들이 포괄되어야 한다. 일반 상품 구매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부분만으로는 쉽게 건너뛸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적 측면의 상류층과 하류층 생활양식의 뚜렷한 차별화를 가져오는 것이다.⁴⁹⁾

관객들이 음악공연예술상품을 구매할 때 VIP석이나 R석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화폐지불능력이 있고 없음의 차이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싼 가격의 VIP석이 먼저 매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P석의 등장 같은 옥상옥 등급을 부추기게 되었다. 반대로 R석이 기존의 좋은 좌석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관객들은 옥상옥 등급의 향연 속에서 공연장 내의 자신의 위치에 실망하게 되어 공연장 내에서 심리적인 불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공연기획자가 베블런 효과를 참조하여 티켓 가격을 책정한다면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총 제작비는 얼마이며, 티켓을 몇 장 이상 팔아야만 공연 제작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의 수학적 계산은 의미가 없어진다. 다만 사람들이 이 공연에 얼마까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좌석등급 구분에 따른 상류층 관객의 만족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3. 앵커링 효과와 조정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네먼(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가 처음 고안한 개념으로 일명 정박효과, 닻 내림 효과라 불리는 행동경제학 용어이다. 이것은 처음 언급된 조건에 얽매어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효과를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최초 습득한 정보에 몰입하여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를 부분적으로만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하게 되는 행동 특성을 말한다.⁵⁰⁾ 일종의 경험 의존적 오류(Heuristic-Bias)로, 보

49) 박정미, “클래식음악공연의 브랜드가치에 따른 베블런효과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p. 18.

50) IGM 세계경영연구원, 『세상 모든 CEO가 묻고 싶은 질문들』 (경기: 위즈덤하우스, 2012), p. 347.

통은 경제적 관념이나 주식투자에서 다뤄지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앵커링 효과는 음악공연예술상품 티켓 가격책정에도 작용한다. 앵커링이란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심리적 작동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티켓 가격책정에는 생산자 비용, 소비자가 생각하는 공연상품의 가치, 경쟁 제품 가격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다.⁵¹⁾ 이론적으로 공연상품의 재정 적자를 모면하려면 티켓 수입이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공연상품 재원조성에는 단순히 티켓 수입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재단, 기업이나 개인 등의 지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티켓 가격책정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경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공연을 관람하기 전에는 그 공연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공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는 관객들은 공연 상표(Brand) 의존도가 높다. 클래식 음악의 경험재와 신용재적인 특성으로 흔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 관객들은 신문과 방송에 많이 보도되는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을 선택한다. 이런 관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 티켓 가격책정에 앵커링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다. 관객들은 특정 좌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공연의 질을 비싼 티켓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2011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내 내한공연 티켓의 최고가는 450,000원이었다. 처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이미 국내 클래식 음악 열성 팬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일반 관객에게는 그저 외국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한 보도들을 했고, 450,000원이라는 티켓 가격을 이슈화시켰다. 450,000원이라는 티켓 가격은 하루 저녁 공연을 즐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지만, 관객들은 “지불한 만큼 얻을 것이다.”라고 믿었고 그들이 느낀 공연의 가치는 티켓 가격에 비례하게 되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 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의해 운영되는 원형극장에서는 여름 콘서트 티켓 중 일부를 1달러에 팔고 그 수익금은 공공서비스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1달러짜리 좌석은 무대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음악을 듣는 데는 앞쪽 자리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석양과 도시 경관을 볼 수 있

51)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p. 145.

다는 점에서 1달러 좌석이 더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티켓 가격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서 100달러짜리 좌석은 가득 채워진 반면, 1달러짜리 좌석은 텅텅 비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1달러 좌석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관객이 그 자리가 1달러라서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단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더 나은 기회를 외면하였다.⁵²⁾ 이처럼 현 국내 음악공연시장의 좌석 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을 앵커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터무니없이 비싼 티켓 가격과 P석, VVIP석의 옥상옥 좌석 등급은 알려지지 않은 공연의 품질에 대해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리라 추측하게 해주는 심리적 지표가 되어준다.

티켓 가격에 적용된 앵커링 효과의 조정현상은 할인 정책에서 나타난다. 2012년 8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라보엠」은 VIP석 가격으로 570,000원이 책정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유명 성악가가 여주인공을 맡아 내한하고, 정명훈 지휘의 서울시향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맡아 국내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공연이 될 것이라는 많은 언론의 보도에 일반 관객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반 관객이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비싼 티켓 가격 때문에 티켓 예매율은 형편없었고 급기야 공연 기획자는 티켓의 가격을 87%로 낮추어 판매했다. 그 후 티켓은 빠른 속도로 팔리게 되었다. 이처럼 할인을 염두에 두고 공연 티켓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하는 현상을 앵커링 효과 조정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연 기획자들은 기업으로 부터 더 많은 후원을 받고, 그에 따른 단체 할인 티켓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시장 가격보다 티켓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C.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 문제점

최근 몇 년간 예술에 대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원금의 대가로 높은 가격이나 높은 좌석 등급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관행이 많은 부분 왜곡되었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협찬금에 상당하는 티켓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입도선매(立稻先賣)식 티켓 마케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⁵³⁾

52) William Poundstone, *Priceless : The myth of fair value*, 최정규, 하승아 역, 『가격은 없다』 (경기: 동녘사이언스, 2011), p. 27.

53) 용호성, 『예술경영』, p. 304.

이러한 관행은 결국 옥상옥 등급의 폐해를 만들어내며, 티켓 가격에 지나친 거품이 생기게 한다. 또한 베블런 효과 등을 사용한 티켓 가격책정은 상대적인 문화향수 소외층을 양산하게 되고 장기적인 관객 개발을 저해하며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앵커링 조정 효과를 염두에 두고 티켓의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한 다음 할인티켓을 남발하는 것 또한 음악공연예술계 티켓 가격에 대한 관객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할인 티켓이나 초대권이 없는 관객들이 공연장에 자발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좌석 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을 바로잡고 음악공연예술계의 바람직한 예매 문화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본 후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옥상옥 등급의 등장

1990년대 후반까지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이었던 로열(Royal)석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18세기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당대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앉았던 좌석을 뜻하며 생겨난 개념이다. 국내에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이 유럽 등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좌석등급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가장 좋은 좌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 음악공연예술계에는 가장 좋은 좌석등급인 R석을 비롯하여 S석, A석, B석, C석으로 5개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5개 등급은 주로 오페라나 발레 공연,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서 볼 수 있는 좌석등급이었고 R석은 공연장 내 가장 비싼 티켓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오페라단이나 발레단은 하나의 성공적인 공연을 제작하기 위하여 정부나 기업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오페라나 발레 공연은 화려한 무대 셋팅과, 많은 출연자 및 스태프, 큰 공연장 등 기본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는 공공 예술단체가 아니라면 민간공연단체들은 대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해 공연을 올리게 된다. 기업 후원사들은 특정 오페라단이나 발레단 등의 민간공연단체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사의 고객들을 초청할 용도인 공연티켓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 후원사들은 자사의 중요한 고객들을 다른 공연들과 차별화된 최고의 좌석으로 초대한다는 느낌을 주고자 원하였고, 공연기획자는 급기야 5개 등급 상

위에 VIP석과 VVIP석, P석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상위 좌석등급 위에 더 높은 새로운 좌석등급이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높은 좌석등급 상위로 더 높은 좌석등급이 생기는 현상을 일컬어 ‘옥상옥(屋上屋) 등급’ 현상 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위로 거듭 생겨난 좌석등급은 R석을 구매한 관객들이 1층 구석으로 밀려나도록 만들었고, 공연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R석이 좋은 좌석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1층 구석에 앉게 되는 관객은 자신이 구매한 티켓 가치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기업 후원사들이 가져가는 좋은 좌석의 표가 판매하는 좋은 좌석의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업 후원사들은 공연 기획자에게 후원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장 높은 좌석등급의 표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연 기획자 측에서는 어차피 초대권은 팔지 못하는 표이니 티켓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여 기업에 제공하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초대권의 액면가는 계속 상승하고, 좌석등급도 ‘옥상옥’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가장 최고등급의 좌석으로 등극한 P석은 기업 후원사가 모두 가져가므로 일반 관객들이 예매처에서 구입할 수 없는 좌석이 되었고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처럼 기업 후원사에게 비싼 초대권으로 전달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고 등급 P석은 이 외에도 음악공연예술계에 많은 악영향을 주었다. P석의 티켓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다른 등급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따라 오르게 된 것이다. 공연 등급의 옥상옥 현상이 티켓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었다. 게다가 기업 후원사에 가는 초대권이 많아질수록 일반 관객들은 공연장 내 좌석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었고, 좋은 좌석의 초대권을 받고도 공연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중간 객석 몇 줄이 통째로 비게 된 채,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다.⁵⁴⁾

공연에 따라 기업 후원사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생겨난 옥상옥 등급 현상이 국내 음악공연예술계에 정착하게 된다면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며,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공연단체의 옥상옥 등급 양산 현상은 민간 공연단체에 대한 잘못된 기업 후원문화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문제임이

54) 김수현 기자, “SBS 취재파일 :공연 좌석등급 거품- P석을 아십니까?,” (SBS뉴스, 2012. 1. 3.)

틀림없다.

2.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향유 문제

문화향수권(文化享受權)이란 말 그대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로 취임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단어는 문화의 중심, 그리고 문화지원의 중심이었던 창작자, 즉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문화의 주권을 이동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 지칭하는 저소득층이란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소득분위 하위 4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지칭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⁵⁵⁾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9%로 147만 명 정도였으며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약 3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⁵⁶⁾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없어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부 격차가 나듯이 문화·예술 향수의 빈부 격차는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장벽이 되며, 그 중 경험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 그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⁵⁷⁾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연간 클래식 음악공연 관람 횟수가 나타나 있다. 그 중 <표 11>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가정의 99%는 클래식 음악공연장에 한 번도 발걸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소득에 따라 공연장에 발걸음 하는 횟수도 비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클래식 음악공연을 감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5) 김화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방안 연구 : 문화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4.

56)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2), p. 13.

57) 이아람찬, “영국의 파격적인 관객개발 정책,”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8), p. 2.

<표 11>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클래식 음악공연 연간 관람률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경험없음	99%	98.1%	95.6%	95.1%	92%
1회	0.6%	1.2%	2.7%	3.6%	4.8%
2회	0.4%	0.3%	0.7%	0.8%	1.8%
3회	0%	0.3%	0.3%	0.1%	0.7%
4회 이상	0%	0.1%	0.8%	0.4%	0.7%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연구자 재편집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수록 더 큰 가치를 자아낸다. 또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공지원금을 만들어 공연예술상품을 지원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은 다양한 공연예술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의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은 저소득층 국민의 공연관람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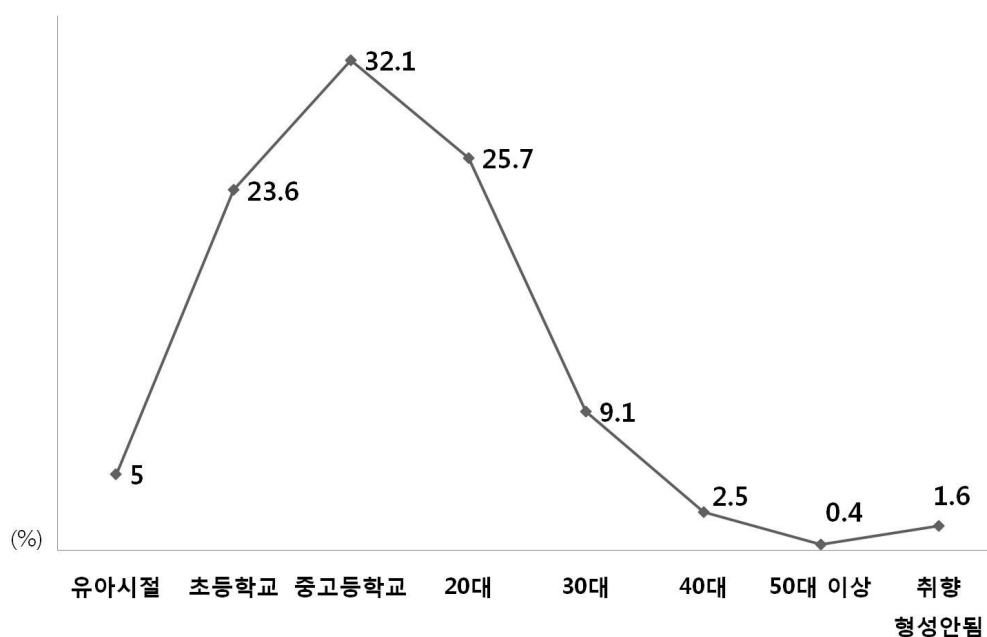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개인의 소산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의해 창출된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문화향수권 확대는 한 시대의 문화수준을 만드는 토양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문화적 삶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를 누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 또한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공연의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은 저소득층의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장의 문턱을 높이고 음악공연에 대한 문화향수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장기적 관점의 잠재관객 개발 문제

음악공연예술상품은 경험재로서 접해보지 않고는 좋아할 수 없는 관객의 선호 취향에 강하게 영향받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으로 관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객들이 지속해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난 2010년 발표된 「2010 클래식음악·발레 관람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클래식 음악공연에 대하여 관객의 취향이 형성된 시기는 '중·고등학교' 때가 32.1%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초등학교 시절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⁵⁸⁾



<그림 3> 클래식 음악공연 관객 취향 형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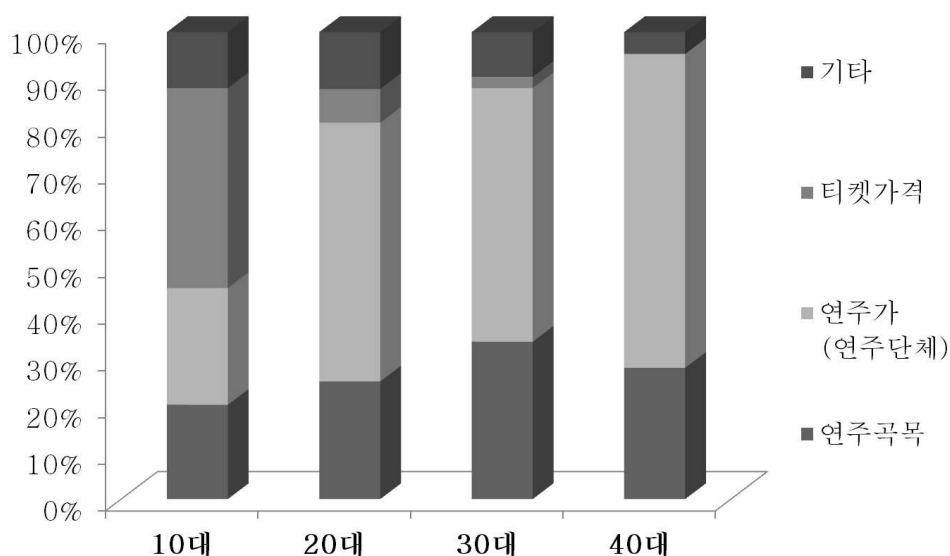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2010), 연구자 재편집.

이와 같은 조사는 클래식 음악공연의 잠재관객은 청소년기 취향 형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5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클래식음악·발레 관람객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p. 75.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에서 관객이 예술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관객의 '기호'이다. '기호'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축적되는데 기호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예술 향유에 따른 학습이다. 음악공연예술상품을 자주 접함으로써 관련된 기호 혹은 취향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예술 체험은 평생에 걸쳐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관객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⁵⁹⁾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공연 기획자들은 클래식 음악공演的 잠재관객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들이 보다 더욱 쉽게 공연장에 올 수 있도록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은 공연의 티켓 가격이 비싸다면 공연장에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⁶⁰⁾ 이러한 결과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잠재관객은 공연 선택에서 티켓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4> 연령별 클래식 음악회 선택기준

출처: 전남희(2008), 연구자 재편집.

59) 김민주 외 공저, 『컬덕 시대의 문화마케팅』 (서울: 미래의 창, 2005), p. 264.

60) 김윤전, “클래식 음악공연 티켓가격의 적정성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34.

위에 제시된 <그림 4>는 연령별 클래식 음악회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⁶¹⁾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0대의 응답이다. 10대는 음악회를 선택할 때 ‘입장권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은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을 접하고 싶어도 입장권 가격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공연장으로의 발길이 더뎠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고객은 청소년층인 10대이다. 그들에게 클래식 음악공연에 대한 기호를 확립하고 취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공연에 대한 접촉기회를 확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음악공연예술상품의 합리적인 좌석등급과 적절한 티켓 가격 책정이 필요할 것이다.

61) 전남희, “클래식 대중화 방안과 환경분석 연구 : 공연문화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33.

IV. 개선방안

A. 좌석등급 표준제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계에서 나타나는 좌석등급의 인플레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장 내 좌석등급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예술의전당에서는 공연계의 고가 티켓 가격 책정 유도를 막는 방안으로 ‘좌석등급 표준제’를 실시하였다.⁶²⁾ 제한 없이 계속 상위로 생겨나는 옥상옥 등급 좌석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 대표 공연장 격인 예술의전당이 직접 나선 것이다.

<표 12> 예술의전당 콘서트를 표준 좌석등급 및 좌석별 배정 가능 좌석 수

분류구분	R석	S석	A석	B석	C석	총 좌석수
2개등급 적용시		1,820	703			2,523
3개등급 적용시	866	954	703			2,523
4개등급 적용시	866	780	543	334		2,523
5개등급 적용시	866	630	324	369	334	2,523

출처: 예술의전당(2012).

좌석등급 표준제란 좌석 등급을 R석, S석, A석, B석, C석인 5등급으로만 제한하고 R석을 전체좌석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며 시각, 청각적으로 좋은 좌석의 등급 배치 기준을 제시하여 좌석 등급 책정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술의전당은 좌석등급 표준제를 통하여 최고등급을 R석으로 통일하여 R석 위에 VIP석이나 VVIP석, P석 등의 옥상옥 등급이 생겨날 수 없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좌석등급을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2개의 좌석등급에서 최대 5개로 나누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좌석등급별 최고배정 가능 좌석 수를 제시하여

62) 조이영 기자, “모철민 예술의전당 신임사장 “P석, VVIP석… 변칙적 좌석 없앤다”, (동아일보, 2012. 5. 16).

R석의 확장 현상을 막았다.

<표 12>에 제시된 것같이 예술의전당은 좌석등급이 2개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 음악당 콘서트홀의 R석 좌석 수를 866석으로 고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전까지 좌석등급 책정과 좌석배치에 공연기획사의 자율성이 주어졌었던 점에 비추면 좌석등급 표준제는 공연장이 국내 공연계에 제시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은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성을 가진 복합문화기관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좌석 등급지정 합리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예술의전당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대관 공연에도 적용되었고, 2012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직 모든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장이 이와 같은 좌석등급 표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공연장인 예술의전당이 적극 나서면서 좌석등급 표준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좌석등급 표준제도는 무분별한 상위 좌석등급 남발로 겪는 관객들의 혼선과 공연장 내 위화감 조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석등급이 제한됨에 따라 공연기획자들은 공연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티켓 가격을 전면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공연 티켓을 자사의 고객들에게 초대권으로 선물하려는 기업 후원자들은 표준으로 제시한 좌석 명칭에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⁶³⁾

B. 기업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 정착

좌석등급 표준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좌석 등급만을 제한할 뿐, 민간 기획사와 단체가 주도하는 공연의 티켓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개입할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좌석등급 표준제에 의하여 전체 등급의 티켓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⁶⁴⁾ 기획사나 공연단체가 티켓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일 큰 과제는 기업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기업의 후원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후원의 반대급부로 티켓을 받는 형태의 지원방식을 지양

63) 전지현 기자, “예술의전당, VVIP석 없애고 R석 늘렸더니,” (매일경제, 2012. 10. 21).

64) 김성현 기자, “예술의전당, VIP석 없애… ‘옥상옥 티켓’ 사라질까?,” (조선일보, 2012. 5. 16).

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본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반대급부만을 바라며 예술을 후원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문화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연계나 문화계는 급격한 상업주의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며 티켓의 가격 산정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예술과 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 장기적인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공연예술상품 후원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잘못된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공연 후원 기업에 공연 후원의 대가로 다량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공연계의 악습으로 지적된다.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예술창작과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순수하게 공연에 후원하고 후원의 대가로 공연기획사로 부터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할인 티켓을 바라지 않는다. 만약 표가 필요하면 별도로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후원사에게 초대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⁶⁵⁾ 외국 기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지를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공연이나 문화계에 후원한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도 후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꾸어 국내 예술 발전과 다양한 사회계층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지지해주는 입장에서 기업이 예술에 투자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후원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 장려를 위한 기구로 국내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메세나협회가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과 예술단체가 만나 경제와 문화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⁶⁶⁾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 기부금제도 등을 활용하여 문화 기부 형식의 지원을 장려하고, 기업과 예술단체가 더욱 지속적인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도록 매칭해주며 장기적인 문화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한국 메세나 협의회는 메세나 법⁶⁷⁾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메세나 법에 대

65) 김수현 기자, “공연 좌석등급 거품- P석을 아십니까?,” (SBS, 2012. 1. 3).

66) 한국메세나협회 소개, 2012년 11월 20일 검색, http://www.mecenat.or.kr/mecenat/about_mecenat.jsp

하여 문화를 제외한 다른 분야와의 세제 혜택 형평성 문제와 세수감소로 말미암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어 시행 가능성이 미비하게 되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2003년에 기업의 예술지원비에 대한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도입하여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2003.8.1)'을 통해 강력한 메세나 장려정책을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예술 지원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 3.4억 유로였던 기부금이 2008년에는 10억 유로로 증가하고, 20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18%인 6,000개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는 효과를 올렸다.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기업의 이러한 기부는 단순히 일시적인 후원과 그에 따른 일시적인 반대급부를 바라는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오늘날은 문화 강국이 세계 강국이 되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21세기 문화경쟁력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떤 다른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음악공연예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민간 후원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메세나 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것은 문화예술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음악공연예술상품에 대해 단순한 후원 및 협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와의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협찬계의 관행을 탈피하여 바람직한 후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C. 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티켓 판매 확대

경험재적인 특성이 있는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어렸을 때의 음악회 참석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공연장을 찾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어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잠재관객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주어

67) 메세나 법의 내용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문화·예술 비영리 법안에 대한 등록세(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야 한다.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공연을 가까이하고 음악공연예술상품을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티켓 가격의 인플레이 현상을 축소하고 청소년을 위한 티켓 할인 판매를 확대하여 티켓 가격이 부담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공공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연장의 양질 공연들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도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클래식 음악공연의 티켓 가격은 큰 부담이 되므로 그들을 위한 현실적인 티켓 할인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은 2008년 10월,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충과 공연예술 활력 창출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장애인 및 경제적 약자인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지속적인 잠재관객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관객 개발, 수도권 중심의 관객 군을 폭넓은 지역별 관객 군으로 확장하겠다고 한 것이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했고, 청소년에게 공연 접촉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를 도입시켰다.⁶⁸⁾

이와 같은 정책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국내 공연계의 중장기적 관객개발과 지속적인 잠재관객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내 공연장이 더욱 노력한다면 현재 공연계에 팽배해 있는 문화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한 공연계 침체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바우처사업 및 나눔티켓 확대

문화바우처사업이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말한다.⁶⁹⁾

문화바우처사업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며 16개 시·도 주관처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에는 문화카

6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의 모세혈관이 촘촘히 퍼지게 만들겠다,”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69) 문화바우처 소개, 2012년 11월 29일 검색, <http://www.cvoucher.kr/>.

드 사업과 기획바우처 사업이 있다.

첫째로 문화카드란,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 내의 만 10-19세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50,000원이 충전된 카드를 부여하여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형식을 말한다. 2012년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장 발급이 가능한 후기명식 카드⁷⁰⁾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둘째로 기획바우처란, 문화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카드 1장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 형태에는 수혜자를 공연장까지 안내하여 함께 공연을 감상하는 ‘모셔오는 서비스’와 거동이 힘든 수혜자를 방문하여 문화적 도움을 주는 ‘재가 방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극장의 기획공연,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등을 무료로 보거나 할인받아 볼 수 있는 ‘나눔티켓’ 제도도 있다. 나눔티켓이란 공연단체나 기획사가 미판매 예매티켓의 50~80%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객석의 5%를 기부하여 후원하고, 문화바우처 대상자들은 나눔티켓 홈페이지⁷¹⁾에 회원가입을 하고 관람을 원하는 작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제하고 예매번호와 신분증으로 공연당일 매표소에서 티켓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1인당 무료티켓 구입가능 횟수는 월 2회, 연 24회이며, 작품별로 본인이 1회 3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각 지역자치단체나 문화재단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의 액수가 턱없이 적다 보니 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은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의 공연만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문화바우처사업의 지원 금액을 공연문화계의 현 실정에 맞게 늘리고, 저소득층에게 적극 홍보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연단체나 기획사의 참여가 필요한 ‘나눔티켓’은 공연단체나 기획사가 단순히 눈앞의 수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나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미래의 잠재고객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할 때에 그 빛을 발할 수 있

70) 후기명식 카드 : 카드번호가 미리 기재된 카드로 카드 발급 신청 즉시 온라인에 사용자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71) 나눔티켓 소개, 2012년 12월 3일 검색, <http://www.nanumticket.or.kr/Home/GiveTicketInfo/GiveTicket.aspx>

을 것이다.

2. 러시티켓

음악공연예술상품의 소멸성, 즉 현장성과 시기성, 장소의 제한성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할인 티켓 방법으로는 러시티켓(rush ticket)이 있다. 곧 시작되는 공연의 빈 좌석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러시티켓은 공연장 입장에서는 공연 당일까지 채워지지 않는 빈 좌석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객입장에서는 당일 나온 티켓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뿐 아니라 미국 브로드웨이 TKTS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러시티켓은 국내 음악공연예술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에선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던 할인제도였다. 한국은 현장 예매보다 인터넷 사전예매가 보편화 되어있고 대학생 클래식 음악공연 관객층이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두터운 편이다. 따라서 러시티켓 할인제도 시행으로 기존 정가티켓을 구매하던 관객이 러시티켓 관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⁷²⁾

그러나 2012년 5월, 예술의전당은 문화소외계층과 학생들의 공연 관람기회 확대 차원에서 국내에도 러시티켓을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2012년 7월부터 ‘당일할인티켓’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가. 러시티켓 정의

러시티켓이란 공연 당일 일정 시간까지 판매되지 않은 티켓에 대해 공연 시작 1-2시간 전부터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 시간에 임박하여 달려오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표라고 해서 ‘러시 티켓’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러시티켓 할인정책을 활용하는 공연장에서는 공연시간 1시간 전이면 매표소 앞으로 길게 줄이 늘어선다. 보통 관광객이나 학생들, 저 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러시티켓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벤트카세(Abendkasse)’라고 불린다.

72) 용호성, 『예술경영』, p. 523.

나. 해외 러시티켓 활용 사례

해외에서 러시티켓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매진되지 않은 당일 공연에 대해 공연 1~2시간 전, 좌석의 등급과 위치에 상관없이 판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연 주최자나 기획사가 티켓 판매를 담당하지 않고 공연장이 주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장마다 각자 정해진 규칙대로 러시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러시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관객들은 먼저 공연장 규범을 확인하고 티켓 구매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로 공연장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기획공연이나 해당 공연장의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등의 공연을 중심으로 러시티켓을 시행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공연장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40%에서 크게는 90%까지 진행된다.

먼저 러시티켓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의 러시티켓 시행 현황을 살펴보자. 뮤지컬의 본산 브로드웨이는 뉴욕 관광객들이 몰리는 뉴욕 주요 공연의 중심지이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연의 티켓은 TKTS(tickets의 약자)라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미국극장발전진흥재단(TDF)⁷³⁾에서 운영하는 이 티켓부스는 뉴욕 시내 3군데에 위치하고 있다.⁷⁴⁾ 브로드웨이와 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연극·발레 등의 공연의 러시티켓 구매도 주로 TKTS에서 이루어진다. TKTS에서는 공연 당일 미판매된 공연 티켓을 러시티켓이라는 이름으로 당일 오전 10시부터 최고 5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뉴욕 여행객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 관객들도 TKTS의 러시티켓을 애용하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TKTS앞에 러시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서 있는 줄을 자주 볼 수 있다.

미국은 TKTS 할인 판매 시스템 외에도 공연 특성에 따라 각 공연장에서 직접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러시티켓을 판매하기도 한다. 카네기홀에서는 학생과 노인들에게 미판매된 공연티켓을 공연 당일,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균일가 1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연이 할인 되는 것이 아니라 카네기홀 주최 공연 중 일부만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각 공연의 러시티켓 유무는 공연 당일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⁷⁵⁾

73) 미국극장발전진흥재단 소개, 2012년 12월 4일 검색, http://www.tdf.org/TDF_Landingpage.aspx?id=106.

74)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TKTS : Broadway and 47 street New York, NY 10036)와 브루클린(Brooklyn TKTS : 1 Metrotech Center Brooklyn, NY 11201),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South Street Seaport TKTS : Front Street New York, NY 10004)에 위치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공연에도 러시티켓이 있다. 가격은 20달러로 공연 당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매표소 현장에서 줄을 서서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예매율이 높은 시즌 주력공연일 경우에는 공연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주말 공연의 러시티켓 구매 방법은 평일 공연과는 다르다. 주말 공연의 러시티켓을 구매하기 원할 경우에는 그 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링컨센터 매표소에서 러시티켓 신청 리스트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월요일 아침에 러시티켓을 등록 하면 화요일에 당첨자 발표가 나고 수요일에 주말 공연 러시티켓 구매가 가능하다.⁷⁶⁾

뉴욕시티발레단은 학생에게만 러시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29세 이하의 학생이 인터넷이나 현장구매를 통해 공연당일에 15달러에 러시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매 주 월요일에 구입 가능한 공연리스트가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⁷⁷⁾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인 독일에선 러시티켓이 ‘아벤트카쎄(Abendkass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공연장 매표소에서 당일 공연 미판매 좌석 대해 아벤트카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과의 차이점은 만 21세 이하의 학생, 만 30세 이하의 대학생, 그리고 군인이나 실업자, 저 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연 시작 1-2시간 전, 매표소에 가서 당일 공연 아벤트카쎄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좌석등급에 상관없이 아벤트카쎄를 구입할 수 있다. 아벤트카쎄가 시작 되는 시간이 안내되면 공연장 매표소에 길게 줄이 늘어선다. 각 공연장마다 아벤트카쎄의 할인율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는 만 21세 이하의 학생과 만 30세 이전의 대학생, 그리고 군인이나 실업자에게 13.5유로에 당일 남은 티켓을 좌석에 상관없이 판매하며, 국가에서 공인한 저 소득층에게는 3유로에 당일 한정된 티켓을 판매한다.⁷⁸⁾

이처럼 해외에서는 각 공연장이나 공연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러시티켓

75) 카네기홀 러시티켓 안내, 2012년 12월 3일 검색, <http://www.carnegiehall.org/Students/>.

76) 메트로폴리탄 러시티켓, 2012년 12월 6일 검색, <http://www.metoperafamily.org/metopera/season/Rush.aspx>

77) 뉴욕시티발레단 학생 러시티켓, 2012년 12월 5일 검색, <http://www.nycballet.com/Season-Tickets/Groups-Students/Student-Rush.aspx>

78) 독일 베를린 오페라하우스 Abendkasse, 2012년 12월 4일 검색, http://deutscheoperberlin.de/de_DE/tickets#office.

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이나 저 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예매 방식 보다는 공연시작 1-2시간 전에 공연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 국내 러시티켓 활용 방안

2008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국내에 러시티켓을 처음으로 도입하려 했었다.⁷⁹⁾ 당일 공연의 남은 좌석을 공연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1만원에 판매하는 형태의 러시티켓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러시티켓 도입을 통하여 미래의 고객이 될 청소년들을 공연장으로 끌어와 잠재 고객을 확보하길 기대하였고, 공연장의 빈 좌석을 채워 공공재로서 공연상품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러시티켓 도입에 대한 조례제정 검토과정에서 거론된 티켓 판매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러시티켓 국내 첫 도입을 무산시켰다. 관련하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서비스 담당자는 러시티켓 도입으로 인하여 공연 티켓을 조기 예매하는 관객들이 오히려 비싼 가격에 표를 사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조기에매 활성화에 지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티켓 구입이 공연 당일 현장판매로 물리게 되면서 공연에 대한 수요예측이 힘들어 지고 공연 주최 측의 잔여 티켓 활용이 어려워지므로 인터넷 조기 예매 문화정착에 역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⁰⁾ 따라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국내 첫 러시티켓 도입은 좌절되었고 오히려 인터넷 조기에매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내에서는 러시티켓 제도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러시티켓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예술의전당 측은 국내 사정에 맞게 러시티켓을 다시 적용하여 보기로 결정하였다. 처음 발표에서는 러시티켓을 ‘스탠바이 티켓’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연 당일 까지 판매되지 않은 좌석에 대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들에게 당일 3시부터 저렴한 가격에 정액제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는데 시행 과정에서 다시 러시티켓의 새로운 국내 명칭을 공모하여 지금은 ‘당일할인티켓’으

79) 윤희일 기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러시티켓과 유스티켓 도입,” (경향신문, 2008. 7. 1).

80) 김향룡 기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할인티켓 도입 무산,” (충청투데이, 2009. 4. 22).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예술의전당이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당일할인티켓은 좌석 등급이나 정가에 관계없이 당일 공연 중 잔여석이 남아있는 공연을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와 만 8세-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0,000원 초과 입장권에 대하여 정액 10,000원에 판매하고 30,000원 이하 입장권에 대하여 정액 5,000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오후 6시 30분 이전 공연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티켓구매가 가능하고 오후 7시 이후 공연은 오후 3시부터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표 13> 예술의전당 당일할인티켓 오픈 시간

구분		예매 가능 공연	예매방법
1차 오픈	오전 9:00	오후 6:30 이전 공연	온라인 / 오프라인
2차 오픈	오후 3:00	오후 7:00 이후 공연	

출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2012).

예술의전당의 당일할인티켓은 공연 당일에 판매되지 않은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존 러시티켓과 같은 할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할인 대상에 청소년을 비롯하여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있어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전당의 당일할인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만 8세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구입 전에 예술의전당 '썹티우미'에 가입해야 당일할인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썹티우미란 예술의전당 청소년 회원제로 만 8세부터 24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회원제를 말한다.

또한 예술의전당은 공연장 기획공연 뿐 아니라, 대관공연에도 당일할인티켓이 적용 되도록 대관공연의 경우, 당일할인티켓 적용 동의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하여 대관공연 기획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일할인티켓이 적용되는 공연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할인티켓 구매가 가능한 공연은 매일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예술의전당은 당일할인티켓을 전체좌석의 10% 이내

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예매 관객이 좌석을 미리 잡아 두었다가 당일 환불하고 당일할인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기존 예매자 입장권 환불 및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다.

조기 인터넷 예매가 많은 국내 공연시장에서 러시티켓 도입은 기존 예매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연 티켓 예매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공연기획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당일할인티켓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술의전당 당일할인티켓 담당자는 당일할인티켓의 비율을 전체공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청소년 및 저소득층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놓았기 때문에 별 다른 혼란 없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물가상승에 따라 점점 인플레 되는 티켓 가격 때문에 여건상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 소득층과 청소년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부담되지 않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일할인티켓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술의전당 당일할인티켓 담당자는 현재 예술의전당 기획공연과 일부 대관공연에만 당일할인티켓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대관공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술의전당과 기획사와의 면밀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 클래식 음악공연장인 예술의전당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당일할인티켓이라는 이름을 갖고 러시티켓을 도입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러시티켓 시행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며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국내 다른 공연장에서도 공연장이 주체가 되어 러시티켓을 시행하게 된다면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클래식 음악공연 잠재 관객들이 보다 더 쉽게 공연장에 발걸음 하게 될 것이고, 국내 음악공연예술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V. 결론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은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네 가지 성격인 무형성, 비분리성, 가변성 그리고 소멸성 등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현장성과 시기성, 1회성 소비, 무재고성과 연관된다. 또한 일단 공급되면 그 혜택이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동시에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차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재적이고 공공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치재적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직접 소비해 보기 전에는 품질을 가늠할 수 없는 경험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공연기획자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클래식 음악공연예술상품을 통해 수익 극대화 와 관객규모 최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연제작 비용 중심의 티켓 가격 결정, 소비자 중심의 수요대응 티켓 가격 결정, 시장 가격 중심의 시장대응 티켓 가격 결정원리를 적절히 배합하여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1990년 후반부터 티켓예매 방식이 기존의 오프라인 예매에서 온라인 예매로 변화하면서 음악공연예술시장은 급진적인 발전을 보였고 공연기획자들은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결정에 있어 좌석등급의 의미부여, 할인정책 활용 등 여러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클래식 음악공연상품의 티켓 매니지먼트가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티켓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티켓 관리 업무를 넘어, 기업 후원 및 대형 협찬유치를 통한 재원조성, 티켓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지난 2011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공연장 내 '옥상옥 등급' 문제와 과도하게 높이 책정된 고가의 티켓 문제는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장 내 위화감을 조성시켰다. 예술의전당 음악당과,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오페라·발레 공연의 좌석등급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4~5등급으로 나누어 졌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상위 등급위에 최상위 등급이 생겨나며 어느새 7~8등급까지로 세분화 되었고 티켓 가격은 10년 동안 무려 4배나 상승하였다. 국외아티스트 초청공연 역시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는데 비싼 티켓 가격으로 인하여 일반 관객들은 공연장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은 공연기획자의 재원조성 과정에서 기업후원자들과 공연기획자의 관행이 불러낸 현상에 있었다. 기업은

하나의 공연에 단발적으로 후원을 하며 반대급부로 특별한 공연티켓을 요구하였고, 기획자는 거기에 발 맞춰 더 비싸고 좋은 좌석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과시적인 소비를 즐겨하는 현대인들의 소비심리는 베블런 효과를 바탕으로 티켓 가격이 더욱 상향조정 되도록 만들었고, 공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없는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비쌀수록 좋은 것이다'라는 앵커링을 심어주었다. 또한 공연기획사들은 앵커링 조정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처음에 공연티켓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할인 정책을 시행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것은 기형적인 좌석등급과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연장인 예술의전당은 전 국민의 문화향수권 향유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좌석등급 표준제'라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좌석등급 표준제'란 좌석의 등급을 5등급으로 제한시키고 좋은 좌석의 등급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좌석등급 책정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무분별한 상위 좌석등급제 남발로 겪는 혼선이 줄게 되고 기업 후원자들의 지나친 좋은 좌석 차지하기 등의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연장이 중심이 되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좌석등급을 공연장 내부 규범으로 제한한다면 국내 음악계에 나타나는 '옥상옥(屋上屋)등급' 현상이 눈에 띄게 완화될 것이다. 예술의전당이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문화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시행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근본적으로 공연기획자와 기업후원자 사이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현재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기업의 후원과 후원의 반대급부로 기업에게 다량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방식을 지양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기업의 바람직한 예술후원 문화 장려를 위한 기구인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가 보다 지속적인 상호발전을 추구하도록 매칭해주고 있다. 이러한 매칭시스템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예술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기업후원문화 장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티켓 할인 제도를 만들어 공연장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러시티켓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상품의 무재고성을 고려한다면 공연기획자에게도 러시티켓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 예술의전당이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당일할인티켓’은 조기 인터넷 예매가 많은 국내 공연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예매자의 환불 및 변경을 공연 하루 전으로 제한하여 ‘러시티켓’을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예술의전당의 ‘당일할인티켓’ 시행을 바탕으로 국내에 이러한 티켓할인 제도가 많은 공연장에 보편화 된다면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인플레이 현상이 가속화 된다면 하더라도 저소득층 및 청소년의 문화생활 향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 클래식 음악공연 문화가 발전하고 더욱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클래식 음악공연 잠재관객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청소년과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양질의 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여 클래식 음악공연 잠재관객의 저변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강은경. 『공연계약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오래, 2012.
- 김경옥. 『문화정책과 재원조성』. 서울: 논형, 2003.
- 김민주 외. 『컬덕 시대의 문화마케팅』. 서울: 미래의 창, 2005.
- 김영신, 김유랑, 김기홍, 문지혜, 송경옥, 이유리, 이현아. 『2010 티켓매니지먼트 :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매표소 운영까지』. 서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 김승미. 『만원사례 예술경영학』. 서울: 늘봄, 2008.
- 김평수, 윤홍근, 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클래식음악·발레 관람객조사 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2012.
- 송희영. 『공연예술경영, 무엇을 어떻게 할까?』. 서울: 민속원, 2006.
- 안광호, 하영원, 박홍수. 『마케팅 원론 3판』. 서울: 학현사, 2004.
- 용호성. 『예술경영』. 경기: 김영사, 2011.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 이규식, 이선형. 『공연예술』. 대전: 학예사, 2007.
- 이승엽. 『극장경영과 공연제작』. 서울: 역사넷, 2001.
- 이인권. 『21세기 문화 창의력의 시대 예술의 공연 매니지먼트』. 서울: 어드북스, 2009.
- 이의신. 『공연기획,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울: 예술, 2003.
- 이재희. 『공연예술경제학』. 서울: 삼영사, 2009.
- 황재연. 『뮤직 비즈니스』. 서울: 도서출판 시유시, 2004.
- IGM 세계경영연구원. 『세상 모든 CEO가 묻고 싶은 질문들』. 경기: 위즈덤하우스, 2012.

< 번역본 >

- 青木 淳. 『プライシング : 消費者を魅了する「値ごろ感」の演出, ダイヤモンド社』. 2003. 한양심 역. 『프라이싱 : 소비자를 사로잡는 가격 책정 기술』. 서울: 한스미디어, 2004.
- Boumol, William J, W.Bowen. *Performing Arts : The Economic Dilemma*. 1966. 임상오 역.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서울 : 도서출판 해남, 2011
- Kotler, Philip, Joanne Scheff. *Standing Room Only : Strategies for marketing the performing arts*. 1997. 용호성 역. 『전석매진』. 경기: 김영사, 2010.
- Marx, Karl. *Das Kapital : Kritik d. polit. Ökonomie*. Berlin: Dietz Verlag. 1988.
- Poundstone, William. *Priceless : The myth of fair value*. 최정규, 하승아 역. 『가격은 없다』. 경기: 동녘사이언스. 2011.

< 논문 >

- 강일중. “공연예술단체의 가격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윤전. “클래식 음악공연 티켓가격의 적정성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은경. “공연장 직영 인터넷 티켓예매 시스템의 현황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주호. “고객만족을 위한 클래식 음악공연의 형태별 시장 세분화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12권 제3호 (2010), 129-155쪽.
- 김주호, 이은정. “클래식 음악공연의 소비자 선택요인과 의사결정의 탐색적 연구.” 『Journal of commodity science』 제28권 제6호 (2010), 43-59쪽.
- 김화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방안 연구 : 문화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선기. “클래식 공연상품 제작에 관한 연구 : 음악전공자와 음악대학(원)의 방향성 모색.”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성택. “관객소비형태 분석에 따른 공연장의 사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 예술의 전당 사례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정미. “클래식음악공연의 브랜드가치에 따른 베블런효과 연구.”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재석. “온라인 예술교육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 순수음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아람찬. “영국의 파격적인 관객개발 정책.” 영화진흥위원회, 2008.
- 임혜경. “공연관람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장교식.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 연구』 제50집 2010-8호 (2010), 273-293쪽.
- 전남희. “클래식 대중화 방안과 환경분석 연구 : 공연문화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기은. “국내 뮤지컬 산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주희중.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41권 제1-1호 (1997), 453-465쪽.
- 최미금. “인터넷의 예약 및 예매기능이 공연관객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동향분석 : 문화관광체육 할인/ 바우처 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 조사의 통합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보도자료 >

- 김성현 기자. “예술의전당, VIP석 없애… ‘옥상옥 티켓’ 사라질까?” 조선일보. 2012. 5. 16.
- _____. “서울시향 연주 라보엠, VIP석 57만원 ‘헉!’” 조선일보. 2012. 6. 19.
- 김수현 기자. “SBS 취재파일 : 공연 좌석등급 거품 - P석을 아십니까?” SBS뉴스. 2012. 1. 3.
- 김용운 기자. ““고가 티켓’ 거품 빠질까” 이데일리신문. 2012. 6. 8.
- 김향룡 기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할인티켓 도입 무산” 충청투데이. 2009. 4. 22.
- 문영규 기자. “모철민 예술의전당 신임사장 “공공성에 집중할 것”” 헤럴드경제. 2012. 5. 1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모세혈관이 촘촘히 퍼지게 만들겠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2008. 10. 23.

- 박정호 기자.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 : 고급 공연예술이 상연되는 공간이 우아한 이유는?” 한국경제. 2012. 8. 24.
- 박태해 기자. “VIP석 57만원… 야외오페라 라보엠 공연 흥행할까” 세계일보. 2012. 7. 12.
- 윤희일 기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러시티켓과 유스티켓 도입” 경향신문. 2008. 7. 1.
- 이광형 기자. “헉! VIP석 57만원… 오페라 ‘라보엠’ 비싼 티켓값 공연 성공 관심” 국민일보. 2012. 6. 24.
- 임세리 기자. “‘무늬만 VIP’ 좌석 인플레 현상 이대로 좋은가” 중부일보. 2012. 3. 1.
- 임일영 기자. “반쪽짜리 ‘라보엠’” 서울신문. 2012. 8. 21.
- 전지현 기자, 노현 기자. “공연티켓, 과시용 수요로 비싼 표가 먼저 동나” 매일경제. 2007. 7. 20.
- 전지현 기자. “‘지젤 공연’ 뉴욕 16만원 vs 서울 40만원 왜?” 매일경제. 2012. 6. 1. _____, “예술의전당, VVIP석 없애고 R석 늘렸더니” 매일경제. 2012. 10. 21.
- 정상영 기자. “‘표 안팔리네’…오페라 ‘라보엠’ 축소공연” 한겨레일보. 2012. 8. 20.
- 정승양 기자. “리허설 무료 관람제 등 도입… 쉽게 찾아오는 문화공간 만들 것” 서울경제. 2012. 5. 15.
- 조선닷컴 토론마당. “P석 VVIP석 폐지한다는 예술의전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닷컴. 2012. 5. 16.
- 조이영 기자. “모철민 예술의전당 신입사장 “P석, VVIP석… 변칙적 좌석 없앤다””, 동아일보. 2012. 5. 16.
- 최남수 기자. “수익·공공성 조율하는 ‘문턱 낮은 공연’ 연출가” 머니투데이. 2012. 7. 17.

부 록 1

< 2002-201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발레공연 좌석등급 및 티켓가격 >

번호	연도	공연일자	공연명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P	VVIP	VIP	R	S	A	B	C	D	기타
1	2002	4/6(토)-4/9(화)	국립발레단「지젤」				5	4	3	2	1		
2		4/18(목)-4/21(일)	베세토오페라단「카르멘」			15	10	7	5	3			
3		4/27(토)-5/2(목)	국제오페라단「나비부인」			15	10	6	5	4	3		
4		5/8(수)-5/11(토)	「사랑하는 내 아들이」				10	7	5	2			
5		5/21(화)-5/25(토)	「피가로의 결혼」				18	15	10	8	5		
6		6/6(목) - 6/9(일)	국립오페라단「전쟁과 평화」				7	5	3	2			
7		6/14(금)-6/17(월)	발레「로미오와 줄리엣」			7	5	4	3	2	1		
8		6/28(금)-7/3(수)	국립발레단「돈키호테」			8	6	4.5	3	2	1	0.8	
9		9/25(수)-9/26(목)	국립오페라단「동명성왕」				7	5	3	1			
10		10/9(수)-10/12(토)	예술의전당 오페라「오텔로」				12	9	7	5	3		
11		10/25(금)-10/29(화)	국립발레단「로미오와줄리엣」				6	5	4	3	2	1	
12		11/6(수)-11/9(토)	국립오페라단「마술피리」				10	7	5	2			
13		12/21(토) - 12/29(일)	송년발레「호두까기인형」				5	4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1.25	8.538	6.346	4.538	2.923	2.286	0.9	
14	2003	3/15(토)-3/21(금)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8	6	4	3	2		
15		3/28(금) - 3/30(일)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13	10	8	6	4	2		
16		4/5(토)-4/8(화)	오페라「아이다」			30	15	10	5	3	2		VIP-만찬포함
17		4/14(월)-4/17(목)	오페라「라보엠」			10	8	6	4	3	2		
18		4/24(목)-4/27(일)	오페라「투란도트」				10	7	5	2			
19		5/3(토)-5/8(목)	발레「백조의 호수」				6	5	4	3	2		
20		5/15(목)-5/20(화)	베세토오페라단「마술피리」			15	10	7	5	3			
21		5/27(화)-5/31(토)	국제오페라단「사랑의 묘약」			20	10	6	5	4	3		
22		9/28(일)-10/4(토)	오페라「리골레토」			14	12	10	7	5	3		
23		10/10(금) - 10/13(월)	국립발레단「고집쟁이 딸」			7	5	4	3	2			
24		10/18(토)-10/22(수)	유니버설발레단「돈키호테」			8	6	5	3	2			
25		10/30(목)-11/2(일)	국립오페라단「사랑의 묘약」				12	10	7	5	2		
26		11/17(월)-11/20(목)	국립발레단「트리플 빌」			7	5	4	3	2			
27		11/25(화)-11/29(토)	오페라「돈 조반니」			12	10	8	6	4	3		
28		12/20(토)-12/27(토)	발레「호두까기 인형」				5	4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3.6	8.8	6.667	4.667	3.133	2.333		
29	2004	5/8(토)-5/15(토)	발레「잠자는 숲속의 미녀」				10	8	6	4	3	2	
30		5/26(수)-5/30(일)	한국오페라단「루치아」		20	18	15	13	10	8	5	3	RV석
31		6/5(토) - 6/9(수)	오페라「토스카」			30	15	10	7	5	2		
32		6/15(화)-6/19(토)	오페라「마술피리」			20	15	10	5	3			
33		6/25(금)-6/27(일)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20	15	10	8	5	3		
34		8/12(목)-8/15(일)	발레「그랑디바」				7	5	3				
35		10/7(목)-10/1(월)	오페라「아이다」			15	12	9	6	3			
36		10/20(수)-10/23(토)	오페라「루치아」			12	9	7	5	4	3		
37		10/29(금)-11/3(수)	발레「심청」			10	6	3	1				
38		11/21(일)-11/25(목)	오페라「사랑의 묘약」			12	10	7	5	2			
39		12/21(화)-12/28(화)	발레「호두까기 인형」				5	4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20	16.3	10.6	7.64	5.18	3.89	3	3	
40	2005	1/15(토)-1/16(일)	오페라「정조대왕의 꿈」			7	5	3	2				
41		1/25(화)-1/29(토)	오페라「가면무도회」			9	7	5	4	3	2		
42		3/3(목)-3/12(토)	오페라「라보엠」			16	12	8	6	4	3		
43		3/22(화)-3/26(토)	오페라「마탄의 사수」			15	12	9	6	3			
44		4/1(금)-4/6(수)	오페라「마술피리」			20	15	10	5	3			
45		10/5(수)-10/9(일)	오페라「나부코」			20	15	10	6	3			
46		10/15(토)-10/20(목)	발레「고집쟁이딸」			7	5	4	3				
47		10/28(금)-10/31(월)	오페라「안드레아 셰니에」			9	7	5	4	3	2		
48		11/10(목)-11/13(일)	발레「지젤」			10	6	4	1				
49		11/22(화)-11/27(일)	오페라「호프만의이야기」			15	12	9	6	3			
50		12/23(금)-12/31(토)	발레「호두까기 인형」			7	6	5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2.3	9.27	6.55	4.18	3	2.33		
51	2006	2/22(수)-2/25(토)	오페라「투란도트」			15	11	7	3	1			
52		3/2(목)-3/5(일)	오페라「토스카」			20	15	10	7	5	3		
53		4/5(수)-4/9(일)	발레「잠자는 숲속의 미녀」			10	7	5	3	1			
54		4/20(목)-4/23(일)	오페라「돈조반니」			12	10	8	6	4	2		

55		4/29(토)-5/2(화)	오페라「오텔로」			20	15	10	7	5	3		
56		5/12(금)-5/17(수)	발레「돈키호테」			10	7	5	2	1			
57		5/24(수)-5/27(토)	오페라「나비부인」			20	15	10	7	3			
58		10/13(금)-10/16(월)	오페라「천생연분」			12	9	6	3	1			
59		11/7(화)-11/11(토)	오페라「돈 카를로」			12	10	8	6	4	2		
60		11/19(일)-11/23(목)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15	12	9	6	3	1		
61		12/22(금)-12/30(토)	발레「호두까기 인형」			7	6	5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3.9	10.6	7.55	4.82	2.73	2.2		
62	2007	2/8(목)-2/10(토)	「악테웅&디도와에네아스」			11	9	7	5	3			
63		3/30(금)-4/2(월)	오페라「아이다」			15	11	7	3	1			
64		4/20(금)-4/25(수)	발레「스파르타쿠스」			10	7	5	2	1			
65		5/2(수)-5/5(토)	오페라「라트라비아타」			20	15	10	7	5	3		
66		5/12(토)-5/17(목)	오페라「리날도」			33	28	23	18	13	6	3	
67		10/4(목)-10/8(월)	오페라「맥베드」			15	12	9	6	3	1		
68		10/20(토)-10/23(화)	발레「로미오와 줄리엣」			15	8	6	3	1			
69		10/31(수)-11/3(토)	「춘향 & 유자게트」			10	7	5	8				
70		11/14(수)-11/17(토)	오페라「카르멘」			12	10	8	6	4			
71		11/23(금)-11/27(화)	오페라「아이다」	32		25	17	10	7	5	3		
72		12/6(목)-12/14(금)	오페라「라보엠」			15	12	9	6	3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32	16.5	12.4	9	6.45	3.9	2.8	3
73	2008	12/25(목)-12/31(수)	발레「호두까기 인형」			7	6	5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7	6	5	3	2			
74	2009	3/6(금)-3/14(토)	오페라「피가로의 결혼」			20	17	12	7	4			
75		3/20(금)-3/24(화)	국립발레단의「신데렐라」	15		10	8	6	3	1	0.5		
76		4/17(금)-4/26(일)	발레「라바야데르」			10	8	6	3	1			
77		5/7(목)-5/10(일)	오페라「피델리오」				15	10	6	3			
78		5/26(화)-5/30(토)	오페라「라보엠」			20	15	10	7	5	3		
79		6/25(목)-6/28(일)	오페라「노르마」			10	7	5	3	1			
80		9/10(목)-9/13(일)	발레「차이코프스키」	15		10	8	6	3	1	0.5		
81		9/26(토)-9/30(수)	오페라「사랑의묘약」			10	7	5	3	1			
82		10/8(목)-10/11(일)	오페라「마술피리」			31	25	15	10	5	3		
83		10/15(목)-10/18(일)	오페라「투란도트」	34	28	23	15	10	8	5	3		
84		10/24(토)-10/26(월)	「까발레리아루스티카나」			30	20	10	7	5			
85		11/5(목)-11/8(일)	오페라「카르멘」			25	20	15	10	5			
86		11/18(수)-11/22(일)	발레「왕자호동」	10		8	6	4	2	1	0.5		
87	12/9(수)-12/13(일)	발레「백조의호수」	15		10	8	6	3	0.5				
88	12/18(금)-12/24(목)	발레「호두까기인형」			8	7	6	3	2	0.5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34	16.6	16.1	12.4	8.4	5.2	2.7	1.57
89	2010	1/21(목)-1/24(일)	오페라「이오메데오」			15	12	9	6	4	2		
90		1/29(금)-1/31(일)	발레「신데렐라」			12	9	7	5	2	1	0.5	
91		2/4(목)-2/7(일)	발레「차이코프스키」			12	9	7	5	2	1	0.5	
92		3/12(금)-3/18(목)	오페라「맥베드」			15	12	9	6	3	1		
93		3/25(목)-3/28(일)	오페라「나비부인」			20	15	10	5	3			
94		4/2(금)-4/3(토)	발레「춘향」				7	5	3				
95		4/19(월)-4/5(일)	오페라「람메르무어의 루치아」			15	12	9	6	3	1		
96		5/4(화)-5/7(금)	오페라「라보엠」				15	10	6	3			
97		5/13(목)-5/18(화)	오페라「세미라미데」			33	28	23	18	13	7	3	
98		5/24(월)-5/0(일)	발레「심청」				8	6	1				
99		6/7(월)-6/10(목)	오페라「리골레토」	25		20	15	10	5	3			
100		6/16(수)-6/19(토)	오페라「아이다」	25		20	15	10	5	3			
101		6/25(금)-6/28(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25		20	15	10	5	3			
102		7/3(토)-7/7(수)	오페라「카르멘」	25		20	15	10	5	3			
103		7/15(목)-7/18(일)	발레「롤랑 프티의 밤」	12		10	7	5	3	1	0.5		
104		8/15(일)-8/22(일)	조지발란신의「호두까기인형」	12		10	7	5	2				
105		9/1(수)-9/3(금)	대학오페라「피가로의 결혼」			5	4	3	2	1			
106		9/9(목)-9/11(토)	대학오페라「라 트라비아타」			5	4	3	2	1			
107		9/17(금)-9/19(일)	대학오페라「코지 판 투떼」			5	4	3	5	1			
108		9/25(토)-9/30(목)	발레「라이몬다」	12		10	7	5	3	1	0.5		
109		10/7(목)-10/10(일)	오페라「프린스이고르」			25	20	15	10	5			
110		10/20(수)-10/23(토)	오페라「메피스토펠레」			15	12	9	5	3	1		
111		10/29(금)-11/05(금)	발레「라 바야데르」			10	8	6	2	1			
112		11/25(목)-11/28(일)	오페라「롤루」			15	12	9	6	3	1		
113		12/07(화)-12/12(일)	발레「백조의 호수」			10	8	6	4	1	0.5		
114		12/17(금)-12/25(토)	발레「호두까기 인형」			9	7	6	3	2	0.5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7.5	14	10.8	7.81	4.62	2.65	1.27	3	
115	1/25(화)-1/28(금)	오페라「투란도트」		15	12	9	6	3	1	1.5	C=학생석
116	2/24(목)-2/27(일)	국립발레단「지젤」		10	7	5	3	1	5		
117	3/16(수)-3/20(일)	국립오페라단「파우스트」		15	12	8	5	3	1	1.5	C=학생석
118	3/25(금)-3/28(일)	유니버설발레단「돈키호테」		10	8	6	2	1			
119	4/7(목)-4/10(일)	오페라「사문 보카네그라」		15	12	8	5	3	1	1.5	C=학생석
120	4/2(금)-4/24(일)	국립발레단「왕자호동」		8	5	3	1	0.5			
121	5/5(목)-5/8(일)	「카르멜회수녀들의대화」		15	12	8	5	3	1	1.5	C=학생석
122	5/19(목)-5/22(일)	국립오페라단「사랑의묘약」		15	12	8	5	3	1	1.5	C=학생석
123	5/27(금)-5/29(일)	수지오페라단「라 트라비아타」		30	25	12	7	3			
124	6/3(금)-6/4(토)	오페라「대장경」		12	8	5	3				
129	6/23(목)-6/26(일)	오페라「청교도」	25	15	10	7	5	2			
130	7/2(토)-7/6(수)	오페라「토스카」	25	15	10	7	5	2			
131	7/12(화)-7/15(금)	오페라「논개」	20	15	10	7	5	2			
132	7/21(목)-7/24(일)	오페라「메밀꽃필무렵」	25	15	10	7	5	2			
133	7/31(일) - 8/7(일)	조지발란신의「호두까기인형」		15	12	8	6	4			
134	8/22(월)-8/24(수)	「사랑의묘약」		5	4	3	2	1			
135	8/30(화)-9/01(목)	대학오페라 페스티벌「박쥐」		5	4	3	2	1			
136	9/7(수)-9/9(금)	「호프만의 이야기」		5	4	3	2	1			
137	10/13(목)-10/16(일)	국립오페라단「가면무도회」		15	12	8	5	3	1	1.5	C=학생석
138	10/27(목)-10/30(일)	국립발레단「로미오와줄리엣」		15	12	9	5	2	0.5		
139	11/4(금)-11/5(토)	「아버지, 도산 안창호」		25	15	7	5	3			
140	11/10(목)-11/13(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25	20	15	10	7	5	3		
141	11/18(금)-11/20(일)	오페라「라보엠」		20	15	10	7	5	3		
142	11/25(금)-11/27(일)	오페라「나비부인」	34	28	24	15	10	8	5		
143	12/2(금)-12/4(일)	오페라「리골레토」	35	29	22	12	6	3	1.5		
144	12/16(금)-12/25(일)	발레「호두까기인형」		9	7	6	3	2	0.5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34.5	25.3	15	10.8	7.04	4.5	2.48	1.64	1.5
145	2/29(수)-3/4(일)	발레「지젤」		10	7	5	3	2	0.5		
146	3/8(목)-3/11(일)	창작 오페라「손양원」		15	10	7	5	3			
147	4/3(화)-4/6(금)	오페라「라보엠」		15	12	8	5	3	1		
148	4/12(목)-4/15(일)	발레「스파르타쿠스」		10	7	5	3	1	0.5		
149	4/19(목)-4/22(일)	푸치니의 오페라「나비부인」		25	15	10	7	4			
150	4/27(금)-4/9(일)	오페라「토스카」		25	15	10	5	3	1		
151	5/11(금)-5/13(일)	「피가로의 결혼」	25	15	12	8	5	3	1		
152	5/18(금)-5/20(일)	「호프만의 이야기」	20	15	12	8	5	3	1		
153	5/25(금)-5/27(일)	「토스카」	25	20	15	12	8	5	3	1	
154	6/1(금)-6/3(일)	「라 트라비아타」	20	15	12	8	5	3	1		
155	7/7(토)-7/14(토)	발레「로미오와 줄리엣」		10	8	6	3	1			
156	7/26(목)-7/29(일)	발레「백조의 호수」		25	20	15	10	5			
157	8/25(토)-8/27(일)	「리골레토」			4	3	2	1			
158	9/2(일)-9/4(화)	「잔느스키키, 수녀안젤리카」			4	3	2	1			
159	9/20(목)-9/23(일)	「다윗왕(KingDavid)」			25	20	15	10	5	3	
160	9/26(수)-9/28(금)	발레「백조의 호수」			15	12	9	7	5		
161	10/4(목)-10/7(일)	오페라「돈지오반니」			25	15	7	5	3		
162	10/18(목)-10/21(일)	오페라「카르멘」			15	12	8	5	3	1	
163	10/26(금)-10/28(일)	오페라「세빌리아의 이발사」			22	17	10	5	2		
164	11/2(금)-11/4(일)	오페라「리골레토」			22	17	10	5	2		
165	11/14(수)-11/15(목)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20	15	10	8	5	3	
166	11/28(수)-12/1(토)	오페레타「박쥐」			15	12	8	5	3	1	
167	12/7(금)-12/12(수)	국립발레단「백조의 호수」			10	8	5	2	1	0.5	
168	12/18(화)-12/25(화)	송년발레「호두까기 인형」			9	7	6	3	2	0.5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25	21.3	16.3	13.7	9.96	6.38	3.79	2.11	1.5

(단위 : 10,000원)

부 록 2

< 2002-201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해외 아티스트 공연 좌석등급 및 티켓가격 >

번호	연도	공연일자	공연명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VVIP	VIP	R	S	A	B	C	D
1	2002	1/19(토)	보리스베레조프스키리스트피아노독주회			7	5	3	2		
2		1/20(일)	이무지지실내악단내한공연			8	6	5	3	2	
3		1/23(수)	카운터테너솔라바내한공연			7	5	3	2		
4		2/2(토)	베를린바로크솔리스트초청공연			5	3	1			
5		2/6(수)	피아니스트서혜경과뉴욕메트로폴리탄주악가수내한공연			10	7	5	3		
6		2/17(일)	안가바렉과힐리어드앙상블내한공연				7	5	3		
7		2/18(월)	우토우기바이올린독주회			7	5	3	2		
8		2/19(화)	피아니스트 Prof. Rolf-Dieter Arens 초청				3	2	1		
9		2/26(화)	타이페이필하모닉챔버과이어초청공연			5	3	2	1		
10		2/28(목)	Sop.김인혜&텔레만실내악단내한공연			5	3	2	1		
11		3/6(수)	상하이 방송교향악단 & 첼리스트 요요 마 초청공연			10	8	6	3		
12		3/9(토)	빈소년합창단내한공연			6	5	4	3	2	
13		3/10(일)	트리오 토이키트 내한공연				5	4	3		
14		3/13(수)	본드아시아투어2002		10	7	5	4	3		
15		3/16(토)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12	9	7	4	3		
16		3/23(토)	찰리에이든&곤잘로루발카바듀오재즈콘서트			7	5	4	3	2	
17		3/24(일)	브래드멜다우트리오내한공연			8	6	4	2		
18		3/28(목)	소프라노르네올레밍독창회			9	7	5	3		
19		4/19(금)	나까무라유리코피아노독주회			4	3	2			
20		4/21(일)	파블로지글러퀸텟내한공연			8	6	4	2		
21		5/10(금)	NHK교향악단서울연주회			7	5	3	1		
22		5/16(목)	브랜포드마살리스콰르텟내한공연			8	6	4	2		
23		5/30(목)	머레이페라이어피아노독주회			9	7	5	3		
24		6/12(수)	알라나 & 게오르그 듀오 콘서트			30	25	20	15	10	학생석=5
25		6/29(토)	베를린필 12첼리스트 내한공연			9	7	5	3		
26		8/7(수)	노래하는 천사들"보니프에리" 첫 내한공연				3	2.5	2		
27		9/19(목)	레이프 오베 앤스니스 피아노 독주회			7	5	3	2		
28		9/27(금)	안너 빌스마 & 라르키 부델리 내한공연			7	5	3	2		
29		10/3(목)	유키구라모토 내한공연				5	3			
30		10/8(화)	2002 차이코프스키 콩쿨수상자 내한공연			8	6	4	2		
31		10/9(수)	빈소년합창단내한공연			6	5	4	3	2	
32		10/13(일)	카다케스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7	5	3	2		
33		10/26(토)	첼리스트 니나 코트바 초청연주회			7	5	3	2		
34		11/3(일)	볼쇼이합창단 발라스크아오케스트라내한공연			5	3	2			
35		11/9(토)	조르지산도르피아노리사이틀			5	3	2			
36		11/17(일)	마이클 호페 내한공연			7	5	4	2		
37		11/20(수)	우크라이나내셔널심포니ORC내한공연초청연주			5	3	1			
38		11/22(금)	Kiev Saxphone Quartet 내한공연			5	4	3	2		
39		12/4(수)	소프라노 제시 노만 리사이틀			14	12	10	7	4	
40		12/8(일)	이사오사사키 트리오 내한공연			8	6	4	2		
41		12/10(화)	오데사 소년소녀 합창단 내한공연			5	4	3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1	7.7	5.7	4	2.8	3.7	
42	2003	2/9(일)	페페로메로초청내한공연			5	4	3	2		
43		2/11(화)	할렘흑인영가단내한공연				7	5	3		
44		2/15(토)	리 오스카 와 맨하탄 트랜스퍼 내한공연			8.5	6.5	5.5	4.5		
45		2/18(화)	모스크바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5	4	3	2		
46		2/22(토)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국순회공연		12	8	5	3	2		
47		3/2(일)	윤디리피아노독주회			7	5	3	2		
48		3/5(수)	보컬리스트알자르내한공연			10	8	7	5	3	
49		3/14(금)	금난새와줄리안로이드웨버의'MusicoftheNight'		15	10	8	6	4	2	
50		3/15(토)	얼클루(EarlKlugh)내한공연			8	6	4	3		
51		3/17(월)	아이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6	4	2	1		
52		3/31(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30	20	15	10	7	5
53		4/10(목)	보로딘현악4중주단내한공연			7	5	3	2		
54		4/20(일)	랑랑피아노리사이틀			6	5	4	3		
55		5/18(일)	탈리히 현악4중주단 내한공연			6	4	3	2		
56		5/19(월)	유키구라모토 5주년 기념 내한공연				7	5	3		
57		5/21(수)	다비드 게링가스 첼로 독주회			7	5	4	3	2	

58	6/4(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침머만 내한공연		12	9	7	5	3	
59	6/6(금)	클로에헨슬립바이올린리사이틀		7	5	3	2		
60	7/17(목)	프란체스카 페다치 & 안드레아 밤바체	15	6	4	3	2	1	
61	7/20(일)	곤잘로루발카바와데이빗산체스퀼렛내한공연		7	5	3	2		
62	8/25(월)	턱&패티내한공연		8	6	5	3		
63	8/30(토)	유럽국립오페라단주역가수초청갈라콘서트	12	8	6	4	2		
64	9/7(일)	보리스베레조프스키-베토벤협주곡전국연주회		9	7	5	3		
65	9/8(월)	바이로이트페스티벌챔버오케스트라내한연주회		9	5	3	1		
66	10/1(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초청공연		14	12	10	8	6	4
67	10/2(목)	키예브 색소폰 콰르텟 내한공연		5	4	3	2		
68	10/4(토)	소프라노이네싸갈란테내한공연		8	6	4	2		
69	10/17(금)	테너페터슈라이어독창회		9	7	5	3		
70	10/19(일)	파블로지글러트리오&이지내한공연		8	6	4	2		
71	10/27(월)	유리 바쉬메트, 세르게이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8	6	4	2		
72	10/29(수)	스타니슬라브부닌피아노독주회		9	7	5	3		
73	10/31(금)	피아니스트다케시가케하시초청연주회		7	5	3	2		
74	11/5(수)	요요마첼로독주회	15	12	9	6	4		
75	11/6(목)	룩셈부르크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10	8	5	3		
76	11/16(일)	피아니스트당타이손독주회		7	5	4	3		
77	11/24(월)	바리톤드미트리흐보로스토프스키독창회		7	5	3	2		
78	11/26(수)	베를린방송교향악단내한공연		16	12	8	6	4	
79	12/2(화)	CBS 터키국립합창단초청음악회		5	3	2	1		
80	12/5(금)	테너살바토레리치트라초청공연		8	6	4	2		
81	12/18(목)	케니가넷내한공연		7	5	4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4	8.7	6.4	4.6	3	3.5	4.5
82	1/7(수)	스테판코바세비치피아노리사이틀		7	5	4	3		
83	1/11(일)	우크라이나 주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5	3	2		
84	1/15(목)	비엔나슈트라우스페스티벌ORC초청공연		9	7	5	3		
85	1/17(토)	비엔나슈트라우스페스티벌ORC초청공연	10	9	7	6	4	2	
86	1/30(금)	마르크앙드레아몰렝피아노리사이틀		7	5	4	3		
87	2/1(일)	첼로빅4콘서트		9	7	5	3		
88	2/3(화)	오보이스트알브레히트마이어초청신년음악회		5	3	2	1		
89	2/11(수)	다니엘내한공연		6	5	4	3		
90	2/12(목)	루마니아아쉬필하모닉ORC초청내한공연		6	5	4	3		
91	2/15(일)	알파네비안코&델모나코앙상블		7	5	3	2		
92	2/17(화)	기돈크레머&크레메라타발티카초청공연		10	8	6	4	3	
93	2/28(토)	소프라노 카타리 리치아렐리 오페라 아리아의 밤		8	6	4	3		
94	3/4(목)	바리톤브린터펠리사이틀		10	8	5	3		
95	3/17(수)	테너이안보스트리지리사이틀		10	8	5	3		
96	3/20(토)	장영주&베를린필6중주초청공연		10	8	6	4	3	
97	3/21(일)	매트하이모비치바흐무반주전국연주회		7	5	4	3		
98	3/27(토)	롤랑디용클래식기타콘서트		6	5	3			
99	4/13(화)	피터야블론스키피아노리사이틀		7	5	3			
100	4/27(화)	파질세이첫피아노리사이틀		7	5	4	3		
101	5/6(목)	랑랑피아노독주회		7	5	4	3		
102	5/8(토)	에로리카트리오내한공연		7	5	3	2		
103	5/13(목)	이다헨델바이올린리사이틀		7	5	3			
104	5/27(목)	미국브리검영콘서트콰이어초청공연		2	1				
105	6/6(일)	야나첵챔버오케스트라초청공연		6	5	3	2		
106	6/12(토)	바르사바필하모닉ORC내한공연	18	15	12	10	7	5	3
107	6/15(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남성합창단 내한공연		5	3	2			
108	6/23(수)	테너마르티누치,소프라노조반나카슬라듀오콘서트	30	20	15	10	7		
109	6/24(목)	요요마와실크로드앙상블	18	14	11	9	6	3	
110	6/26(토)	미샤 마이스키와 백혜선 듀오 콘서트		8	6	4	3	2	
111	7/2(금)	베를린필12첼리스트초청공연		10	8	6	4	2	
112	8/28(토)	2004유럽오페라단주역가수초청갈라콘서트	12	8	6	4	2		
113	9/5(일)	리카르도무티&라스칼라필하모닉내한공연	30	24	18	12	8	5	3
114	9/8(수)	프레디켄프첫피아노리사이틀		7	5	4	3		
115	9/14(화)	소프라노바바라보니리사이틀		10	8	5	3		
116	9/16(목)	조슈아벨바이올린리사이틀		7	5	3			
117	9/17(금)	탈라스스콜라스내한공연		7	5	3	2		
118	10/3(일)	데이빗러셀초청기타연주회		7	5	4	3		
119	10/13(수)	도쿄스트링콰르텟초청연주회		8	6	5	3		
120	10/15(금)	로린마젤이끄는뉴욕필하모닉초청내한공연		20	15	10	7	4	
121	10/21(목)	막심벤게로프바이올린리사이틀		10	8	5	3		

122	11/7(일)	체코브루노교향악단내한공연		6	4	2			
123	11/13(토)	보리스베레조프스키피아노연주회		8	6	4	3		
124	11/30(화)	오데사 소년소녀 합창단 내한공연		6	5	4	3	2	
125	12/2(목)	원헌 심포니 ORC 내한공연	15	12	9	6	4		
126	12/5(일)	플루티스트 막귀엘 & 지휘자 베른트 그라트볼 초청		5	3	2	1		
127	12/5(일)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2004 내한공연		6	5	4	3	2	
128	12/11(토)	가디너 & 몬테베르디, 잉글리쉬 바로크 초청		10	8	6	4	3	
129	12/29(일)	미도리바이올린리사이틀		7	5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9	8.7	6.5	4.7	3.4	3
130	6/1(수)	레온플라이서피아노독주회		5	3	2			
131	6/2(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16	14	12	8	4	
132	6/14(화)	미하일플레트노프피아노리사이틀		9	7	5	3		
133	7/6(수)	프라하심포니오케스트라내한공연	15	12	9	6	4		
134	7/8(금)	소지로내한공연		8	5	3			
135	7/28(목)	소피아솔리스트챔버오케스트라초청내한공연		6	5	3			
136	8/18(목)	장한나&베를린필하모닉시포니에타		20	16	10	8	5	
137	9/13(화)	포에바라캄페즈	13	11	8	5	3		
138	9/25(일)	크리스토퍼파크닝기타콘서트		7	5	3			
139	9/30(금)	호세카레라스리사이틀	25	20	15	10	5		
140	10/6(목)	이보포고엘리치피아노독주회		8	6	5	3		
141	10/11(화)	보로딘현악4중주단초청음악회		8	5	4	3	2	
142	10/18(화)	이반피셔와부다페스트페스티발오케스트라		20	16	12	8	5	
143	10/19(수)	유리 바쉬메트 & 모스크바 솔로리스트 초청		7	5	3	2		
144	10/22(토)	로메로스기타과르텟리사이틀		7	5	3			
145	11/4(금)	가주히토야마시타기타독주회		7	5	3			
146	11/5(토)	페터슈라이어고별독창회		9	7	5	3		
147	11/8(화)	베를린필하모닉초청공연	45	35	25	15	9		
148	11/13(일)	리사오노첫내한공연		12	9	7	5	3	
149	11/17(목)	요요마독주회		14	12	10	7	4	
150	11/20(일)	헝가리부다페스트오페라타악어터오케스트라		6	4	2			
151	11/24(목)	앤드류토마스초청특별연주회		7	5	3	1		
152	11/26(토)	안젤라게오르규독창회		17	13	11	8.8	5.5	
153	11/30(수)	당 타이 손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의 밤		9	7	5	3		
154	12/6(화)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초청		8	6	4	2		
155	12/13(화)	막심솔로피아노콘서트		12	9	6	3		
156	12/14(수)	자끄루시예트리오내한공연	10	8	6	4	3		
157	12/17(토)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7.7	5.5	3			
158	12/28(수)	상트페테르부르크심포니내한공연	20	16	12	8	5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7	12	9	6.3	4.9	4.5
159	1/17(화)	빈소년합창단내한공연	10	8	5	3			
160	1/18(수)	존오코내한공연		5	4	3	2		
161	2/10(금)	츄추는콘트라바스내한공연		8	6	4	3		
162	2/11(토)	데이빗란츠,팅스데드&럼블내한공연	10	8	7	5	3		
163	2/12(일)	첼로빅4콘서트		12	9	6	3		
164	2/26(일)	프랑크푸르트심포니내한공연	15	12	9	6	3		
165	3/4(토)	차이나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18	15	12	10	8		
166	3/12(일)	보리스베레조프스키와라흐마니노프		10	8	6	4		
167	3/19(일)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10년만의내한공연		25	20	15	9	5	
168	3/28(화)	캐나다연브라스내한공연	9	7	5	3			
169	3/30(목)	체칠리아바르톨리&정명훈,거장들의만남	33	28	22	17	11	7.7	
170	3/31(금)	엡솔루트리오2006내한공연		8	6	5	4	3	
171	4/8(토)	예프게니키신피아노리사이틀		16	12	8	5		
172	4/30(일)	이무치치내한공연	11	9	7				
173	5/17(수)	스타니스라브부닌&바이에른챔버오케스트라	12	9	6	4	2		
174	5/20(토)	알반베르크현악사중주단내한공연		7	6	4			
175	5/30(화)	길사함트리오		12	9	6	4		
176	6/3(토)	힐러리한바이올린리사이틀		8	6	5	3		
177	6/15(목)	야나ček챔버오케스트라초청내한공연		7	5	3			
178	6/18(일)	안네-소피무터바이올린리사이틀		16	12	8	5		
179	6/20(화)	NHK교향악단내한공연	22	18	13	5	2.5	1	
180	6/24(토)	배리더글러스피아노리사이틀		7	5	3			
181	7/2(일)	조지윈스턴피아노솔로콘서트	12	9	7	5	3		
182	7/15(토)	베를린필12첼리스트내한공연	12	10	8	6	4		
183	7/19(수)	라이프치히계반트하우스바흐오케스트라내한공연	11	9	6	4	2		
184	9/1(금)	니콜라스알트슈테트내한공연		8	5	4	3	2	

185	9/10(일)	유키구라모토내한공연		10	8	5	3				
186	9/21(목)	빈필하모닉내한공연			40	30	20	10	5		
187	9/28(목)	이네싸갈란테내한공연			7	5	3				
188	9/30(토)	아야코우에하라피아노리사이틀			7	5	3				
189	10/1(일)	다니엘하딩,라르스포그트&말러첼로오케스트라			14	11	8	5	3		
190	10/10(화)	신영옥,모차르트오페라오케스트라&빈-베를린앙상블내한		20	16	10	6	4			
191	10/21(토)	안젤라유이트첼내한피아노리사이틀			7	5	3				
192	10/22(일)	BBC심포니오케스트라내한공연			16	12	8	5	3		
193	10/29(일)	나고야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6	4	2				
194	10/31(화)	슈투트가르트체임버합창단내한공연		10	8	6	4	3			
195	11/1(수)	리사오노내한공연			12	9	7	5			
196	11/8(수)	상트페테르부르크필하모닉초청공연			14	12	9	6	4		
197	11/9(목)	미클로스펠레니첼로독주회			8.8	6.6	5.5	3.3			
198	11/12(일)	루마니아아쉬필하모닉			7	5	3	2			
199	11/16(목)	뉴욕필하모닉내한공연			25	20	15	8	3		
200	11/18(토)	드레스덴슈타트카펠레내한공연		17	14	11	9.9	7.7	5.5		
201	12/3(일)	조랑린&세종솔로이스츠			8	5	3				
202	12/10(일)	체코소년소녀합창단크리스마스콘서트			6.6	5.5	4.4	3.3			
203	12/13(수)	세르게이트로파노프초청바이올린연주회			8.8	6.6	4.4	3.3			
204	12/16(토)	킹스컬리지합창단내한공연		12	10	8	6	4			
205	12/17(일)	리얼그루프크리스마스콘서트		10	8	6	4	3			
206	12/18(월)	호세카레라스'크리스마스콘서트'		22	18	13	8.8	5.5			
207	12/28(목)	블라디미르크라이네페피아노리사이틀			10	8	5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5	14	11	8.6	6	4.3	3.5	
208	1/27(토)	마커스로버츠트리오내한공연			10	9	7	5	3		
209	1/30(화)	필리핀마드리갈싱어즈와함께하는2007신년음악회			6	5	4	3	2		
210	1/31(수)	임형주&바이에른첼로오케스트라신년음악회		12	9	6	4	3			
211	2/2(금)	미사마이스키첼로리사이틀			10	8	5	3			
212	2/11(일)	퀸데센스색소폰퀸텟내한공연			7	5	3				
213	2/11(일)	도쿄스트링파르티트과광정			8	6	5	3			
214	2/13(화)	레이프오베안스네스내한공연			8	6	5	3			
215	2/22(목)	피아니스트피터폰빈하르트솔로콘서트		6	5	4	3	2			
216	2/28(수)	암스테르담 로얄 콘서트헤보우 스트링 콰르텟			7	5	3	2			
217	3/2(금)	소피아솔리스트첼로오케스트라초청내한공연			6	5	3	2			
218	3/4(일)	드레스덴필하모닉&성심자가합창단내한공연		20	15	10	6	3			
219	3/10(토)	치코리아&게리버튼듀엠펬한공연		11	9	8	7	5			
220	3/11(일)	테너 쥬세페 자코미니 앙코르 내한공연		22	15	10	7	5	3	2	
221	3/13(화)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 내한공연			16	12	8	5			
222	3/15(목)	추초발데스퀼텟내한공연			12	9.9	7.7	5.5	3.3		
223	3/21(수)	중국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내한공연			15	12	9	7	5		
224	3/25(일)	조르디사발과르콩세르드나시옹			15	10	9	6	4		
225	4/28(토)	알렉산더멜니코프피아노리사이틀			7	5	3	2			
226	5/2(수)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초청공연			15	12	9	7	5	4	
227	5/16(수)	사라 장 &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16	12	8	5			
228	5/20(일)	유키구라모토내한공연			8	5	3				
229	5/23(수)	러시아국립오케스트라내한공연			16	12	8	5			
230	5/31(목)	알반베르크현악4중주단초청고별연주회			7	6	4				
231	6/12(화)	라석색소폰과르텟내한공연			7	6	5	4	3		
232	6/22(금)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13	9	7	5	3			
233	6/24(일)	뉴저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초청공연			15	12	9	7	5	3	
234	6/26(화)	슈투트가르트체임버오케스트라내한공연			12	9	7	5	3		
235	7/10(화)	조슈아벨바이올린리사이틀			8	5	3				
236	7/15(일)	베를린필12브라스앙상블첼내한공연			7	5	3				
237	7/15(일)	칸타테도미노벨기예소년합창단내한공연			8	5	3				
238	7/24(화)	체코필하모닉소년소녀합창단내한공연			6	4	3	2			
239	8/23(목)	상하이심포니오케스트라초청공연			15	6	4	2			
240	9/20(목)	빈슈타츠오페라내한공연		45	35	25	15	8			
241	9/30(일)	저먼브라스내한공연			7	5	3				
242	10/3(수)	다비드가레트(데이빗가렛)의사랑의인사			7	5	3				
243	10/9(화)	부다페스트페스티벌오케스트라내한공연			20	16	12	8	4		
244	10/13(토)	콜로라투라의예술-엘리자베스비달			5	4	3	2			
245	10/14(일)	알렉산드르타로피아노독주회			5	4	3	2			
246	10/29(월)	기돈크레머&크레메라타발티카			12	8	4				
247	10/30(화)	카자흐스탄국립교향악단내한공연		12	9	6	3				
248	11/3(토)	슬로박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12	9	6	4	3		

249	11/3(토)	랑랑피아노리사이틀			9	7	5	3			
250	11/7(수)	잉글리쉬챔버오케스트라			12	9	6	4			
251	11/11(일)	스페인카다케스오케스트라내한공연			6	4	2				
252	11/12(월)	파리오케스트라내한공연			23	18	12	6	3		
253	11/13(화)	프랑스리퍼블릭가드심포니오케스트라			10	8	6	4			
254	11/14(수)	호세카레라스내한공연	30	20	15	10	6				
255	12/16(일)	자끄루시에트리오내한공연	12	10	8	6	4				
256	12/22(토)	프라하소년소녀합창단			8	6	4	2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22	14	10	7.6	5.2	3.7	3.2		
257	1/25(금)	바비맥퍼린내한공연		15	12	10	8	6	4		
258	2/20(수)	라베크 자매 초청연주회			7	5	3	2			
259	2/22(금)	안드라스쉬프와미클로스페레니			10	8	6	4			
260	2/24(일)	첼로빅4콘서트			12	9	6	4			
261	2/24(일)	안드라스쉬프피아노리사이틀			12	9	6	4			
262	3/11(화)	바이올리니스트줄리안라클린치내한공연			5	4	3	2			
263	3/13(목)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	16	12	8	5		
264	3/23(일)	무라지 카오리의 <아랑훼즈 협주곡>			8	5	3				
265	3/25(화)	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15	10	7	4			
266	3/26(수)	프라이부르크바로크오케스트라내한공연	12	10	8	6	4				
267	3/29(토)	이무지치실내악단내한공연	12	10	8	6	4				
268	5/1(목)	프라하소년소녀합창단어린이날콘서트			8	6	4	2			
269	5/3(토)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14	11	8	6	4		
270	5/4(일)	헨델페스티벌오케스트라내한공연			12	9	6	4			
271	5/7(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에스트로 정영훈			20	16	12	8	5		
272	6/3(화)	안네소피무터&트론헤임솔로이스츠	20	15	12	7	5				
273	6/4(수)	사라장카오르페우스챔버오케스트라초청연주회			15	12	8	4			
274	7/1(화)	조지윈스턴내한공연	13	9	7	5	3				
275	7/11(금)	베를린12첼리스트내한공연	14	12	9	6	4	3			
276	7/17(목)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바흐오케스트라			10	8	6	3			
277	8/27(수)	블라디미르아쉬케나지&EUYO			15	12	8	5	3		
278	9/6(토)	라이프치히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연주회			15	12	8	5	3		
279	9/10(수)	라스칼라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17	15	12	10	7		
280	9/27(토)	피터비스펠베이베토벤첼로소나타전곡연주회			8	5	3				
281	10/19(토)	사라장&LA필하모닉오케스트라	25	20	16	12	8	5			
282	10/29(수)	베니스바로크오케스트라	12	10	8	6	4				
283	10/30(목)	머레이페라이어피아노리사이틀			12	8	4				
284	11/5(수)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 내한공연			8	6	4	2			
285	11/9(일)	장한나와런던챔버오케스트라			15	12	8	4			
286	11/10(월)	타타르스탄국립전통오케스트라내한공연			15	10	7	5			
287	11/11(화)	아모레퍼시픽과함께하는요요마&캐서린스튜듀오			15	13	10	7	4		
288	11/12(수)	상트페테르부르크필하모닉오케스트라초청연주회			15	13	10	7	4		
289	11/20(수)	베를린필하모닉내한공연			45	37	26	16	7		
290	11/23(일)	암스테르담로알콘서트헤보우스트링과르벳with서혜경			10	8	5	3			
291	12/13(토)	드레스덴심자가합창단크리스마스콘서트			7	5	3				
292	12/14(일)	구스타보두다멜&시몬볼리바르유스오케스트라			16	12	8	4			
293	12/21(일)	조르디사발과르콩세르드나시옹내한공연	15	12	9	6	4				
294	12/22(월)	랑랑피아노리사이틀			10	8	6	4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5	13	10	7.2	5	4.5			
295	1/20(화)	빈슈트라우스페스티벌오케스트라신년음악회			12	9	6	4	3		
296	1/21(수)	빈소년합창단신년음악회			10	8	5	3			
297	1/31(토)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18	14	10	8	5		
298	2/3(화)	빅토리아 코랄 내한공연			7	5	3	2			
299	2/18(수)	윤디리피아노리사이틀			10	8	6	4			
300	3/29(일)	임동혁&노던심포니아내한공연	15	12	9	6	3				
301	4/2(목)	예프게니키신피아노리사이틀			17	14	10	6			
302	5/1(금)	보리스베레조프스키			10	8	6	4			
303	5/3(일)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 내한공연	10	8	6	4	2				
304	5/17(일)	러시아국립볼쇼이합창단내한공연	13	9.9	7.7	5.5	3.3				
305	6/18(목)	워싱턴내셔널심포니			18	14	10	8	5		
306	6/22(월)	러시아노보시비리스크국립극장주역가수초청	10	7	5	3					
307	6/24(수)	조지윈스턴피아노솔로콘서트	12	9	7	5	3				
308	6/30(화)	러시아내셔널오케스트라			18	14	10	8	5		
309	8/5(수)	재독코리아심포니아내한공연	10	7	5	3	1	0.5			
310	9/18(금)	소프라노제시노먼내한공연	22	17	12	8	5				
311	9/27(일)	피아니스트마르틴슈타트펠트리사이틀			6	4	3				

312	9/29(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빈 필하모닉 & 조수미		35	28	20	14	7				
313	10/11(일)	막심모라비차리사이틀		11	9.9	7.7	5.5	3.3				
314	10/13(화)	뉴욕필하모닉내한공연			28	23	15	8	4			
315	10/30(금)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	7	5	3	2	1				
316	10/31(토)	국제 바흐 페스티벌		12	10	8	6	4				
317	11/5(목)	소피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내한공연		20	16	12	7	5				
318	11/8(일)	타타르스탄국립전통오케스트라			15	10	7	5				
319	11/9(월)	프라하합창오케스트라 내한공연			6	4	2					
320	11/10(화)	기돈크레머되기			15	12	8	4				
321	11/20(금)	미사마이스키첼로리사이틀			14	11	8	5				
322	11/22(월)	기타리스트무라지카오리			8	5	3					
323	11/29(월)	막상스라쉬,안드레스아도리앙초청			5	3	2					
324	12/6(일)	프라하소년소녀합창단크리스마스콘서트			8	6	4	2				
325	12/13(일)	피아니스트엘렌그리모리사이틀			8	5	3					
326	12/16(수)	사라장바이올린리사이틀		16	12	9	6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0	15	12	9	6.1	4.3	4.4		
327	1/22(금)	이 무지치 신년 음악회		12	10	8	6	4				
328	1/23(토)	빈소년합창단신년음악회			10	8	5	3				
329	1/28(목)	로랑 코르사 내한공연			9	7	5	3				
330	3/27(토)	안스네스&노르웨이안첸버		13	10	7	5					
331	4/20(화)	월드아트시리즈-요요마&실크로드앙상블			16	14	10	6				
332	4/27(화)	보리스베레조프스키피아노리사이틀		10	8	6	4					
333	5/4(화)	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내한공연			25	20	15	10	7			
334	5/12(수)	드라켄스버그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9	7	5	3				
335	5/16(토)	현대캐피탈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20	16	12	8	5			
336	5/21(금)	모스코바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	16	12	8	5				
337	5/22(토)	엠마누엘파후드,트레버피노크,조나단맨슨			10	8	5	3				
338	5/23(일)	첼리스트 송영훈의 월드 프로젝트		9.9	7.7	5.5	4.4	3.3				
339	5/29(토)	프랑크푸르트방송교향악단내한공연			20	16	12	8	5			
340	6/22(화)	조슈아벨&아카데미오브세인트마틴인더필즈			16	12	8	4				
341	6/23(수)	당타이손피아노리사이틀		9	7	5	3					
342	7/2(금)	베를린필12첼리스트내한공연		15	12	9	6	4	3			
343	7/5(월)	린덴바움페스티벌오케스트라			12	9	6	3				
344	7/11(일)	벨기에소년합창단"칸타데도미노"내한공연			7	5	3					
345	7/15(목)	키오이신포니에타도교내한공연			5	3.5	2					
346	7/30(금)	월드비전2010세계어린이합창제		7	5	3	2					
347	9/3(금)	독일용어원현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내한연주회		15	10	7	5	3				
348	9/17(금)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			28	23	17	11	5			
349	10/3(일)	오보이스트프랑수아를뢰초청연주회		7	5	3	2					
350	10/9(토)	부다페스트페스티벌오케스트라내한공연		17	14	11	7	3				
351	10/15(금)	렌드바이바이올린리사이틀			10	7	5	3				
352	10/25(월)	루체른페스티벌스트링스			10	7	5	3				
353	10/26(화)	현대카드이차크필만리사이틀		20	18	14	10	8				
354	11/1(월)	윤디피아노리사이틀			10	8	6	4				
355	11/4(목)	지휘로만나는벤게로프&서울바로크합주단		20	15	8	3					
356	11/5(금)	피렌체오케스트라내한공연			6	4	2					
357	11/6(토)	알렉산더멜니코프피아노리사이틀			7	5	3	2				
358	11/7(일)	타타르스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20	15	10	5					
359	11/10(수)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	7	5	3					
360	11/13(토)	로열콘서트허바우오케스트라내한공연			42	32	22	12	6			
361	11/15(월)	피아니스트바딤루덴코리사이틀		15	10	7	5	3				
362	11/19(금)	하나SK카드 호세 카레라스 내한 콘서트		25	20	15	10	5				
363	11/21(일)	클리블랜드오케스트라내한공연			28	22	16	11	7			
364	11/28(일)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골딕체프 콘서트		15	10	7	4					
365	12/1(수)	이네사갈란테내한공연			9	6	4	3				
366	12/4(토)	랑랑피아노리사이틀		15	12	9	7	5				
367	12/16(목)	러시아불쇼이극장솔리스트갈라콘서트		12	9	6	3					
368	12/21(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초청공연		10	8	6	4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4	13	9.6	6.5	5	5.4		
369	1/9(일)	류이치사카모토내한공연			16	12	8	5				
370	1/20(목)	빈슈트라우스페스티벌오케스트라신년음악회			12	9	6	4				
371	1/22(토)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0	8	5	3				
372	2/19(토)	유진우고르스키&콘스탄틴리프쉬츠			7	5	3					
373	2/23(수)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13	10	7	5				
374	2/26(토)	테너프란치스코아라이자오페라콘서트		17	13	9.9	7.7	5.5	3.3			

375	3/6(일)	막심트라비차내한공연		11	9.9	7.7	5.5	4.4				
376	3/8(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내한		28	18	12	8	5				
377	3/13(일)	로랑코르사새봄을여는로맨틱콘서트			9	7	5	3				
378	3/19(토)	차이코프스키 스트링 콰르텟 내한		15	12	8	4					
379	4/12(화)	힐러리 한 & 잉글리시 제임버 오케스트라			16	12	9	6	4			
380	4/27(수)	안젤라게오르규내한공연		22	17	13	10	7				
381	5/3(화)	안네 소피 무터 in RECITAL			18	15	10	5				
382	5/7(토)	조수미&아카데미오브에인션트뮤직			25	20	15	10	5			
383	5/8(일)	보리스베레조프스키협주곡콘서트			11	9	7	5				
384	5/13(금)	프랑스생마르크합창단내한공연		8.8	6.6	5.5	3.3					
385	5/15(일)	미사마이스키&FamilyinConcert			16	12	8	5				
386	5/15(일)	미국알라바마합창단내한공연			8	6	4	2				
387	5/17(화)	다니엘리첼로리사이틀			8	6	4					
388	5/18(수)	루카스게뉴서스피아노콘서트			15	12	8	4				
389	5/22(토)	모스코비아첸버오케스트라		12	10	8	6	4				
390	5/25(수)	피터아블론스키피아노리사이틀		12	10	8	6	4				
391	5/30(월)	막심베게로프&서울시립교향악단		15	12	10	8	6				
392	6/11(토)	세르게이 안토노프 내한공연		20	15	10	7	5				
393	6/12(일)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옴치니코프 내한			15	12	8	4				
394	6/16(목)	이무지내한공연		12	10	8	6	4				
395	6/22(수)	슈투트가르트제임버오케스트라내한공연		15	12	10	8	6				
396	6/26(일)	마르틴슈타펠트피아노리사이틀			7	5	3					
397	7/1(금)	볼쇼이극장오페라갈라콘서트		13	9	5						
398	7/14(목)	케임브리지킹스칼리지합창단내한공연			10	7	5	3				
399	8/14(일)	대우증권바렌보임베토벤교향곡		15	12	8	5					
400	9/4(일)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5	10	5						
401	9/15(목)	손열음 & 쓰지이 노부유키		12	10	8	5	3				
402	9/24(토)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피아노 리사이틀			12	8	5	4				
403	9/27(화)	러셀 셔먼 피아노 독주회			9	7	4					
404	9/29(목)	국립합창단 제138호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3	2	1.5	1				
405	9/30(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0회 정기연주회)				6	5	4	3	2		
406	10/2(일)	제임스 골웨이 내한공연			12	8	5	3				
407	10/3(월)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Carnival of Bass		10	8	5	3					
408	10/6(목)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한,호 수교50주년 기념음악회		10	8	5	3					
409	10/8(토)	리처드 용재 오닐 (기도)			15	12	8	4				
410	10/20(목)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III			10	7	5	3	1			
411	10/21(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1회 정기연주회)				6	5	4	3	2		
412	10/22(토)	2011 프라하 필하모니아 내한공연		25	20	15	10	5				
413	10/29(토)	머레이 페라이어 in RECITAL			15	12	8	5				
414	10/30(일)	제4회 국제 바흐 페스티벌 (르네 아콕스 내한공연)										
415	11/8(화)	상트페테르부르크필하모닉오케스트라			25	20	14	8	4			
416	11/10(목)	The Great 38 Series - 브람스 2011			4	3					3층석=2	
417	11/11(금)	서울시향의말러2011시리즈 VI				5	3	2	1			
418	11/12(토)	서울첼버오케스트라 79회 정기연주회				5	3	2	1			
419	11/13(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25	20	15	10	6				
420	11/15(화)	베를린필하모닉내한공연		45	40	32	21	11	5			
421	11/16(수)	아쉬케나지&시드니 필포니(미샤 마이스키 협연)			25	18	12	8	4			
422	11/17(목)	아쉬케나지&시드니 심포니 (에프게니 키신 협연)		30	22	16	11					
423	11/29(화)	sejong soloists 2011 내한공연										
424	11/30(수)	2011 앙상블 베를린 내한공연			7	5	2					
425	12/9(금)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IV			10	7	5	3	1			
426	12/29(목)	서울시향 송년음악회-베토벤 합창			12	9	6	4	2			
427	12/30(금)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12	9	6	4	2			
428	12/31(토)	2011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7	5					3층석=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8	13	9.4	6.7	4.6	2.8	2		
429	1/18(수)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5	9	6	4				
430	2/4(토)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5	12	10	7	5				
431	2/22(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5 로열 콘서트허바우 & 정명훈		40	33	23	14	7				
432	2/23(목)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성 토마스 합창단			18	12	8	5	3			
433	2/27(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데니스 마추예프 협연)			30	20	12	8	6			
434	2/28(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사라 장 협연)			35	25	18	12	7			
435	3/1(목)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			6.6	4.4	2.2	1.1				
436	3/4(일)	리사 오노 내한공연			15	10	7	4				
437	3/12(월)	호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내한공연			17	14	10	6	3			
438	3/17(토)	빈 필하모닉 수석 플루티스트 발터 아우어 초청음악회		15	12	10						

439	3/21(수)	월드비바 로즈장의 Nouveau-Classics 콘서트	12	9	6	3	2			
440	4/8(일)	로린 마젤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25	20	15	10	7		
441	5/1(화)	막심 벤게로프 리사이틀		10	7	5	3			
442	5/10(목)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 콘서트	15	10	7	4				
443	5/15(화)	피터 비스펠베이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전국 연주회		10	8	5	3			
444	5/27(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 손열음		16	12	9	6	4		
445	6/11(월)	파보 예르비&프라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힐러리 한)		22	14	11	8	5		
446	6/21(목)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20	16	12	8	5		
447	7/6(금)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12	9.9	7.7	5.5	4.4			
448	7/7(토)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내한공연	15	13	10	8				
449	8/23(목)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20	15	10	5	2		
450	9/7(금)	2012 프라하필하모니아 내한공연		25	20	15	10	5		
451	9/13(목)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리사이틀		11	7	5	3			
452	10/17(수)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15	12	8	5			
453	10/23(화)	페도세예프 &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20	16	12	8	5		
454	10/31(수)	윤디 피아노 리사이틀		11	9	7	5			
455	11/7(수)	발레리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27	22	17	12	7		
456	11/11(화)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골디체프 콘서트		15	12	8	4			
457	11/13(화)	요요마 첼로 리사이틀		18	14	10	5			
458	11/17(토)	라두 루푸 피아노 리사이틀		13	10	7	5			
459	11/19(월)	라두 루푸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5	12	9	6			
460	11/20(화)	마리스 안손스&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35	25	18	12	7		
461	11/24(토)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20	16	12	8	5		
462	11/28(수)	랑랑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6	12	9	6			
463	12/03(월)	보니푸에리 해피크리스마스 콘서트		9	7	5	3			
464	12/09(일)	링컨센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내한 공연		5	3					
465	12/09(일)	세이트 로렌스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5	3					
466	12/11(화)	글린카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6	4					
467	12/16(일)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6	12	9	6			
468	12/22(토)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특별내한공연		10	8	6	4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8	16	12	9.1	6	4.9		

(단위 : 10,000원)

부 록 3

< 2002-201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국내 아티스트 공연 좌석등급 및 티켓가격 >

번호	연도	공연일	공연명	좌석등급 및 티켓 가격								기타
				VVIP	VIP	R	S	A	B	C	D	
1	2002	1/18(금)	제7회신년오페라갈라콘서트			5	4	3	2			
2		1/21(월)	서울팝스2002신년음악회			4	3	2	1			
3		1/22(화)	금난새와함께하는2002신년음악회				2.5	1.5	1			
4		1/24(목)	KBS신년음악회'왈츠로여는신년음악회'				2	0.8				가족석=1.5
5		1/27(일)	스쿨클래식2002"바이올린과친구들"				2	1				가족석=1.5
6		1/28(월)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정기연주회			6	4	2.5	1.5	1		
7		2/05(화)	코리안 심포니 "이영조 작곡 칸타타"			3	2	1.5	1			
8		2/8(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	3.3	2.5	1.6		학생석=0.8
9		2/20(수)	국립합창단2002월드컵D-100일축하음악회			3	2	1.5	1.2	0.8		
10		2/21(목)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11		3/11(월)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8	5	3	2			
12		3/15(금)	김영준바이올린독주회				2	1	0.5			
13		3/18(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5	3	2	1			
14		3/19(화)	서울시교향악단제616회정기연주회			3	2	1	0.5			
15		3/22(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2	0.8		
16		3/26(화)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3	2	1.5	1			
17		4/15(월)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3	2	1				
18		4/22(월)	큰빛남성코랄공연			5	3	2	1			
19		5/2(목)	서울시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0.5			
20		5/4(토)	금난새의어린이를위한클래식			3	2	1				
21		5/5(일)	아빠와함께하는클래식2002				2	1				
22		5/11(토)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2	1	0.5			
23		5/17(금)	한국의명인명연주회			7	5	3	2			
24		5/23(목)	문용희,이대욱듀오피아노리사이틀			5	4	3	2			
25		5/24(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학생석=1
26		5/29(수)	소프라노백소영,바리톤이재환조인트콘서트				2	1				
27		6/1(토)	안양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	1	0.5			
28		6/2(일)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5			
29		6/11(화)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정기연주회				2	1				
30		6/17(월)	부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	1	0.5			
31		6/22(토)	양성식 & 양성원의 낭만의 향기 속으로			3	2	1				
32		6/23(일)	코리아필 정기연주회				2	1.5	1	0.5		
33		6/24(월)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3	2	1			
34		7/18(목)	월드컵 성공기념 대음악회 '영광의 그날'				3	2	1			
35		7/24(수)	우리 아버지 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3	2	1			
36		7/25(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	2	1.5	1			
37		7/27(토)	함신익, 대전시향 & 비스펠베이				4	3	2			
38		8/3(토)	금난새와 함께하는 여름가족음악회				3	2	1			가족석=1
39		8/3(토)	2002년 여름 스쿨클래식				1.5	1				
40		8/14(수)	한상우의 클래식 산책				2	1				
41		8/17(토)	2002 베스트 클래식 "Great Composers"				1.5	1				
42		8/28(수)	한국 클라리넷 페스티벌				1.2	0.7				
43		9/5(목)	강충모 & 이경선의 9월의 낭만이야기			3	2	1				
44		9/6(금)	말러 교향곡 1999-2003				2	1.5				
45		9/9(월)	안희복 오페라단 정기 연주회				3	2	1			
46		9/11(수)	서울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3	2	1	0.5			
47		9/12(목)	수원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1.5	1	0.5			
48		9/23(월)	소프라노김희정독창회				3	2	1			
49		10/12(토)	임미정 피아노 독주회			4	3	2	1			
50		10/27(일)	피호영 바이올린 독주회			4	3	2	1			
51		10/31(목)	김정원 & 백소영의 늦가을에 듣는 낭만			3	2	1				
52		11/1(금)	프리마돈나앙상블정기연주회			5	4	2				
53		11/7(목)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정기연주회			3	2	1				
54		11/11(월)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55		11/18(월)	성남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5	3	1	0.5			
56		11/26(화)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1			
57		12/11(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02 송년음악회'				4	3	2			
58		12/16(월)	국립합창단 정기공연			2	1.5	1.2	0.8	0.5		

59		12/28(토)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5	4	3	2			
60		12/29(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2002 송년 가족 음악회			4	2.5	1.5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4.08	2.7	1.7	1.2	1		
61		1/4(토)	정명훈과 함께 여는 '2003 신년음악회		5	4	3	2			
62		1/24(금)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	2	1	0.5			
63		1/25(토)	스쿨클래식 2003 - 목관악기 모여라			2	1				
64		1/25(토)	금난새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4	2.5	1.5			
65		2/8(토)	작곡가 임금수 - 창작가곡의 밤		5	3	2	1			
66		2/17(월)	금난새와유라시아필의러시아페스티벌			4	2	1			
67		2/24(월)	다니엘리첼로리사이틀			5	3	2			
68		2/28(금)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4	3	2	1		
69		3/7(금)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	2	1	0.7			
70		3/16(일)	개누인앙상블정기연주회			2	1				
71		4/1(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5	4	3	2	1		
72		4/5(토)	금난새와유라시아필의'위대한베토벤'			3	2	1			
73		4/11(금)	3 솔로리스트 콘서트		4	3	2	1			
74		4/12(토)	국립합창단'제101회신춘음악회'		2	1.5	1.2	0.8	0.5		
75		4/12(토)	신작가곡의밤'우리시우리노래'		6	5	3	2			
76		4/17(목)	코리아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77		4/18(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	3.3	2.5	1.6	0.8		
78		4/24(목)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밤			3	2	1			
79		4/26(토)	CBS 부활절 기념음악회		5	3	2	1			
80		4/28(월)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3	2	1	0.7			
81		5/14(수)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5	3	2	1			
82		5/15(목)	한국 오라토리오 심어즈 정기연주회			3	2	1			
83		5/17(토)	청소년음악회			1.2	0.7				
84		5/22(목)	수원시립합창단제86회정기연주회		3	2	1	0.5			
85		5/23(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3.5	2.8	2	1.2	0.8	
86		5/29(목)	코리아심포니 정기연주회		3	2	1.5	1			
87		6/7(토)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	2	1			
88		6/10(화)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정기연주회			2	1				
89		6/12(목)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	2	1			
90		6/13(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4	3	2	1		
91	2003	6/16(금)	오라토리오 합창단 제32회 정기연주회		6	4	2.5	1.5	1		
92		6/29(일)	프라임필정기연주회			3	2	1			
93		7/14(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5	4	3	2	1		
94		7/27(일)	대전시향, 악설 스트라우스의 마스터 시리즈			3	2	1			
95		7/28(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	1	0.5			
96		7/29(화)	코리아심포니 정기연주회			3	2	1			
97		7/30(수)	중앙일보 여름음악회		5	4	3	2			
98		7/31(목)	서울 심포니에타 - 청소년음악회			2	1	0.5			
99		8/1(금)	서울팝소악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4	3	2			
100		8/2(토)	스쿨클래식2003			1.5	1				
101		8/6(수)	2003 동아일보 청소년 음악회			1.5	1.2	0.8			
102		8/12(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5	1.2	0.8			
103		8/23(토)	청소년음악회 '유준상의 스트링 스토리'			2	1.5	1			
104		8/26(화)	서울심포니정기연주회			5	2				
105		9/4(목)	한국원로교향악단창단연주회		5	3	2	1			
106		9/14(일)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정기연주회		7	5	3.5	2.5	1.5		
107		9/15(월)	푸른소리성악연주회정기연주회		5	3	2	1			
108		9/18(목)	소프라노홍혜경독창회	12	10	8	6	4			
109		9/19(금)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5	2.5	1.5	1			
110		9/26(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4	3.3	2.5	1.6	0.8		
111		9/28(일)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112		10/3(금)	금난새의러시아페스티벌			4	2	1			
113		10/5(일)	조수미 오페라 콘서트	20	16	12	7				
114		10/6(월)	수원시향 정기연주회		3	2	1	0.5			
115		10/7(화)	안양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1	0.5				
116		10/9(목)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3.5	2.5	1.5	1			
117		10/10(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	3.3	2.5	1.6	0.8		
118		10/13(월)	부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2	1	0.5			
119		10/15(수)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6	5	3	2			
120		10/16(목)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5	4	3	2	1		
121		10/20(월)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회			3	2	1.5	1		
122		10/21(화)	4DivasofViolin			4	3	2	1		

123	10/23(목)	서울시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			
124	10/24(금)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5	3	2	1		
125	11/1(토)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126	11/2(일)	신상준바이올린독주회				2	1			
127	11/7(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2	0.8	
128	11/9(일)	소프라노 이지은 독창회			5	3	2			
129	11/10(월)	백혜선피아노 독주회			5	4	3	2		
130	11/14(금)	소프라노 신영옥 독창회	12	10	8	6	4			
131	11/17(월)	테너임정근독창회			7	5	3	2	1	
132	11/21(금)	이병우, 박종훈의 'Sweet Music'			4	3	2	1		
133	11/22(토)	바이올리니스트이유라독주회			6	4	3	2		
134	11/27(목)	한국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2	1.5	1		
135	12/9(화)	국립합창단송년음악회				2	1.2	0.8		
136	12/12(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137	12/13(토)	베토벤교향곡전곡연주회				4	2	1		
138	12/19(금)	공감!클래식'맛'과'멋'	6	5	4	3	2			
139	12/20(토)	강충모 바흐 전곡시리즈				3	2			
140	12/23(화)	김대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4	3	2	1			
141	12/24(수)	서울신포니에타 '화이트드림콘서트'				3	2	1		
142	12/25(목)	금난새 Happy Christmas & Farewell 2003!				4	2.5	1.5		
143	12/28(일)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5	2.5	1.5	1		
144	12/30(화)	임형주콘서트 'SilverRain'	10	8	6	4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2	5.14	3.3	2.2	1.4	1	0.8	
145	1/6(화)	서울내셔널심포니 '04 신년음악회			5	3	2			
146	1/8(목)	기획공연-2004신년음악회			5	4	3			
147	1/9(금)	서울시향2004년신년음악회			3.5	2.5	1.5	1		
148	1/10(토)	금난새와함께여는2004				4	2.5	1.5		
149	1/28(수)	청소년음악회 - 먼나라 이웃나라 프랑스				2	1.5	1		
150	2/4(수)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5	2.5	1.5	1		
151	2/8(일)	2004스쿨클래식				2	1			
152	2/19(목)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2	1.5	0.8		
153	2/20(금)	서울신포니에타				3	2	1		
154	2/21(토)	임동혁피아노리사이틀		7	5	3				
155	2/25(수)	프라임필정기연주회			5	3	2	1		
156	2/27(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157	3/6(토)	CBS - 'The Classics'			5	4	3			
158	3/9(화)	포커스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3	2	1			
159	3/11(목)	경기도립오케스트라신춘음악회			3	2	1.5	1		
160	3/12(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5	0.8
161	3/23(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5	3	2	1		
162	3/24(수)	이미경&이미주자매콘서트			4	3	2			
163	3/25(목)	서울원드앙상블30주년기념음악회				3	2	1		
164	3/28(일)	금난새의 테마가 있는 음악회 I			4	2	1			
165	3/30(화)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귀네트존스내한공연			3	2	1.5	1		
166	3/31(수)	박종훈피아노독주회			5	4	3	2		
167	4/14(수)	한국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4	3	2	1	
168	4/16(금)	부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		
169	4/20(화)	김민바이올린독주회			5	3	2	1		
170	4/23(금)	프라임필정기연주회				3	2	1		
171	4/25(일)	임형주콘서트	10	8	6	4	3			
172	4/29(목)	서울모데트합창단정기연주회			7	5	3	2	1	
173	4/30(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5	0.8
174	5/5(수)	어린이날음악회			4	3	2			
175	5/7(금)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176	5/8(토)	금난새의 테마가 있는 음악회				4	2	1		
177	5/12(수)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정기연주회				3	2	1		
178	5/18(화)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1	0.8	0.5		
179	5/19(수)	수원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	0.5		
180	5/23(일)	코리아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181	6/5(토)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3	2	1		
182	6/8(화)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183	6/10(목)	서울그랜드오페라단스타콘서트		7	5	3	2			
184	6/22(화)	프라임필정기연주회				3	2	1		
185	6/27(일)	서울오라토리오정기연주회			8	6	4	2.5	1.5	
186	7/24(토)	한국클라리넷페스티벌				1.2	0.7			

187	7/25(일)	대전시향서울특별연주회			3	2	1				
188	7/27(화)	부천필 심포닉 콘서트			3	2	1				
189	7/29(목)	2004코리안심포니데뷔콘서트				2	1				
190	7/30(금)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3	2	1			
191	8/1(일)	스쿨클래식-강중모피아노수업				1.5	1				
192	8/8(일)	과르텟21연주회			3	2	1				
193	8/11(수)	코리안심포니특별기획연주회			3	2	1.5	1			
194	8/12(목)	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회			1.5	1.2	1				
195	8/22(일)	세종목관첼배우상불청소년을위한음악회				1.5	1				
196	8/25(수)	첼리스트장한나내한공연	13	10	8	6	4	3			
197	8/26(목)	목관앙상블기념연주회			2		1				
198	8/27(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	3.3	2.5	1.6	0.8		
199	9/2(목)	객석창간20주년기념 'CoverStory'	10	6	4	2	1				
200	9/4(토)	정트리오10년만의해후	15	13	9	5	3				
201	9/7(화)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 소프라노 유미숙 초청			5	3	2	1			
202	9/15(수)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3	2	1.5	1			
203	9/22(수)	피아니스트양방연내한공연			8	6	4	2			
204	10/7(목)	한국심포니 오페라아리아의 밤			5	4	3	2			
205	10/10(일)	서울심포니정기연주회			10	7	5				
206	10/14(목)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207	10/20(토)	강동석의희망콘서트			7	5	3	2			
208	11/14(일)	김남윤&이경숙듀오콘서트			4	3	2	1			
209	11/24(수)	서울레이디스싱어즈정기연주회			3	2	1.5	1	0.7		
210	11/25(목)	경기도립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2.5	1.5	1				
211	11/27(토)	한국원로교향악단연주회			5	4	3	2	0.5		
212	12/7(화)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5	3	2	1			
213	12/8(수)	프라임필 2004 송년음악회			15	10	5				
214	12/12(일)	2004 금난새 송년가족음악회			5	3	1				
215	12/14(화)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 정기연주회			8	6	4	2.5	1.5		
216	12/16(목)	김대진 모차르트 협주곡 시리즈			5	4	3	2	1		
217	12/17(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4	3	2	1		
218	12/23(목)	기획공연-크리스마스콘서트			5	4	3	2	1		
219	12/25(토)	하피스트 관악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3	2				
220	12/26(일)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3	2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2	5.19	3.4	2.2	1.5	1.2	0.8		
221	1/1(토)	2005 신년음악회			5	4	3				
222	6/2(목)	서울바로크합주단연주회	7		5	3	2				
223	7/1(금)	서울로알심포니정기연주회			5	3	2	1			
224	7/7(목)	서민정김태형초청연주회-KBS교향악단			4	3	2	1			
225	7/10(일)	코리아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226	7/12(화)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1			
227	7/14(목)	서울오라토리오정기연주회			10	7	4	2.5	1.5		
228	7/17(일)	서울 클래식 플레이어즈 'Absolute Beethoven'			5	3	2				
229	7/20(수)	리처드용재오닐&유라시안필	10		8	6	4	2			
230	7/23(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231	7/29(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	3.3	2.5	1.6	0.8		
232	8/2(화)	눈으로듣는클래식				1.2	0.8				
233	8/4(목)	서울신문사 - 청소년음악회			3	2	1				
234	8/5(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	2	1.5	1			
235	8/6(토)	스쿨클래식-서곡으로듣는모차르트				2	1				
236	8/7(일)	유라시안필하모닉정기연주회			7	4	3	2			
237	8/24(수)	JK앙상블과함께하는청소년해설음악회				1.5	1.2	1			
238	8/25(목)	청소년을위한음악춘추실내악콘서트				2	1.5	1			
239	8/27(토)	유럽오페라단주역초청갈라콘서트			7	5	3	2			
240	9/2(금)	이경선초청프라임필연주회	5		3	2	1				
241	9/3(토)	테너 안형일 노래인생 콘서트			5	3	1				
242	9/6(화)	서울시향 가을기획 시리즈			3	2	1	0.5			
243	9/7(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	2	1.5	1			
244	9/8(목)	수원시향정기연주회			3	2	1	0.5			
245	9/13(수)	백건우피아노리사이틀			8	5	3				
246	9/15(목)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	2	1				
247	9/16(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2	0.8	
248	10/4(화)	슈베르티아데withOrchestra			5	3	2				
249	10/5(수)	김지연의스토리가있는클래식여정			7	5	3	2			
250	10/7(금)	심포닉시리즈-부천필의브루크너				3	2				

251	10/12(수)	바리톤박수길45주년기념음악회			7	5	3	2			
252	10/20(목)	서울바로크합주단대연주	10		6	4	2				
253	10/22(토)	수원시향정기연주회			3	2	1	0.5			
254	10/26(수)	강동석의희망콘서트			7	5	3	2			
255	10/28(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256	11/20(일)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정기연주회	10		4	2					
257	11/22(화)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258	11/23(수)	서울시향가을기획시리즈	3		2	1	0.5				
259	11/27(일)	마드리실내악단정기연주회			3	2	1				
260	11/29(화)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정기연주회			5	3	2				
261	12/1(목)	한국남성합창단기념음악회			5	3	2	1			
262	12/3(토)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263	12/4(일)	포스메가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3	2					
264	12/9(금)	CBS음악회-헨델의메시아			5	4	3	2			
265	12/15(목)	코리아심포니창단20주년기념음악회	10		6	3	1				
266	12/17(토)	소프라노조수미콘서트			15	12	10	8	6		
267	12/18(일)	서울튜티앙상블정기연주회			5	3	2	1			
268	12/24(화)	경기도립오케스트라크리스마스이브콘서트			5	4	3	2			
269	12/27(화)	서울시향송년팝스콘서트	5		4	3	2	1			
270	12/29(목)	서울바로크합주단창단40주년송년음악회	7		5	3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7.4	5.33	3.4	2.1	1.6	2.1	0.8
271	1/5(목)	2006 신년 음악회			5	4	3	2			
272	1/15(일)	임동혁피아노리사이틀			8	5	3				
273	1/15(일)	스쿨클래식'미뉴엣과왈츠'				2	1				
274	1/19(목)	심포닉시리즈-코리아심포니의바르토크				3	2				
275	1/20(금)	정명훈과서울시향의베토벤사이클	12		10	5	3	2	1		
276	1/21(토)	허승연피아노독주회			5	3	2				
277	1/21(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278	1/23(월)	금난새와유라시안필하모닉의신년음악회	7		5	3	2	1			
279	1/27(금)	프리모칸덴테신년음악회			5	3	1				
280	2/16(목)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	2	1				
281	2/18(토)	클래식동화음악회				3	2				
282	2/19(일)	하피스트 광정의 Romantic Conce			5	3	2				
283	2/22(수)	경기도립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284	2/23(목)	교과서에나오는클래식음악특별공연					2.5	1.5			
285	2/24(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2	1	
286	3/2(목)	서울 그랜드 오페라 스타콘서트	15		10	7	5	3			
287	3/8(수)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7	5	3	2	1		
288	3/9(목)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	2	1				
289	3/11(토)	2006유라시안필정기연주회	8		6	4	2				
290	3/18(토)	바흐 칸타타 전국 연주시리즈	10		7	5	3	1			
291	3/18(토)	조트리오연주회	7		5	3	2				
292	3/23(목)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293	4/28(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294	4/29(토)	허트리오리사이틀			5	3	2				
295	5/4(목)	백혜선이 들려주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5.5	4.4	3.3				
296	5/7(일)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297	5/10(수)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6		5	3	1				
298	5/13(토)	김대진의'청소년음악회'				1.5	1				
299	5/14(일)	프라임필정기연주회	7		5	3	2	1			
300	5/23(화)	국립합창단정기음악회			3	2	1.5	1			
301	5/31(수)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회			3	2	1.5	1			
302	6/1(목)	경기도립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303	6/6(화)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3	2	1				
304	6/7(수)	서울오라토리오정기연주회	12		10	8	6	4	2		
305	6/11(일)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306	6/17(토)	프라임필정기연주회			5	3	2	1			
307	6/22(목)	서울시향정기연주회			5	3	2	1			
308	6/24(토)	유라시안필하모닉 테마음악회	10		7	6	5				
309	6/27(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7	5	3	2	1		
310	7/11(화)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5	4	2	1	0.5		
311	7/18(화)	이마에스트리창단연주회			6	5	4	3			
312	7/22(토)	금난새와 유라시안필하모닉	7		5	3	2	1			
313	7/25(화)	한국클라리넷페스티벌				1	0.5				
314	7/28(금)	서울시향 베토벤사이클			10	5	3	2	1		

315	8/5(토)	아시아필하모닉		10	8	6	4	2		
316	8/12(토)	청소년음악회with튜티앙상블			2	1				
317	8/13(일)	SCP 여름방학특선 음악회		5	3	2	1			
318	8/18(금)	여름실내악			2	1.5	1			
319	8/29(화)	모차르트탄생250주년기념음악회		8	6	4	2			
320	9/12(화)	프리마돈나앙상블정기연주회		6	5	4	3			
321	9/13(수)	모차르트레퀴엠음악회	12	10	8	6	4	2		
322	9/14(목)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323	9/19(화)	윤이상관현악곡의밤		7	5	3	2			
324	9/23(토)	소프라노 김수정 데뷔10주년 기념콘서트		5	3	2				
325	9/27(수)	국제대위20주년 기념조수미독창회		16	12	8	5			
326	9/29(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7	6	5	4	3	2	
327	10/13(금)	서울시향정기연주회		5	3	2	1			
328	10/14(토)	김대진의 '청소년음악회'		1.5	1					
329	10/18(수)	수원시향정기연주회		3	2	1	0.5			
330	10/19(목)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331	10/21(토)	강동석의희망콘서트		7	5	3	2			
332	10/22(일)	사랑과영혼의노래		5	3	2	1			
333	10/28(토)	아이오페 클래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5	4	3	2			
334	11/3(금)	헨델메시아원전연주회		12	8	5	3			
335	11/5(일)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336	11/14(화)	한국원로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1				
337	11/17(금)	두오협회스페셜콘서트		3	2	1				
338	11/19(일)	장한나첼로리사이틀		9	7	5	3	2		
339	11/21(화)	한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1			
340	11/28(화)	바리톤김성길독창회	10	5	3	2				
341	11/29(수)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4	3	2			
342	11/30(목)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3	2	1.5	1			
343	12/1(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344	12/5(화)	콰르텟21창단15주년기념음악회		3	2	1				
345	12/6(수)	한국가곡대축제		8	6	3	2	1		
346	12/7(목)	서울시향정기연주회		5	4	3				
347	12/8(금)	소프라노 신영옥 콘서트	15	13	10	8	5			
348	12/9(토)	김대진의 '청소년음악회'			1.5	1				
349	12/10(일)	서울뮤즈플룻앙상블정기연주회		7	5	3	2			
350	12/12(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8	6	4	2			
351	12/15(금)	사랑의플룻콘서트		5	3	2	1			
352	12/16(토)	세종콘서트콰이어소년음악회		5	3	2				
353	12/19(화)	백건우피아노리사이틀		6	4	2				
354	12/21(목)	서울모데트합창단 '다함께부르는메시아'		5	3	2	1			
355	12/22(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7	6	5	4	3	2	
356	12/23(토)	송영훈의화이트크리스마스		5	4	3	2			
357	12/24(일)	경기필과금난새의X-MAS초대		5	4	3	2			
358	12/29(금)	2006솔리스트앙상블정기연주회		9	7	5	4			
359	12/30(토)	유라시아필하모닉정기연주회		7	5	3	2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9.1	5.95	3.9	2.6	2	1.6	1.5
360	1/4(목)	2007신년음악회		5	4	2	1			
361	1/23(화)	금난새와유라시아필하모닉의신년음악회	7	5	3	2	1			
362	1/26(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363	1/28(일)	클래식버스커스와함께특별한겨울방학		5	3	2				
364	2/3(토)	CBS신년음악회	10	7	5	3				
365	2/4(일)	2007스콜클래식			2.5	1.5				
366	2/6(화)	프리모칸뎀때정기연주회	10	7	5	3	2			
367	2/7(수)	서울시립교향악단연주회		3	2	1				
368	2/8(목)	경기도립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369	2/10(토)	프라임필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7	5	3	2	1			
370	2/14(수)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5	4	3				
371	2/20(화)	오페라갈라콘서트		7	5	3	2			
372	2/24(토)	나덕성정년퇴임기념음악회		5	3	2				
373	2/27(토)	음악이있는마을창단10주년기념공연		5	2	1				
374	3/6(화)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375	3/8(목)	서울원드앙상블정기연주회		3	2	1				
376	3/9(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2	1		
377	3/16(금)	수원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0.5			
378	3/17(토)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4	3	2			

379	3/18(일)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7	5	3	2	1		
380	3/20(화)	코리아심포니 정기연주회			3	2	1.5	1			
381	3/22(목)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3	2	1			
382	3/23(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4	3	2	1	
383	3/24(토)	금난새와유라시아필의신춘음악회				3	2	1			
384	3/25(일)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5	4	3	2	1			
385	3/27(화)	2007새출발희망콘서트			7	5	3	1			
386	3/29(목)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		
387	3/30(금)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7	5	3	1				
388	4/23(월)	교향악축제			3	2	1				
389	4/25(수)	김민바이올린독주회			5	3	2	1			
390	4/27(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4	3.3	2.5	1.6	1	
391	4/28(토)	서울튜티앙상블 특별음악회			5	3	2				
392	5/5(토)	신애라와함께하는예술의전당어린이음악회				1.5	1				
393	5/6(일)	스타즈온클래식			7	5	3				
394	5/8(화)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10	5	2					
395	5/9(수)	벨라보체음악회		7	5	3	2				
396	5/10(목)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	2	1.5	1			
397	5/12(토)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70회 정기연주회			5	3	2	1			
398	5/13(일)	클래식동화음악회				3	2				
399	5/13(일)	테너 김남두 리사이틀		10	7	5	3	2			
400	5/15(화)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7	5	3	1				
401	5/17(목)	코리아심포니 정기연주회			3	2	1.5	1			
402	5/18(금)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	5	4	3	2	
403	5/19(토)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음악교실				1.5	1				
404	5/22(화)	강남심포니 창단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2	1	0.5				
405	5/27(일)	금난새와유라시아필의가족음악회			8	6	4	2			
406	5/29(화)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1			
407	6/1(금)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	2	1	0.5			
408	6/5(화)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정기연주회			10	5	3	1			
409	6/6(수)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7	5	3	1			
410	6/7(목)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		
411	6/8(토)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	2	1				
412	6/13(수)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3				
413	6/15(금)	부천필하모닉 정기연주회			3	2	1				
414	6/16(토)	한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415	6/19(화)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10	8	6	4	2		
416	6/23(토)	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1				
417	6/24(일)	영어로 해설하는 잉글리쉬 콘서트				3	2				
418	6/27(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2	10	7	5	3	1		
419	6/28(목)	코리아심포니-소프라노서혜연독창회		10	7	5	3				
420	6/29(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	5	4	3	2		
421	7/1(일)	프라임필하모닉 정기연주회		7	5	3	2	1			
422	7/3(화)	최훈차과이어 정기연주회			3	2	1				
423	7/4(수)	브람스서거110주년 기념첼러콘서트		10	5	3	2	1			
424	7/6(금)	서울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	10	7	5	3	2		
425	7/7(토)	오페라의밤			7	3	2				
426	7/11(수)	한여름밤의콘서트			7	6	5	4	2		
427	7/12(목)	KBS교향악단&덕영트리오 연주회			7	5	3	2			
428	7/14(토)	머니투데이 여름음악회			7	5	3	2	1		
429	7/27(금)	KBS교향악단 제605 정기연주회				4	3.3	2.5	1.6	1	
430	7/29(일)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 - 청소년 음악회				3	2	1			
431	7/31(화)	이마에스트리제2회 정기연주회			6	5	4	3	1		
432	8/1(수)	JK앙상블-청소년을위한음악회				1.5	1.2	1			
433	8/2(목)	청소년음악회		7	5	3	1				
434	8/4(토)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8	6	4	2			
435	8/5(일)	스쿨클래식 <현대음악속으로>				2	1				
436	8/7(화)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4	3	2			
437	8/22(수)	서울시립교향악단 브람스 스페셜		12	10	7	5	3	1		
438	8/24(금)	소프라노 신영옥		15	12	9	7	5			
439	8/28(화)	FOCUS타악기앙상블			5	3	2				
440	8/31(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4	3	2	1	
441	9/6(목)	헨델의오라토리오`유다스마카베우스`			3	2	1.5	1			
442	9/8(토)	SM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443	9/9(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3	2	1		

444	9/11(화)	바로크합주단117회정기연주회	7	5	3	1				
445	9/12(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446	9/14(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447	9/21(금)	국립합창단 초청 연주회		3	2	1.5	1			
448	9/28(금)	서울튜비즈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449	9/29(토)	이연화피아노독주회		5	3	1				
450	10/2(화)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		
451	10/7(일)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452	10/12(금)	임형주와함께하는가을밤콘서트	15	10	8	5				
453	10/18(목)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5	1			
454	10/20(토)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음악교실			1.5	1				
455	10/28(일)	강동석의희망콘서트		7	5	3	2			
456	11/4(일)	서곡과아리아의향연		8	6	4	2			
457	11/4(일)	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7	5	3	1				
458	11/15(목)	수원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459	11/20(화)	한국페스티발앙상블정기연주회			2	1.5		1		
460	11/23(금)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4	3	2			
461	11/25(일)	사랑과영혼의노래		5	3	2	1			
462	11/27(화)	부천필 브루크너 교향곡 전국 연주		3	2	1				
463	11/28(수)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5	1			
464	11/30(금)	한국원로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465	12/4(화)	울려퍼와이어&오케스트라메시아연주		7	5	3	2			
466	12/14(금)	CJ문화재단과함께하는백건우베토벤		5	3	2				
467	12/15(토)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음악교실			1.5	1				
468	12/18(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메시아'			5	3	2	1		
469	12/19(수)	소프라노홍혜경크리스마스콘서트	15	12	8	5	3			
470	12/20(목)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메시아'		3	2	1.5	1			
471	12/21(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	5	4	3	2	
472	12/23(일)	강릉모의화이트크리스마스		5	4	3	2			
473	12/27(목)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2	10	7	5	3	1		
474	12/28(금)	경기필하모닉정기연주회	5	4	3	2	1			
475	12/29(토)	솔리스트앙상블 제 24회 정기연주회		10	8	6	4			
476	12/30(일)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7	5	3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8.9	5.51	3.7	2.4	1.9	1.5	1.3	
477	1/22(화)	2008신년음악회		10	8	5	3			
478	1/23(수)	금난새&유라시안필하모닉	8	6	4	3	2			
479	1/27(일)	스쿨클래식 '겨울음악여행'			2.5	1.5				
480	2/1(금)	바리톤김동규초청음악회	10	7	5	3				
481	2/2(토)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10	7	5	3	1		
482	2/2(토)	겨울방학청소년을위한음악회		2	1.5	1				
483	2/12(화)	서울내셔널심포니정기연주회	10	7	5	3	2			
484	2/16(토)	신영옥 & 김선옥 초청연주회		10	8	6	4			
485	2/17(일)	제네시스와함께하는정명훈초청연주회	10	7	5	4	3			
486	2/21(목)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487	2/26(화)	임동혁피아노리사이틀		8	5	3				
488	3/4(화)	SNO창단14주년기념연주회	10	7	5	3	2			
489	3/6(목)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490	3/7(금)	테너임산독창회		10	8	5	3			
491	3/8(토)	김영미 - 오페라 30년, 벨칸토 30년		10	8	6	4	2		
492	3/10(일)	프리모칸판메신춘대음악회	10	7	5	3				
493	3/14(금)	대전시립교향악단연주회		5	3	2	1			
494	3/15(토)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5	3	2	1			
495	3/16(일)	채리티제임비앙상블정기연주회		3	2	1				
496	3/18(화)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2	1			
497	3/20(목)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10	7	5	3	2	1		
498	3/21(금)	서울시향의러시아명곡시리즈		6	4	2	1			
499	3/22(토)	삼성전자 함께하는 금난새, 유라시안 필하모닉	7	5	4	3	2			
500	3/22(토)	코리아W필하모닉오케스트라창단연주	10	7	5	3	2			
501	3/23(일)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7	5	3	1				
502	3/27(목)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6	5	4	3	2	
503	3/30(일)	비하우스첼로앙상블 '에센셜'	5	4	3	2	1			
504	4/23(수)	교향악축제		3	2	1				
505	4/24(목)	코리아 W 필하모닉	10	7	5	3	2			
506	4/25(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6	5	4	3	2	
507	5/2(금)	어린이를 위한 키즈 클래식 콘서트	10	5	3	2	1			

508	5/5(월)	2008어린이음악회			2	1.5				
509	5/9(금)	시호오페라단창단기념콘서트	15	13	10	7	5	3		
510	5/10(토)	카메라타서울양상블특별연주회		5	3	1				
511	5/10(토)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512	5/11(일)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4	3	2			
513	5/11(일)	Bravura(브라부라)정기연주회	10	7	5	3	2			
514	5/14(수)	오페라갈라콘서트	10	8	5	3	2			
515	5/16(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3.5	2.8	2	1.2	1	
516	5/31(토)	코리아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517	6/1(일)	밀레니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10	7	5	2			
518	6/2(월)	피아니스트유영옥국내첫리사이틀		7	5	4	3			
519	6/6(금)	서울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족음악회	10	5	3	2	1			
520	6/8(일)	테너엄정행리사이틀	10	7	5	3				
521	6/10(화)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정기연주회		7	5	3	1			
522	6/13(금)	테너 박현재 & 소프라노 신지화	5	4	3	2				
523	6/17(화)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정기연주회			2	1				
524	6/19(목)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4	3	2	1			
525	6/28(토)	디토플러스		7	5	3				
526	6/29(일)	부천필하모닉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527	6/30(월)	소프라노임선혜국내첫리사이틀	7	5	4	3				
528	7/2(수)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12	10	8	6	4	2		
529	7/3(목)	수원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0.5			
530	7/4(금)	코리아심포니 기획시리즈	5	4	3	2	1			
531	7/5(토)	서울시향의마스터피스시리즈		10	7	5	3	1		
532	7/9(수)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533	7/12(토)	함신익,대합창과교향악의만남	8	5	3	2	1			
534	7/18(금)	이마에스트리정기연주회		7	6	5	4	3	1	
535	7/19(토)	청소년 음악회-김대진의 음악교실			1.5	1				
536	7/20(일)	프라임필정기연주회	5	3	2	1				
537	7/22(화)	부천필창단20주년기념음악회		3	2	1				
538	7/24(목)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	3.3	2.5	1.6	1	
539	7/27(일)	해설이있는음악회`목관페스티벌`		3	2	1				
540	7/30(수)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콘서트	10	8	5	3				
541	8/3(일)	청소년을위한해설이있는음악회		2	1.5	1				
542	8/4(월)	USP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 음악회		3	2	1				
543	8/5(화)	2008동아일보청소년음악회			1.6	1.3	1.1			
544	8/6(수)	밀레니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10	7	5	2			
545	8/11(월)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5	4.4	3.3	2.2			
546	8/15(금)	예술의전당여름음악축제-베스트클래식			1.5	1				
547	8/18(월)	서울신문청소년음악회	5	3	2	1				
548	8/23(토)	광정의하피이야기			3.3	2.2	1.1			
549	8/24(일)	2008스쿨클래식			2.5	1.5				
550	8/24(일)	3테너콘서트	10	7	5	3	1			
551	8/26(화)	서울심포니와함께하는`한여름밤의콘서트`				2	1			
552	8/30(토)	가톨릭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553	9/2(화)	오페라콘체르탄테<자코모와여름>	7	5	3	2				
554	9/5(금)	서울시향의리딩음악회		5	3	2	1			
555	9/9(화)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556	9/11(목)	바리톤김동규가을밤의클래식여행	10	7	5	3	2			
557	9/17(수)	윤이상페스티벌		7	5	2				
558	9/19(금)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559	9/20(토)	서울시향갈라콘서트		8	6	4	2			
560	9/20(토)	우리아버지합창단정기연주회			5	3				
561	9/21(일)	한국오페라60주년기념갈라콘서트		5	3	2	1			
562	9/28(일)	피아니스트임동민리사이틀		7	5	3				
563	9/30(화)	인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564	10/1(수)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7	5	3	1				
565	10/2(목)	성남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0.5			
566	10/6(월)	내마음의클래식	10	7	5	3	2			
567	10/15(수)	서울시향의 러시아 명곡 시리즈		6	4	2	1			
568	10/17(금)	강동석의희망콘서트		7	5	3	2			
569	10/18(토)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음악교실			1.5	1				
570	10/31(금)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1				
571	11/1(토)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	3	2	1	
572	11/1(토)	서울신문사가을밤콘서트	10	7	5	3	2			

573	11/2(일)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제73회정기연주회		5	3	2	1		
574	11/3(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10	7	5	3	2	1	
575	11/4(화)	한국원로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576	11/6(목)	서울시향의마스터피스시리즈		10	7	5	3	1	
577	11/7(금)	무악오페라창단기념오페라갈라콘서트	12	10	7	5	3		
578	11/14(금)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579	11/15(금)	강충모의인투더클래식		5	3	2			
580	11/18(화)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5	4.4	3.3	2.2		
581	11/22(토)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음악교실			1.5	1			
582	11/23(일)	소프라노김영미교수 `살과 나눔` 콘서트		8	6	4	2		
583	11/24(월)	월드심포니오케스트라창단공연	10	8	6	4	2		
584	11/26(수)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기념음악회		5	3	2			
585	11/30(일)	백건우의'아기예수를향한20개의시선'		6	4	2			
586	11/30(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587	12/5(금)	Sumi Jo(조수미) & Alessandro Safina	15	13	10	7			
588	12/9(화)	최훈차콰이어정기연주회		7	5	3	2		
589	12/12(금)	오페라 갈라 콘서트	12	10	8	5	3		
590	12/16(화)	코리아심포니크리스마스페밀리콘서트	5	4	3	1			
591	12/23(화)	김남윤 & 150人 바이올리니스트			4	2			
592	12/25(목)	성탄음악회	10	7	4	2			
593	12/26(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2	1	0.7			
594	12/29(월)	솔리스트앙상블정기연주회		10	8	6	4		
595	12/30(화)	서울시향의마스터피스시리즈		10	7	5	3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8.7	6.17	4.2	2.7	2	1.8
596	1/2(금)	2009신년음악회			5	3			
597	1/22(목)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7	5	3	2	1	
598	1/28(수)	신년음악회	7	5	3	2	1		
599	1/30(금)	서울신문 신년 음악회	10	7	5	3	2		
600	2/1(일)	서울바로크합주단	9	6	3	1			
601	2/5(목)	서울내셔널심포니정기연주회	10	5	3	2	1		
602	2/6(금)	경기필하모닉정기연주회	5	3	2	1	0.5		
603	2/7(토)	칸타빌레 스페셜 리사이틀		4	3	1.5			
604	2/8(월)	4대의 피아노	5	3	2				
605	2/10(화)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5	3	2.3	1.5		
606	2/12(목)	피아니스트 서혜경 리사이틀	8	6	5	4	2		
607	2/13(금)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	2	1.5	1		
608	2/19(목)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	3	2	1		
609	2/20(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	5	4	3	2
610	2/21(토)	김원피아노리사이틀		7	5	3			
611	2/21(토)	2009스쿨클래식		2.5	2	1.5			
612	2/24(화)	코리아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3	1			
613	2/25(수)	동북아평화음악회	10	7	5	3	1		
614	2/26(목)	바리톤김동규초청음악회	10	7	5	3			
615	2/27(금)	리처드 용재 오닐 콘서트		10	8	5	3		
616	3/1(일)	서울내셔널심포니특별연주회	7	5	3	2	1		
617	3/3(화)	서울원도앙상블 정기연주회		2	1				
618	3/5(목)	한국교향악단 창단연주회			2	1			
619	3/6(금)	소프라노김은경의봄의소리	12	10	7	5	3		
620	3/7(토)	코리아 W 필하모닉	7	5	3	2			
621	3/7(토)	세종솔로이스츠		8	5	2	1		
622	3/8(일)	매조소프라노김학남		10	7	5	3		
623	3/15(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			3	2			
624	3/17(화)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기획연주	10	8	5	2			
625	3/19(목)	스타콘서트	15	10	7	5	3		
626	3/20(금)	서울심포니에타정기연주회			5	3	1.5		
627	3/22(일)	모스틀리필하모닉정기연주회		10	7	5	3	2	
628	3/25(수)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7	5	3	1			
629	3/26(목)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5	4.7	3.8	2.5	2
630	3/28(토)	유라시아필하모닉신춘음악회		8	6	4	2		
631	3/28(토)	프라임필하모닉 정기연주회	5	4	3	2			
632	3/30(월)	더멘즈콰이어정기연주회		7	5	3	2		
633	3/31(화)	서울모테트합창단연주	10	7	5	3	2	1	
634	4/21(화)	교향악축제		3	2	1			
635	4/22(수)	정명화콘서트		5.5	4.4	3.3	2.2		
636	4/30(목)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1			

637	5/3(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7	5	3	2	1		
638	5/5(화)	신애라와함께하는어린이음악회			3	2	1				
639	5/8(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7	6	5	4	3	
640	5/9(토)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5	3	2					
641	5/11(월)	백건우와김태형,김준희,김선욱			10	6	4	2			
642	5/12(화)	김정원과친구들		9.9	7.7	6.6	5.5	3.3			
643	5/14(목)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644	5/16(토)	예술의전당청소년음악회				1.5	1				
645	5/17(일)	브라부라정기연주회		10	7	5	3	2			
646	5/19(화)	벨라보체 음악회		7	5	3	2				
647	5/26(화)	수원시립합창단 기념음악회		3	2	1	0.5				
648	5/28(목)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649	5/31(일)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0	7	5	3	2			
650	6/2(화)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651	6/3(수)	한국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652	6/4(목)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5	3	1.5			
653	6/6(토)	코리아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654	6/6(토)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655	6/8(월)	서울필하모닉정기연주회		20	15	10	5				
656	6/9(화)	강남신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3	2	1				
657	6/10(수)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정기연주회			7	5	3	1			
658	6/11(목)	밀레니엄신포니오케스트라		10	7	5	3	2			
659	6/12(금)	소리열필하모닉오케스트라		10	5	3	2	1			
660	6/14(일)	레이디스싱어즈음악회		8	5	4	3	2			
661	6/16(화)	베르디 '레퀴엠'		10	8	6	4	2			
662	6/21(일)	프라임필하모닉정기연주회		5	4	3	2				
663	6/28(일)	디토펙스티벌			7	5	3				
664	7/2(목)	서울모테트합창단 연주		10	7	5	3	2	1		
665	7/4(토)	가톨릭합창단정기연주회		7	5	3	2				
666	7/9(목)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6	5	4	3	2	
667	7/10(금)	이마에스트리정기연주회			7	6	5	4	3	1	
668	7/23(목)	코리아니쉬플루트오케스트라				3	2				
669	7/26(일)	머니투데이와 함께하는 금년새 해피클래식		7	5	4	3	2			
670	7/28(화)	강남신포니정기연주회		5	3	2	1				
671	7/31(금)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672	8/4(화)	2009스쿨클래식				2.5	1.5				
673	8/12(수)	교과서애나오는클래식음악특별공연				2.5	2	1			
674	8/13(목)	서울신문 청소년 음악회		5	3	2	1				
675	8/14(금)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5	3	1			
676	8/16(일)	2009 베스트 클래식				1.5	1				
677	8/20(목)	동아일보청소년음악회				1.6	1.3	1.1			
678	8/21(금)	정명훈과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7	5	3	2	1			
679	8/23(일)	광정의하프이야기				2.5	1.5				
680	8/25(화)	박중훈의러브레터			3	2					
681	8/26(수)	7인의음악인들			11	8.8	6.6	4.4			
682	8/27(목)	FOCUS 타악기 앙상블 정기 연주회			9	6	3				
683	9/3(목)	Sop.이현숙 & Bar.이재환 듀오 콘서트		7	5	3	2				
684	9/5(토)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2	1				
685	9/5(토)	루치아노파바로티추모기념음악회		7	5	3	2				
686	9/7(월)	우리아버지합창단정기연주회				5	3				
687	9/13(일)	푸르덴셜생명사랑의음악회			7	2.5	1				
688	9/15(화)	마산시립교향악단전국순회연주회				2	1				
689	9/17(목)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690	9/24(목)	인씨오페라단의 오페라콘서트		10	8	5	3	1			
691	9/28(월)	프리마돈나앙상블가을음악회			10	8	6	4			
692	9/30(수)	이연화베토벤피아노협주곡전곡		5	3	2					
693	10/1(목)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694	10/6(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0	6	3	1				
695	10/7(수)	백주영리사이틀			5	4	3				
696	10/16(금)	수원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7	5	3	1				
697	10/20(화)	인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698	10/22(목)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5	3	2	1	0.5			
699	10/23(금)	소프라노김희정콘서트		11	9	6	4				
700	10/24(토)	바이올리니스트양성식독주회		20	10	7	5	3			
701	10/26(월)	강동석의희망콘서트			7	5	3	2			

702	11/1(일)	그란갈라콘서트	15	10	8	5	3				
703	11/2(월)	서울신문 가을밤 콘서트		10	7	5	2				
704	11/4(수)	두오협회스페셜콘서트			5	3	2				
705	11/6(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9	7	6	4.5	3.5		
706	11/7(토)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707	11/11(수)	성남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708	11/15(일)	백혜선 피아노독주회			6	5	4	3			
709	11/16(월)	박중훈피아노연주회			5	3	2				
710	11/18(수)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2	1				
711	11/21(토)	장한나첼로소나타		11	9.9	7.7	5.5	3.3			
712	11/23(월)	다울음악회		15	12	10					
713	11/24(화)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5	4.4	3.3	2.2			
714	11/25(수)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0	6	3	1				
715	11/27(금)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1				
716	12/1(화)	2009송년음악회		10	7	5	3	2			
717	12/3(목)	바로크 오라토리오 헨델<메시아>		15	10	7	5	4	3		
718	12/4(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9	7.5	6	4.5	3.5	
719	12/5(토)	장한나첼로소나타				7.7	5.5	3.3			
720	12/7(월)	서울필하모닉정기연주회		20	15	10	5	3			
721	12/8(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722	12/12(토)	피호영독주회			5	4	3				
723	12/17(목)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9	7.5	6	4.5	3.5	
724	12/18(금)	바이올리니스트스태판재키리사이틀			7	5	3				
725	12/20(일)	송년음악회오페라갈라콘서트		12	10	8	5	3			
726	12/21(월)	연광철&정명훈의슈베르트겨울나그네			11	8.8	6.6	4.4	3.3		
727	12/22(화)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7	5	3	2	1		
728	12/23(수)	예술의전당 화이트 크리스마스		7	5		3				
729	12/24(목)	서울심포니에타의 겨울극장			15	5	3	1.5			
730	12/27(일)	그랜드피아노콘서트			5	2	1				
731	12/29(화)	솔리스트앙상블정기연주회			10	8	6	4			
732	12/30(수)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7	5	3	2	1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5	9	6.34	4.3	2.8	2.3	2.5	2.6	
733	1/9(토)	머니투데이신년음악회		15	12	10					
734	1/9(토)	KBS교향악단신년음악회				5	4	3	2	1	
735	1/12(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736	1/15(금)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10	7	5	3	1		
737	1/17(일)	한국원로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738	1/17(일)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2.5	2	1.5			
739	1/21(목)	신년음악회		7.7	5.5	3.3	2.2				
740	1/24(일)	다울음악회 제2회 정기연주회		15	12	8	5	2			
741	1/29(금)	소프라노신영옥콘서트		15	11	7.7					
742	1/30(토)	해설이있는청소년을위한음악회			3	2	1				
743	2/2(화)	서울내셔널심포니의 베토벤 마스터 시리즈		10	7	5	3	2			
744	2/3(수)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5	4.7	3.8	2.5	2	
745	2/4(목)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서울시향			5	3	2	1			
746	2/7(일)	금남새와함께하는실내악갈라콘서트		10	8	6	4	2			
747	2/9(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748	2/11(목)	Great3BSeries-베토벤			4	3	2				
749	2/16(화)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750	2/20(토)	영감과열정챔버오케스트라			5	2	1				
751	2/20(토)	가톨릭합창단정기연주회		10	7	5	3	1			
752	2/23(화)	바리톤김동규초청음악회		10	7	5	3				
753	2/26(금)	경기필하모닉정기연주회		7	5	3	2	1			
754	2/27(토)	임동혁리사이틀			10	8	5	3			
755	2/27(토)	서울 새봄음악회			10	7	5				
756	2/28(일)	신춘음악회		12	10	7	5	3			
757	3/2(화)	박정선합창음악의밤		10	5	3	2	1			
758	3/4(목)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759	3/6(토)	비올리스트리처드용재오닐리사이틀			10	8	5	3			
760	3/6(토)	프라임필정기연주회		5	3	2	1				
761	3/7(일)	서울심포니에타 정기연주회			10	5	3	1.5			
762	3/7(일)	소리얼필하모닉정기연주회			5	3	2	1			
763	3/9(화)	프리모칸뎀정기연주회		10	7	5	3				
764	3/11(목)	Great3BSeries-베토벤			4	3	2				
765	3/15(월)	코리아 W 필하모닉		7.7	5.5	3.3	2.2				

766	3/16(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5	10	5	2				
767	3/19(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768	3/20(토)	오페라 갈라 콘서트	15	10	7	5				
769	3/21(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2	1	0.5				
770	3/22(월)	솔리스트 브라스 앙상블		5	3	2	1			
771	3/23(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10	7	5	3	2	1		
772	3/24(수)	화음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7.7	5.5	3.3	2.2			
773	3/26(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6	5	4	3	2	
774	3/27(토)	금난새와유라시안필의신춘음악회		8	6	4	2			
775	3/28(일)	조수미독일가곡리사이틀	17	15	13	8				
776	3/30(화)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1				
777	4/7(수)	서울바로크합주단특별연주회	15	10	5	2				
778	4/17(토)	교향악축제		3	2	1				
779	4/26(월)	밀알콘서트	10	3	2	1				
780	4/30(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5	4.7	3.8	2.5	2	
781	5/1(토)	스타콘서트	15	10	7	5				
782	5/1(토)	베토벤 마스터 시리즈	10	7	5	3				
783	5/6(목)	국립합창단제131회정기연주회		3	2	1.5	1			
784	5/8(토)	파밀리아콘서트	15	10	7	5	3			
785	5/9(일)	브라부라콘서트	10	7	5	3	2			
786	5/11(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5	10	5	2				
787	5/15(토)	예술의전당청소년음악회			1.5	1				
788	5/19(수)	한-체코수교20주년음악회		12	10	7	5	3	2	
789	5/20(목)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서울시향		10	7	5	3	1		
790	5/24(월)	한국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10		5				
791	5/25(화)	서울클래식컬레이더즈정기연주회	10	5	3	2	1			
792	5/27(목)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1				
793	5/28(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6	5	4	3	2	
794	6/1(화)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정기연주회		3	2	1				
795	6/3(목)	소리얼필하모닉정기연주회	7	5	3	2	1			
796	6/4(금)	프라임필하모닉정기연주회	5	3	2	1				
797	6/5(토)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798	6/6(일)	해설이있는태교음악회		3	2	1				
799	6/6(일)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12	5	3	1.5			
800	6/9(수)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10	5	3	1			
801	6/13(일)	아시아투데이창간5주년기념	10	8	6	5	4			
802	6/14(월)	소프라노박지현독창회		5	3	1				
803	6/15(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804	6/17(목)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805	6/18(금)	코리아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806	6/20(일)	금난새와유라시안필하모닉의동행	10	8	5	3	2			
807	6/20(일)	코리아W필'러시아의밤'	7.7	5.5	3.3	1.1				
808	6/21(월)	서울필하모닉정기연주회	20	15	10	5	3			
809	6/26(토)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연주회		7	5	3	2			
810	6/27(일)	김정원과친구들	9.9	7.7	5.5	3.3				
811	7/4(일)	디토펙스티벌		7	5	3				
812	7/8(목)	마에스트리제5회정기연주회	15	10	8	5	4	3		
813	7/9(금)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814	7/10(토)	필하모니아코리아창단연주회		10	5	3	1			
815	7/10(토)	최훈차콰이어정기연주회		7	5	3	2			
816	7/12(월)	서울싱어즈정기연주회		4	3.5	3	2			
817	7/13(화)	서울센트럴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818	7/16(금)	홍혜경 & 김우경이 함께하는 오페라의 밤	15	12	9	7	5	3		
819	7/19(월)	코리아니쉬플루트오케스트라		7	5	3	1			
820	7/21(수)	코리아합창페스티벌	8	5	3					
821	7/24(토)	광광청소년해설음악회		2	1.5	1				
822	7/26(월)	모스틀리와함께하는여름날의보이스메일		5	3	2	1			
823	7/28(수)	금난새청소년해설음악회			2	1				
824	7/31(토)	JK앙상블청소년해설음악회			2	1.5	1			
825	8/9(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0	8	6	4			
826	8/11(수)	교과서에나오는교향곡의세계			2.5	2	1.5			
827	8/12(목)	서울신문청소년음악회	5	3	2	1				
828	8/13(금)	USP챔버앙상블콘서트			2.5	1.5	1			
829	8/16(월)	금난새와유라시안필의PeaceConcert	10	8	6	5	2			
830	8/17(화)	여름방학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회			2	1.5	1			

831		8/18(수)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4.5	3.5	2.5	1.5			
832		8/20(금)	동아일보 청소년음악회				1.6	1.3	1.1			
833		8/23(월)	7인의음악인들			10	8	6	4			
834		8/24(화)	예가창단12주년기념음악회		10	7	5	3				
835		8/26(목)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0	7	5	3	1		
836		8/27(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4.2	3.3	2.3	1.5	
837		8/28(토)	바리톤 서정학 리사이틀		6	5	4	2				
838		8/29(일)	합창단음악이있는마을		5		1.5					
839		8/29(일)	조이오브스트링스여름정기연주회		7	5	3	1				
840		9/4(토)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2	1				
841		9/4(토)	김수연,성민제,엘리자벳의항대부			7	5	3				
842		9/5(일)	앙상블디토리사이틀			8	5	3				
843		9/6(월)	우리아버지합창단정기연주회				5	3				
844		9/7(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7	5	3	2				
845		9/8(수)	테너 박성원 리사이틀			10	5	3				
846		9/9(목)	아이레네와함께하는소리그이상의빛		10	7	5	1				
847		9/12(일)	2010윤이상콘서트		7	5	3	2				
848		9/18(토)	Great3BSeries-베토벤			4	3	2				
849		9/18(토)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4.5	3.8	3	2.1	1.5	
850		9/19(일)	춘천시립합창단기념음악회			3	2	1				
851		9/26(일)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4	3	2	1			
852		9/27(월)	장형준과영감과열정첼비오케스트라			5	3	2	1			
853		9/28(화)	서울바로크합주단특별정기연주회		10	7	4	2				
854		9/30(목)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10	7	5	3	2	1		
855		10/1(금)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5.5	4.7	3.8	2.5	2	
856		10/3(일)	한국원로교향악단정기연주회			3	2	1				
857		10/5(화)	그랜드피아노콘서트			5	2	1				
858		10/7(목)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5	3	2	1			
859		10/8(금)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860		10/13(수)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0	8	6	4			
861		10/17(일)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정기연주회			3	2	1				
862		10/18(월)	인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863		10/20(수)	진은숙의아르스노바			5	3	2	1			
864		10/21(목)	코리아심포니정기연주회		5	4	3	1				
865		10/22(금)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		10	8	6	4	2			
866		10/27(수)	서울필하모닉정기연주회		15	12	10	8	5			
867		10/31(일)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868		11/2(화)	이연화베토벤피아노협주곡		5	3	2					
869		11/3(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0	7	5	3			
870		11/7(일)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2.5	2	1.5			
871		11/11(목)	서울신문가을밤콘서트		10	7	5	3	2			
872		11/23(화)	화음첼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7.7	5.5	3.3	2.2			
873		11/26(금)	KBS교향악단650회정기연주회				6	5	4	3	2	
874		11/27(토)	김선욱피아노리사이틀			7	5	3				
875		11/28(일)	피아니스트지용리사이틀			5	3					
876		12/3(금)	서울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10	5	3	2				
877		12/5(일)	첼리스트송영훈독주회			7	5	3				
878		12/8(수)	오페라카르멘갈라		20	15	10	5	3			
879		12/11(토)	스타콘서트	20	15	12	8	5				
880		12/11(토)	울첼비콰이어&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7	5	3	2			
881		12/12(일)	강남심포니송년음악회		5	3	2	1				
882		12/14(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0	7	4	2				
883		12/15(수)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메시아'			3	2	1.5	1			
884		12/17(금)	KBS교향악단송년음악회				6	5	4	3	2	
885		12/20(월)	서울모테트합창단정기연주회				5	3	2	1		
886		12/22(수)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10	7	5	3	1		
887		12/26(일)	하피스트관정의송년음악회			10	7	5	3			
888		12/27(월)	솔리스트앙상블송년음악회			12	10	8	5			
889		12/28(화)	금난새와유라시안필의송년음악회		10	8	6	4	2			
890		12/29(수)	서울심포니에타정기연주회			10	5	3	1.5			
891		12/30(목)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연주회			10	7	5	3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20	10	6.86	4.5	2.9	2.2	2.1	1.8	
892	2011	1/8(토)	라이징스타 & 유스오케스트라			3	2					
893		1/11(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5	3	2	1				
894		1/14(금)	서울시향의말려2011시리즈			10	7	5	3	1		

895	1/16(일)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2.5	2	1.5			
896	1/18(화)	첼리스트송영훈과함께하는신년음악회		7	5	3	1			
897	1/19(수)	니르바나오케스트라신년정기연주회	5	3	2	1				
898	1/22(토)	금난새와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	5	4	3	2	1			
899	1/24(월)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열정의 새해, 2011		10	8	5	3			
900	1/26(수)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신년음악회	15	12	8	5	3			
901	1/27(목)	대우증권과서울바로크합주단	15	10	5	2				
902	1/29(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철때이런음악		3	2	1				
903	1/31(월)	ClassicRainbow	7.7	5.5	3.3	2.2				
904	2/9(수)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10	8	6	4	2		
905	2/13(일)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5	3	1				
906	2/15(화)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7.7	5.5	3.3				
907	2/17(목)	로즈장의Nouveau-Classics콘서트	20	15	11	7	4			
908	2/18(금)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	3	2	1.5	1			
909	2/20(일)	해설이있는태교음악회		5	3	2				
910	2/24(목)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		6	4	3	1			
911	2/25(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5.5	4.7	3.8	2.5	2	
912	2/26(토)	2011 오페라 갈라 콘서트	15	12	8	5	3			
913	2/27(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실내악 갈라 콘서트	10	8	6	4	2			
914	3/1(화)	창작오페라유관순갈라콘서트	18	12	8	5	3			
915	3/3(목)	프리모깁뎀때한미친선콘서트	10	7	5	3	1.5			
916	3/4(금)	바리톤김동규와함께하는아름다운당신에게	10	7	4					
917	3/9(수)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918	3/10(목)	TheGreat3BSeries-브람스		4	3	2				
919	3/11(금)	서울시향의명협주곡시리즈		6	4	3	1			
920	3/12(토)	배다해,코리아타악기오케스트라	10	8	6	5	4			
921	3/15(화)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10	5	3	1.5			
922	3/16(수)	스타콘서트	20	15	12	8	5			
923	3/18(금)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924	3/19(토)	영감과열정첼보오케스트라		5	3	1				
925	3/20(일)	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 정기연주회	5		1.5					
926	3/21(월)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정기연주회		5	3	2	1			
927	3/24(목)	서울시향의악스플로러시리즈		5	3	2	1			
928	3/25(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6	5	4	3	2	
929	3/26(토)	한경 신춘음악회 금난새와 유라시안필		8	6	4	2			
930	3/28(월)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0	6	4	2				
931	3/29(화)	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5	1			
932	3/30(수)	코리아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933	3/31(목)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		
934	4/20(수)	교향악축제		3	2	1				
935	4/21(목)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5.5	3.3	2.2				
936	4/22(금)	진은숙의아르스노바		5	3	2	1			
937	4/26(화)	서울원드앙상블정기연주회		3		2				
938	4/28(목)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8	6	4	2			
939	4/29(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4.5	3.8	3	2.1	1.5	
940	4/30(토)	임동민피아노리사이틀	8	7	5	3				
941	5/2(월)	밀알 콘서트	10	7	3	2				
942	5/5(목)	김지호와함께하는어린이음악회		3	2	1				
943	5/7(토)	강릉시립교향악단음악회	10	8	5	3	2			
944	5/8(일)	브라부라콘서트	10	7	5	3	2			
945	5/12(목)	TheGreat3BSeries-브람스		4	3	2				
946	5/19(목)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		5	3	2	1			
947	5/20(금)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10	6	4	2				
948	5/21(토)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1.5	1				
949	5/21(토)	신세계와함께하는예술의전당토요콘서트			2	1.5				
950	5/23(월)	오페라갈라콘서트-프로포즈	15	12	10	7	5			
951	5/24(화)	뮤트윈드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7	5	3				
952	5/26(목)	코리아안심포니정기연주회	5	4	2	1				
953	5/27(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8	6	5	3.5	2	
954	5/28(토)	서울첼보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	3	2	1			
955	5/31(화)	수원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3	2	1	0.5			
956	6/2(목)	한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957	6/4(토)	한국페스티벌앙상블정기연주회			3	1.5				
958	6/5(일)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10	5	3	1.5			
959	6/6(월)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15	10	5	3	1			

960	6/7(화)	포스메가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961	6/9(목)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962	6/11(토)	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5	3	2				
963	6/12(일)	파르티트21 음악회			3	2	1				
964	6/13(월)	김남윤 바이올린 독주회			5	3	2				
965	6/14(화)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	2	1.5	1			
966	6/15(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967	6/17(금)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968	6/19(일)	백건우,그리고리스트			12	8	5				
969	6/23(목)	서울시향의익스플로러시리즈			5	3	2	1			
970	6/24(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8	6	5	3.5	2	
971	6/26(일)	송영훈의4첼리스트			10	8	6	4			
972	6/28(화)	서울모태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		
973	7/3(일)	디토펬스티벌			10	8	5	3			
974	7/9(토)	한국원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7	5	3	2	1			
975	7/10(일)	베누스토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1					
976	7/11(월)	이마에스트리제6회 정기연주회		15	10	8	5	4			
977	7/13(수)	서울 코리아 합창페스티벌			8	5	3				
978	7/17(일)	살과나눔콘서트-살의노래			10	8	5	3	1		
979	7/18(월)	코리아니쉬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	5	3	1			
980	7/21(목)	서울시향의명협주곡시리즈			5	3	2	1			
981	7/22(금)	KBS교향악단 기획연주회				6	5	4	3	2	
982	7/23(토)	양호재단과정명훈의MiracleofMusic	20	10	7	5	3	2			
983	7/23(토)	최훈차콰이어 정기연주회			5	3	2	1			
984	7/24(일)	교과서에나오는클래식음악				2.5	2	1.5			
985	7/24(일)	오페라스타콘서트		7.7	5.5	3.3					
986	7/25(월)	성남교향취주악단 정기연주회		10	7	5	3				
987	7/28(목)	경기필하모닉 정기연주회		6	4	3	2	1			
988	7/29(금)	매현음악제			5	3	1				
989	7/30(토)	동아일보청소년음악회			2	1.5	1				
990	7/31(일)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0		8	6	4				
991	8/7(일)	예술의전당가족음악축제				1.5	1				
992	8/9(화)	현대자동차서울시향유럽투어기념음악회			10	7	5	3	1		
993	8/16(화)	여름방학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회			2	1.5	1				
994	8/17(수)	여름방학해설이있는청소년음악회			2	1.5	1				
995	8/18(목)	서울신문청소년음악회		5	3	2	1				
996	8/19(금)	조이오브스트링스 클래식스토리II Summer Concert		8	6	5	3				
997	8/22(월)	Counter Tenor이동규&Baritone이웅광 듀오콘서트		7	5.5	3.3	2.2				
998	8/23(화)	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	5	3	2	1			
999	8/24(수)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6	5	4	3	2		
1000	8/29(월)	정기연주회 서울세트럴남성합창단			7	5	3				
1001	8/30(화)	대전시립교향악단 러시아 선택멘탈		5	3	2	1				
1002	8/31(수)	이화경향음악콩쿠르 60주년 기념 음악회			11	7.7	5.5	3.3			
1003	9/2(금)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	1				
1004	9/3(토)	SymphonicScience 세헤라자데		5	3		2				
1005	9/3(토)	The Mens Choir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006	9/4(일)	양상불 디토 앙코르 리사이틀			7	5	3				
1007	9/5(월)	제14회 우리아버지 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1008	9/6(화)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5	3	2	1				
1009	9/8(목)	TheGreat3BSeries-브람스			4	3					3중석=2
1010	9/9(금)	7인의 음악인들			11	8.8	6.6	4.4			
1011	9/14(수)	2011 국제윤이상작곡상 결선연주회 및 시상식			5	3	2	1			
1012	9/16(금)	코리아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1013	9/21(수)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5	3	2	1				
1014	9/22(목)	천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4	3	2	1			
1015	9/23(금)	서울시향의 명협주곡 시리즈			5	3	2	1			
1016	9/26(월)	교향음악회			2	1					
1017	10/2(일)	아시아투데이 정기콘서트 가을의 유혹		20	15	12	10	8			
1018	10/4(화)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박종호 클래식 콘서트		13	10	8	5				
1019	10/7(금)	2011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5	3	2	1			
1020	10/11(화)	조트리오 기념음악회		7	5	3	2				
1021	10/12(수)	아쉬케나지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5	10	7	4			
1022	10/16(일)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정기연주회		10	5	3	2				
1023	10/17(월)	한국 합창 대제전			5	3	2				
1024	10/24(월)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1025	10/25(화)	향기로운 음악회		20	10	7	5				
1026	10/27(목)	세일 한국 가곡의 밤		10	7	5	3				
1027	10/31(월)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			10	8	6	4			
1028	11/2(수)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정기연주회				3	2				
1029	11/04(금)	KBS 교향악단 마스터시리즈			6	5	4	3	2		
1030	11/07(월)	황제 그리고 세헤라자데		5	3	2	1				
1031	11/18(금)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1032	11/20(일)	듀오협회 연주회			5	3	2	1			
1033	11/22(화)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10	6	4	2				
1034	11/14(목)	서울시향의익스플로러시리즈			5	3	2	1			
1035	11/23(수)	성정문화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음악회	15	12	10	8	5	2			
1036	11/25(목)	서울시향의 익스플로러 시리즈			5	3	2	1			
1037	11/25(금)	KBS교향악단 마스터시리즈				6	5	4	3	2	
1038	11/26(토)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리사이틀			7	5	3				
1039	11/27(일)	프리마돈나앙상블 정기연주회				10	8	6	4		
1040	11/27(일)	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3	2	5		
1041	12/3(토)	현대백화점 장한나 리사이틀			15	12	8	5			
1042	12/4(일)	사랑의 플룻콘서트		10	5	3	2				
1043	12/5(월)	코리안 심포니 정기 연주회		5	4	2	1				
1044	12/6(화)	서울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5	3	2	1				
1045	12/8(목)	장한나첼로리사이틀			15	12	8	5			
1046	12/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념 음악회			3	2	1				
1047	12/14(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3	2			
1048	12/21(수)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5	3	2	1				
1049	12/24(토)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10	5	3	1.5				
1050	12/26(월)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15	12	8	6	3			
1051	12/27(화)	쉴리스트앙상블 송년음악회		16	12	10	8	5			
1052	12/28(수)	CBS창사 57주년 기념 신영옥콘서트		15	11	7	4				
작성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8	9.7	6.6	4.6	3	2.5	2.4	1.9	
1053	1/10(화)	Opera in Musica 콘서트			15	12	10				
1054	1/11(수)	서울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0	5	3	2			
1055	1/17(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1056	1/19(목)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1057	1/26(목)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1058	1/29(일)	Overture to 2012 생각을 키우는 클래식				2.5	2	1.5			
1059	1/30(월)	2012신년음악회		5.5	4.4	3.3	2.2				
1060	2/1(수)	서울남산오페라단 창단기념 신년음악회		15	10	7	5	3	1.5		
1061	2/3(금)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6	4	3	1			
1062	2/5(일)	금난새와 한국대학생 연합 오케스트라의 공감II		5	4	3	2	1			
1063	2/9(목)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	10	8	5	3			
1064	2/13(월)	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4	3	2				
1065	2/16(목)	서울 세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3	10	7	5	3			
1066	2/17(금)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	5	4	3	2		
1067	2/18(토)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10	8	5	3			
1068	2/19(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실내악 갈라 콘서트		10	8	6	4	2			
1069	2/24(금)	하이드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5	3	2	1			
1070	2/25(토)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최고의 행복		12	10	8	5	3			
1071	2/29(수)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6	4	3	1			
1072	3/2(금)	바리톤 김동규 초청음악회-아름다운 당신에게		10	7	5	3				
1073	3/5(월)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1074	3/6(화)	2012 힘내라 한국경제 신춘음악회		20	15	10	5	3			
1075	3/7(수)	인씨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5	10	8	5	3			
1076	3/9(금)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6	4	3	1			
1077	3/10(토)	봄의소리축제 I <Scheherazade>			5.5	3.3	2.2				
1078	3/14(수)	화이트데이 아르츠 콘서트 <송영훈&김정원>				7.7	5.5	4.4	3.3		
1079	3/15(목)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1080	3/16(금)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수상자 시리즈		15	10	7	4				
1081	3/19(월)	위대한 유산 II [하이드-천지창조]			10	8	6	4	2		
1082	3/20(화)	프리모 칸뎬떼 정기연주회		10	7	5	3				
1083	3/22(목)	The Great 38 Series 바흐 2012			4	3					
1084	3/23(금)	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6	4	3	1			
1085	3/24(토)	2012 환경 신춘음악회			8	6	4	2			
1086	3/26(월)	장일범과 프렌즈-2012 오페라스타와 함께		10	7	5	3	1			
1087	3/27(화)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7	5	3				
1088	3/28(수)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		

1089	3/30(금)	코리아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1090	4/24(화)	교향악축제		3	2	1				
1091	5/6(일)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정기연주회		7	5	3	2			
1092	5/8(화)	합창과 함께하는 바그너 갈라 콘서트				3	2			
1093	5/9(수)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1094	5/14(월)	CT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2	10	8	5	3		
1095	5/24(목)	The Great 3B Series_바흐 2012			4	3				
1096	5/28(월)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5	12	8	5	3			
1097	6/3(일)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1098	6/4(월)	정기연주회 한국 오라토리오 싱어즈		7	5	3	1			
1099	6/5(화)	서울 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10	5	3	1.5			
1100	6/7(목)	첼리스트 조영창 리사이틀	10	7	5	3				
1101	6/8(금)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I		6	4	3	1			
1102	6/14(목)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7	5	3	2			
1103	6/19(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1104	6/28(목)	코리아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1105	6/29(금)	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II		6	4	3	1			
1106	7/2(월)	The Mens Choir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	7	5	3	2			
1107	7/3(화)	코리아합창페스티벌	10	7	5	3	1			
1108	7/4(수)	서울뮤즈윈드오케스트라 사단법인 축하 연주회		12	7	5	2			
1109	7/5(목)	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5	3	2			
1110	7/11(수)	하이든의 천지창조		4	3	2				
1111	7/14(토)	멘델스존 오라토리로 사도바울		10	7	5	3			
1112	7/16(월)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	5	3	2			
1113	7/19(목)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텐 소프라노즈		10	6	3				
1114	7/22(일)	코리아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8	6	4	2		
1115	7/23(월)	성남교향 취주악단 정기연주회		7	5					
1116	7/25(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루크너 교향곡		3	2	1				
1117	7/26(목)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6	4	3	1			
1118	8/14(화)	서울신문 청소년음악회		10	5	3	2			
1119	8/17(금)	한국원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0	5	3	2			
1120	9/4(화)	한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1				
1121	9/10(월)	테너 박인수 데뷔 50주년 기념음악회		10	7	5	3	2		
1122	9/15(토)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123	9/19(수)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10	5	3	2	1		
1124	9/21(금)	서울시향의마스터피스		6	4	3	1			
1125	9/27(목)	The Great 3B Series_바흐 2012		4	3					
1126	9/28(금)	이 마에스트리 정기연주회		15	10	7	3			
1127	10/13(토)	올 댓 클래식 명곡의 재구성		5	3	2				
1128	10/15(월)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5	3	2	1			
1129	10/29(월)	서울신문 가을방콘서트		20	10	5	3			
1130	11/3(토)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		6	4	3	1			
1131	11/4(일)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			
1132	11/5(월)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정기연주회			3	2				
1133	11/8(목)	코리아안심포니 정기연주회		5	4	2	1			
1134	11/12(월)	한러오페라단 정기연주회		10	7	5	3			
1135	11/13(화)	이성주 데뷔 35주년 기념콘서트		5	3	2				
1136	11/15(목)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VIII		3	2					
1137	11/15(목)	세일 한국가곡의 밤		10	7	5	3			
1138	11/16(금)	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6	4	3	1			
1139	11/16(금)	세익스피어 인 클래식		6	4					
1140	11/18(일)	송영훈과 대명페스티벌오케스트라		7	5	3	2			
1141	11/21(수)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스페셜콘서트		5	3	2				
1142	11/22(목)	The Great 3B Series		4	3					
1143	11/26(월)	대전시립교향악단 유럽투어 프리뷰 콘서트		5	3	2	1			
1144	11/29(목)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6	4	3	1			
1145	11/30(금)	KBS 교향악단 재단법인 출범 기념 특별연주회		8	6	4	2			
1146	12/01(토)	코리아안심포니 기획연주회-송년음악회		5	4	2	1			
1147	12/04(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	3	2				
1148	12/05(수)	대전시립합창단 서울특별연주		3	2	1				
1149	12/06(목)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12	9	6	3	1		
1150	12/07(금)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12	9	6	3	1		
1151	12/11(화)	Media Art Opera Gala Concert		12	10	8.5	6.5			
1152	12/14(금)	KBS교향악단 재단법인 출범 기념 특별연주회		8	6	4	2			
1153	12/21(금)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12	9	6	3	1		

1154	12/23(일)	신영옥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			12	9	7	5			
1155	12/24(월)	크리스마스 아트스 콘서트II			11	8.8	5.5	3.3			
1156	11/28(수)	소프라호른앙상블 정기연주회			5	3					
1157	12/01(토)	김수연, 박종호의 Duetto Amoroso			5	3					
1158	12/02(일)	서울튜터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	2					
1159	12/06(목)	트로아카 콘서트			6	4	2	1			
1160	12/10(월)	윤철희와 친구들의 실내악 콘서트			3	2					
1161	12/18(화)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10	8	5	3			
1162	12/18(화)	노부스 콰르텟 정기연주회			4	2					
1163	12/27(목)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의 희망나눔 송년음악회			10	8	6	4	2		
1164	12/29(토)	2012 피아니스트 김정원 리사이틀·바흐&슈베르트			6	4					
좌석등급 별 평균 티켓 가격					10	7.42	5.1	3.5	2.2	1.8	

(단위 : 10,000원)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seat grades and ticket price inflation in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Oh, Kyung Ji

Major in Music Busines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erforming Arts

Ewha Womans University

There are several seat grades in classical music performance, such as R(Royal) seats, S(Special) seats, A seats and so on. Generally, the R seats are regarded as the highest class among them. However, recent seat grade inflation called "Top over the Top" produced not only VIP(Very Important People) seats above the existing R seats, but also VVIP(Very Very Important People) seats, and P (President) seats. A lot of low-income groups who cannot afford to pay the expensive ticket price are losing the opportunity to appreciate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of famous artists. Thus, this phenomenon promoted an atmosphere of social confusion and disharmony.

In this study, problems caused by the ticket price inflation are handled in all aspects, as well as trends of ticket prices are tracked which have been played in the Seoul Arts Center (SAC) for the last 10 years. Furthermore,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are also presen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seat grade classification methods and ticket pricing principles. "Standard Seat Grade"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seoul arts center since July 2012, the desirable corporate's sponsorship, and the expansion of ticket sales for adolescents as well as the low-income groups will allow many different group of people to freely enjoy various classical music performances.